

第3章 市政施策

第1節 建國初期와 50年代의 市政施策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연합국의 승전으로 해방을 맞게 되었다. 해방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안겨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도 잠시 당시의 사회상황은 일제가 남긴 피폐한 국토와 빈곤 그리고 분단된 조국에서의 좌우익대립으로 인한 사회혼란등으로 인하여 앞날을 예견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다. 거기에는 해외에서 해방을 맞아 돌아온 極貧狀態의 戰災民, 38선 이북에서 남하한 越南民, 貧農을 탈피하고자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들어오는 離農民에 경제피폐로 인한 도시의 失業者까지 합하여 그야말로 도시는 일종의 대피처로 변하여 심한 몸살을 앓기 시작했던 것이다. 해방당시 대구인구는 27만여명이었으나 해방후 2년여 동안에 3만명이 증가하여 30만을 헤아리게 될 정도로 인구는 급격히 불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경제는 풍족하지 못하여 사회가 날로 어지러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행정은 기본적인 치안질서의 확립과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인구가 급증하자 당국은 이의 부양책에 힘쓰는 한편 분산책을 도모하기도 하였는데 1947년 9월 초 罹災民 100세대를 浦港 烏川飛行場에 이주시켜 戰災民厚生村을 설치한 것등이 그것이다.¹⁾

해방과 더불어 급격한 사회변동하에 3년간 실시된 미군정이 산파역이 되어 자유민주적인 憲政하의 새로운 정부가 1948년에 수립되었지만 곧 이은 6·25전쟁은 이땅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게 되어 겨우 민생안정의 기틀을 잡으려 하던 행정은 또다시 戰時行政體制로 그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에 본질은 당시의 행정환경에 따라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행정의 모습을 戰亂收拾과 秩序維持, 糧穀行政, 保健社會行政 및 建設行政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8, p.336.

I. 戰亂收拾과 秩序維持

전통적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이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생활을 보살피는 일, 즉, 民生安定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방직후는 이러한 기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였으나 질서유지를 담당하여야 할 경찰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 信義가 땅에 떨어져 시민들이 이들을 신뢰하려 들지 않아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민생은 收奪行政體制의 殘滓로 남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귀환동포와 월남난민까지 보태어 민중의 생활은 참상을 면치 못하는 상태 그대로 었다. 이를 治安秩序와 社會秩序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治安組織의 整備와 戰時治安

1) 解放과 治安組織의 整備

일제시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부문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활을 곤란하게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간섭하고 제약한 것이 경찰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해방이 되자 가장 먼저 그 기능을 잃어 버렸다. 해방 다음 날인 8월 16일 부터 경찰서가 조직화된 단체에 접수되고 경찰관이 무장해제를 당한곳이 있을 정도로 민중의 경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심하였던 것이다. 경찰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총독과 일본군 사령관은 이에 불안을 느껴 경찰권을 복구코자 함과 동시에 군대를 각지방에 풀어 조선인을 위협하기도 하여, 해방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치안이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 상태는 美軍進駐시 까지 계속되었는데 미군이 진주하자 치안권이 다시 경찰의 손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대구경찰서는 45년 10월 1일자로 미군이 접수하게됨), 미군은 치안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찰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그 기능회복에 힘을 쏟았다.

경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실시한 일은 日人 警察 罷免과 警察官 增員 및 警察機構와 機能 調整이었다. 기구와 기능 조정에 있어서는 우선 경찰의 관할을 조정하여 종래에 도지사의 권한아래에 있던 경찰부를 46년 5월 1일 부로 독립시켜 제5관구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경찰청은 초기에는 총무과, 공안과, 수사과의 3과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로서는 民主警察道の 確立과 祖國再建이라는 경찰이념의 실현에 부족함을 느껴 다시 特務課, 通信課, 女警課 및 公報室 등을 설치하였다. 직명은 중앙청에서는 종래의 경무국장은 경무부장으로 지방의 경찰부장은 경찰청장으로 하였으며, 각경찰서는 지방명을 삭제하고 숫자로써 이름을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서는 제19경찰서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대구경찰서장은

감찰관을 겸무시켜 지방경찰서의 행정을 감찰하도록 하였다.

감찰서는 도내 관할구역을 4개의 감찰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감찰서별로 5~7개의 경찰서를 감찰하도록 하였는데 대구는 제1구 감찰서로서 여자경찰서를 포함한 7개의 경찰서를 관할서로 하였다. 署長은 警監을 보하였는데 초대 대구경찰서장(제19경찰서장)은 李成玉씨였으나 1947년에는 朴箕緒씨로 바뀌었다. 1947년 당시의 대구경찰서의 경찰관총수는 332명으로 이를 당시의 대구인구 269,113으로 나누면 인구 811명당 경찰 1인이 근무한 셈이 된다.²⁾

2) 6·25와 治安維持

해방이후 계속되던 혼란상태에서 6·25라는 사상 유례없는 民族相殘의 비극을 당하기 까지 식량부족등으로 인한 騷擾事件 및 각종의 強·竊盜事件도 문제였지만 공산계릴라(세칭 공비)에 의한 치안질서의 파괴가 계속되어 치안유지는 더욱 어려움에 처했다. 전쟁의 발발로 대부분의 경북지역이 전투지역화되자 민심은 불안에 떨게 되어 대구를 비롯한 일부 非占領地域의 치안 확보는 국가적 운명을 건 중요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共匪掃蕩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구 6·25 발생 직후에는 임시수도의 역할을 하였는데 직접적인 전투지역이 아니었던 까닭에 戰災民이 몰려들어 그 혼란상태는 더욱 심하였다. 1950. 2. 2. 曹在千 慶北知事가 취임기자회견에서 “軍警官民이 4위일체가 되어 공비소탕에 더욱 주력할 것”을 6가지 시정방침 중에서 첫째로 꼽았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심각했으며 전쟁의 일선이 경북지역을 벗어난 이후에도 1953년의 휴전까지는 산악지대 곳곳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었다. 휴전이후에도 共匪가 계속 출몰하여 半戰爭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1956년 지리산 공비토벌이 완료되어 인근의 경북산악지대에서 공비출몰이 종식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초기 도정의 주력은 치안과 군, 경찰, 민병대등의 지원에 집중되었고, 경찰도 공비토벌이 어느정도 일단락 되어 한숨을 돌리게 된 1955년 이후에 가서야 급박한 戰時治安體制에서 벗어나 전쟁후유증으로 등장하는 각종 사회질서 혼란상태의 정비를 시작하게 된다.

2. 社會秩序의 確立

당시 경찰은 치안질서의 확립은 물론 각종의 사회질서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2) 영남일보사, 《慶北總監》, 1946, pp.65-67.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8, pp.301-302.

1950년대 중반기 이후에 경찰행정의 역점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전후의 사회윤리의 타락속에 성행하는 私娼, 비밀댄스홀, 야바우꾼, 소매치기, 강도 등의 단속과 안전대책이 미비한 불량 차량검색, 교통사고의 방지, 교통질서의 확립, 위생상태가 나쁜 음식점소의 단속, 마약중독자의 단속 등이 그것이다. 즉, 치안질서의 유지, 수송 및 교통은 물론 위생문제 까지 경찰의 임무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1947년도 경북도내의 차량총수는 1,269대로서 대다수가 대구를 중심으로한 도시에 집중해 있었으므로 이를 대구의 교통상황을 짐작하는 자료로 삼아 당시의 교통상황을 살펴본다. 차량총수는 전여대에 이르렀으나 휘발유와 기타 부품이 부족하여 空車運行을 제한하고 修繕技能을 습득시켜 운행능률을 올리고자 노력한 것이 당시의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통위반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여 교통사고발생시에는 이것이 사회질서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일벌백계로 이를 개선코자 하였다. 1947년 7월말 교통사고건수는 104건 이로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수는 각각 65명과 23명이다.³⁾

Ⅱ. 糧穀行政

1. 食糧增産과 糧穀受納

1) 糧穀行政의 焦點

해방이후 50년대까지 양정의 초점은 官需糧穀을 확보하여 군량을 공급하고 절량민을 구호하며, 국가안정을 통하여 사회안정과 인플레이방지를 추구하는 것등이었다. 양곡행정의 경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시책이 긴밀한 유대를 가지게 되는데 지방정부의 경우도 양곡의 수납을 위한 각종의 시책추진과 더불어 각종의 絶糧民의 구호를 위한 양곡의 확보와 배분이 문제였다. 토지수득세, 농지개혁상환양곡, 귀속농지상환곡 및 일반매입(또는 양비교환곡)의 수납추진과 절량농가에 貸與한 糧穀의 回收, 旱魃·水害·風害등으로 인해 絶糧狀態에 빠진 農民과 貧民의 救護를 위하여 중앙정부로 부터 救護糧穀을 획득하여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던 것이다.

해방이전에는 일본의 糧穀收奪政策으로 인한 供出로 인하여 양곡이 부족하였으나 해방이후에는 계속되는 米穀의 減收로 인하여 식량의 공급부족이 심각한 상태에서 해외귀환동포의 귀

3)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8, p.305.

국, 월남동포의 증가로 인하여 수요가 늘어난데다가 과거 악압되었던 양곡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극도의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6·25가 발발하자 전쟁수행을 위한 軍糧確保에 避難民救濟 까지 겹쳐 양곡사정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정부양곡관리수요는 연간 최대한도 400~500萬石이나 되었는데, 극심한 旱害와 水害로 인한 1951년의 추곡감수 및 1952년의 夏穀과 秋穀의 감수로 인하여 쌀의 생산이 평년에 비해 20~40%나 감소하여 식량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土地改革償還穀의 수납이 저조하고 양곡수요는 팽창된 상태에서 부득이 정부는 1951년 9월 「臨時土地收得稅法」을 제정하여 토지수익에 대한 조세를 物納(糧穀)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양곡과 비료를 교환하는 「糧肥交換制度」를 새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과 1953년에는 양곡의 일반매입은 중지하고 現物稅徵收와 物物交換으로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려하였는데 이나마 시장에서의 곡가등귀와 흉작에 따른 절대량의 부족으로 목표량의 전량 확보가 불가능하였다.

양곡확보의 부진과 더불어 6·25이후 앙등한 穀價(1949년에 石당 191원씩 하던 쌀값이 1952년에는 9,300원으로 2년간 무려 50배나 올랐다)를 억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부터의 양곡도입도 실시하였는데 1953년도의 양곡 총도입량은 710만석에 달했다. 막대한 양곡도입과 1953년의 쌀생산량이 1949년 수준으로 회복되자(1953년 쌀 생산량:14,744千石, 1953년 쌀 생산량:14,136千石⁴⁾) 앙등일로에 있던 곡가가 1953년 10월 부터는 폭락하기 시작하여 정부는 폭락되는 곡가를 잡기위하여 1951년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지하였던 일반매상을 1954년 부터 부활하고,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추진하는등 곡가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절량농가구제를 위한 「社還穀制度」가 1953년 처음 실시되었다. 이에 힘입어 폭락하던 곡가가 1954년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1955년 5월에서 1955년 9월에 이르는 5개월 동안 곡가는 갑자기 2배로 상승하여, 1954년도 풍작으로 대일수출을 위해 확보했던 쌀을 전국 주요도시에 방출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으나 1955년산 추곡이 출하되기 시작할 때는 안정을 되찾았다.

1956년에는 1955년 5월에 계약 체결한 美國剩餘農產物導入(PL 480-1호 구호양곡)에 의거 1956년부터 연간 50톤(약 350萬石) 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57년 부터는 아직 절량민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전국이 식량기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1957년 부터는 양곡의 일반매입을 철폐하고 구호양곡의 배급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4) 《한국농정 20년사》, p.121.

그러나 춘궁기에 폭등하고 풍년인 추수기에 폭락하는 등 곡가의 일시적 등락은 여전히 있어 이로 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영세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정부는 1957년 가을 부터 「米穀擔保融資制度」를 실시하게 되었다. 「米穀擔保融資制度」는 곡가의 연중 진폭을 완화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

2) 食糧増産

해방이후 계속된 식량부족과 피난민구호와 절량민구호를 위하여 노력하던 정부는 1949년에서 1951년에 걸치는 농업증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6·25로 인하여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채 1951년과 1952년에 걸친 큰 가뭄으로 극도의 식량부족에 허덕이게 되자 정부는 다시 식량증산과 자급을 위한 제1차 농업증산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1953년에서 1957년까지가 계획기간인 이 계획은 기술지도에 의한 耕種法改善, 種子改良, 肥料増施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획은 1951년과 1952년의 大旱魃의 경험을 바탕으로 水利工事를 추가하여 추진되었으나 계획목표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1차 계획에 이어 1958년에서 1962년 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2차 계획도 역시 식량증산과 자급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이 계획은 처음 부터 水利事業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다음으로 肥料増施, 種子改良과 病蟲害防除 및 耕種方法改善을 추진하였다. 2차 계획은 1950년대 후반의 미국대풍작으로 일단 계획목표는 능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糧穀收納

일제시대의 양곡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혐오감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1945년 10월에 미군정당국은 糧穀自由市場을 추진하였으나 양곡의 소비인구증가와 1인당 양곡수요의 증가로인한 폭발적인 양곡수요증가는 곡가의 仰騰을 가져와 할수 없이 1946년 11월 부터는 米價統制정책을 실시하고, 시장의 米穀饑饉현상의 계속으로 1946년 1월 부터는 米穀收集令을 제정하게 되었다. 米穀收集令은 농가의 잉여양곡을 수집하여 비농가에 배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수집가격이 싯가를 하회하여 실패하였다. 1949년 7월에는 양곡의 자유시장을 다시 허용하고, 정부의 수집양곡은 軍糧, 公務員 및 細窮民에게 중점배급하도록 하였다.

1950년 6·25의 발발로 軍糧의 확보와 戰災民에 대한 配給食糧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나 1949년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현곡상환양곡의 수집도 부진하고 귀속농지상환양곡의 수납실적도 부진하여 이로써는 정부관리양곡의 수요에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정부는 1951년 9월 「臨時土地收得稅法」을 제정하여 토지수득세를 현곡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미국수집령, 농지개혁법에 의한 현곡상환제도, 토지수득세곡 모두가 농민들에게는 일제시대의 공

출제와 다를바 없이 느껴져 상당한 저항이 있어 양곡수납행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一般賣上, 糧肥交換, 貸與糧穀등을 통한 수집으로 官需糧穀의 관리를 하였으나 모두가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양정당국은 양곡수집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양곡의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2. 絶糧民對策

해방에서 6·25에 이르기 까지 難民과 戰災民은 급증한데다가 쌀의 생산이 평년작에 못미치는 減收현상 까지 겹쳐 絶糧民이 무수하였다. 50년대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컸지만 천재지변도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하여 이로 인한 식량생산감소로 극빈자가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나 재정도 빈약하고 체계적인 구호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서 사태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사회의 일부 계층만이 구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전 주민이 식생활의 위협을 받게된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구호는 우선 식량사정이 급박한 가구를 대상으로 양곡을 배급하거나 대여하는 것 등이 전부인데 이를 년도별 상황에 따라 살펴본다.

1) 大旱魃과 旱災民의 救護

1951년의 旱魃에 이어 1952년에는 60여년만의 大旱魃이 닥쳤다. 이로 인한 흉작은 8·15후의 혼란, 6·25사변등으로 저조했던 양곡의 생산사정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일반 시민의 생활 마저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당국은 旱災民을 구호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一般極貧者도 救護對象에 포함시켜 요구호대상자를 재사정하는 등의 정책전환을 하게 되었다. 즉, 1952년 이후 전재민과 피난민은 계속 감소되지만 旱害, 水害 및 風害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구호대상자들과 절량농민들이 구호의 대상으로 부각되게 된 것이다(1952년 9월초 경상북도의 경우 농가 40만여호 중 28만여호가 절량이 된 상태로 기록됨).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 중반기 이후 더욱 두드러져 이후의 구호대책은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는 이들의 구호를 감당할 수 없어 구호양곡의 획득을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호문제는 도당국이 직접 관장하였으며, 중앙정부로 부터 보다 많은 구호물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양곡절약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외식금지, 음식점의 혼식제 실시, 양조제한을 비롯하여 대구 시내에서 시행한 요식업 제한등의 조치등이 그것이다.

2) 外穀導入과 社還穀制度

1952년의 대한밭의 여파로 1953년에는 과거 어느 때 보다는 비참한 보릿고개를 당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때부터 대대적으로 外穀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1953년의 秋穀의 好況과 결부되어 米價暴落(1953년 7월에 쌀 1말은 1,170환이었으나 1953년 10월에는 992환, 12월에는 723환 그리고 춘궁기인 54년 4월에는 623환으로 약 9개월 동안에 절반정도가 됨)의 원인이 되고 절량농민을 구해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1954년 부터는 社還穀制度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던중 54년의 풍작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5월에는 다시 미가가 폭등하기 시작하여 9월에는 2배 가까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 10월 부터는 절량민의 구호문제가 다시 급박한 문제로 대두되어 당국이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10월에는 경북도내 22만명에 달하는 국민자가 구호양곡을 두달치나 배급받지 못하는 사태 까지 벌어지게 되었다.⁵⁾

3) 米穀豫買制와 備荒貯穀貸付

1955년에 다시 심각해진 절량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6년 봄부터 米穀豫買制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1956년 또 한차례의 흉작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되자 정부는 PL480-1호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 역시 避難民과 戰災民의 구호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地域의 原住貧民은 여전히 줄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다소의 여유는 갖게 되어 1957년 부터는 절량민의 구호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일 수 있게 되었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에서는 1957년 3월부터 절량농가에 대한 備荒貯穀貸付를 시작하고 貧民들에 대한 糧穀配給을 계속하였다. 1956년부터 대량도입된 미국잉여농산물 원소맥 1만여석을 절량민에게 특별배급하는등 1957년에 총 2만 6천여석의 양곡을 구호용으로 방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절량민의 구호는 다소 호전되고 여유가 있게 되자 1957년 봄 이근식 경북지사가 절량농가대책에 자신이 있음을 공언하는가 하면 도의회에서 양곡배급사무의 지방이양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4) 天災地變과 보릿고개

이러한 안정도 일시적이어서 1957년의 영호남지역의 집중적인 수해와 태풍피해, 1959년의 「사라」호 태풍피해는 다시 많은 災民을 발생시켜 이들의 구호는 또다시 당국을 긴장시켰고 춘궁기의 보릿고개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50년대 초반에 비하면 후반에는 비록 外穀에 의존

5) <영남일보>, 1955. 10. 7.

하였을 망정 비교적 안정적인 식량사정을 보여 1958년에는 救護의 質을 개선하는 노력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 태풍 「사라」의 피해가 극심했던 1959년에는 미국으로 부터 식량과 의복등의 원조물자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50년대의 양곡행정은 미국잉여농산물이 대대적으로 도입된 1956년 까지는 전국적인 식량 절대부족 상태하에서 계속된 흉작으로, 대규모로 등장한 피난민과 도시빈민 및 절량농가의 구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으나 1957년 이후는 대대적인 외국 도입에 따라 식량의 절대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하여 구호용 양곡을 확보한 상태에서 때때로 등장하는 한해, 수해, 풍해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그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나 재해의 예방이나 식량의 증산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절량민의 잠재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정이었다.

Ⅲ. 保健行政

1. 保健行政體制와 重點施策

1) 建國初期의 保健行政

해방당시에는 保健衛生에 관한 사무를 警察에서 관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반시민은 위생문제에 관한 官의 지도를 꺼리고, 경찰에서도 일반시민에게 위생사상을 보급시키기 보다는 위생관계업자들의 업무감시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청결운동, 1년에 한두차례의 예방주사실시정도로 위생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보건행정은 행정의 소외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미군정이 실시되자 보건후생사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1945년 9월 24일 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이 군정청 법령 제1호 「衛生局 設置에 관한 件」(Establishment of the Bureau of Public Health)를 공포하고 그에 의하여 衛生局을 설치하였으며 경찰국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동년 10월 27일에는 군정청 법령 제18호를 공포하여 위생국을 保健厚生局으로 개편하여 事變과 災害의 救濟, 貧困한 者의 公共扶助, 小兒의 厚生 기타 필요한 保護등에 관한 업무를 각 담당부서에서 인수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도에서는 군정청 법령 제25호(동년 11월 7일)에 의하여 보건후생부를 설치하고 도민건강과 후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보건업무담당 각과장은 전부 의사로 보하였으며, 과장이외에도 의사를 다수 배치하고, 각 府郡島에도 새로 보건과를 설치하고 과장에는 역시 의사를 배치하여 시민에게 위생사상을 보급하려 노력하였다. 1946년에는 각도의 기구개

혁을 위한 군정청법령 제114호(10월 23일)에 의하여 보건후생부가 보건후생국으로 개칭되고 의무과, 약무과, 예방의학 및 행정과, 위생시설과, 수의과 및 후생과의 6개과를 두어 보건후생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대구의 경우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1차 계획중의 하나로 1947년에 처음으로 1개의 保健所(당시는 도립 보건소)를 설치하고, 대구도립병원이 대구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이관되어 경찰산하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보건후생부는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과 더불어 보건행정기구개혁방안의 하나로 사회부로 개편되었으나 1950년 7월 사회국내의 한국으로 되어있던 보건국을 분리시켜 보건국으로 독립시키게 되었다. 이는 보건행정의 일원화를 통하여 보건위생행정을 진일보하게 한 조치이다.

보건행정의 중요 관심사는 당시 취약했던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의 전염병예방 및 위생시설의 점검·감독이 주였으나, 해방직후의 혼란기를 틈타 무면허 내지 무자격의약업자들이 난무하여 국민보건을 위협하게 되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한 각종의 사업도 아울러 실시하였다. 무면허의사 내지 의료행위자를 단속하고, 한지의에게는 강습회를 열고, 보건의배치를 증원하고, 의료유사행위자등록제를 실시하는등이 그것이다.

傳染病의 경우는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여 다루게 되었는데 急性傳染病의 경우는 消毒, 豫防注射등 각종의 應急措置가 취해졌으나 癩病, 結核과 같은 慢性病의 경우는 적절한 요양시설이나 치료시설이 충분치 못하여 만족스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또한 시민건강을 해치고 시민정서를 위협하는 보건문제가운데는 麻藥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의 사용통제, 단속, 환자치료 및 교화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마약의 취급은 대구시의 약품회사를 통하여 적량을 배급하고 사용을 통제하였으며, 마약사무담당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부정마약취급 및 생아편밀경작자를 단속하고, 마약중독자는 수용소를 설치하여 격리치료케 하였다.⁶⁾

2)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해방직후 대구의 醫療機關과 醫療人力事情은 無醫面이 대다수인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었지만 시민건강을 돌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1946년과 1947년 및 1950년에 조사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현황은 <表 3-1>과 같다.

6)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50, p.324-325.

3) 傳染病의 發生과 防疫活動

해방직후는 열악한 위생시설, 빈약한 위생관념등으로 각종전염병이 만연하였다. 그 중에서도 1946년 5월 중국방면에서 귀환한 이재민에 묻어온 콜레라의 발병은 해방후 가장 심각한 전염병발병사건으로 기록된다. 콜레라는 처음 부산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점차 경북도 까지 번져 1946년 12월 까지 경상북도에 7,518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4,366명이 사망하는 대 참사가 일어났다. 대구에는 46년 6월 5일에 첫환자가 발생하여 46년 12월 까지 2,978명이 발병하고 그중 1,718명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7월초에 있을 예정이던 중학 입학 시험이 8월 하순으로 연기되어 대구시내가 아닌 타지방에서 실시되었으며, 학교는 7월 14일 부터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신학년도의 개학도 9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지

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본부를 설치하고 대구 의과대학의 병원검사부를 확충하고 콜레라 발생지역을 오가는 여행자에게는 「檢便증명서」와 2회 이상의 콜레라예방주사 실시제증명서를 소지하도록 규제하였다. 1946년 6월 28일에는 콜레라 방역에 관한 미군정장관의 포고령이 내려 대구시를 위시한 경상북도내 13개 군과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군에 대하여 일반 교통을 금지하고 도방역본부장의 허가를 얻어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방역에 전력을 경주하여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 다만 사망자가 알려지면 트럭에 실어 대구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여 더 이상의 전염을 방지하는 것이 고작이었다.⁷⁾

콜레라의 발생과 전염이 갑자기 당한 일이라 그 대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는데다가 콜레라의 발생 뿐만 아니라 해방과 더불어 여러가지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각종 전염병발생율이 더욱 더 높아만 가서 당국은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각종의 조치

〈表 3-1〉 醫療人力 및 醫療機關 現況

구분\년도	1946	1947	1950
공의	3	3	
의사	92	113	85
한지의	3	3	3
치과의사	22	22	22
산과	14	28	6
간호부	22	57	67
약제사	?	12	24
의생	24	13	19
한의생			14
한의			6
병원 및 진료소	56	?	
치과진료소	20	?	
양약종상	?	21	26
한약종상	?	149	
제약업자			6
매약제조업자			22
매약부외품제조업자			1
매약청매업자			55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總監》, 1946. p.68,

《慶北年鑑》, 1947, pp.326-327,

《慶北年鑑》, 1950, p.325.

7) 〈영남일보〉, 1947. 5. 8.

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었다. 즉, 신속 정확한 세균학적 검사, 里洞단위의 방역반 조직, 예방주사의 실시 및 중요방역자재와 약품의 확보 및 배급등이 그것이다.

콜레라 이외에도 전염병은 성병, 나병, 세균성 이질,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천연두, 발진티프스, 재귀열, 성홍열, 디프테리아, 유행성이하선염, 마라리아등이 당시에 문제가 된 전염병들이었는데 성병의 경우 이전에 적절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사정이 급박하기는 하나 묘책이 없어 중앙청알선으로 성병치료약을 수배하여 중요병원과 각보건의회에 무료배급시켜 긴급조치에 나섰으며(1947년 9월 현재 대구시의 娼妓수는 130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해 1월에 조사된 40명에 비해 무려 4배가 넘는 숫자이다. 이들에 대한 성병문제도 심각하여 부인단체들의 私娼폐지운동과 더불어 병의 치료활동이 활발하였다), 나환자의 경우도 역시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시민건강에 위협요소가 되었음에도 콜레라환자 처치로 인하여 그 대책이 지연되다가 1947년 7월에 가서야 일부환자를 소록도로 이송 격리시키게 되었다(대구에서는

〈表 3-2〉 傳染病 發生狀況

전염병\발생연도	1947	1949
계	280	237
세균성이질	9	2
장티프스	32	81
파라티프스	2	
천연두	1	52
발진티프스	32	12
재귀열	20	2
성홍열	—	
디프테리아	37	31
유행성이하선염	7	
마라리아	—	
유행성뇌척수막염		1
하계뇌염		29
기타	140	
나병	736	118*

1947. 7. 1-1947. 9.19,

1949: 1949. 9월말 현재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7, p.324,

1950, pp.326-327.

* 대구 나환자수용소 수용환자수
(시청사 소실로 인하여 환자수
통계를 알 수 없음)

1947년 환자수는 736명에 수용된 환자수는 23명에 불과-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7, p.324). 그 외에도 전염병원균을 매개시키는 파리와 쥐잡기를 실시하고 우물물소독을 하였는데 파리와 쥐잡기의 경우 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기 까지 하였다. 파리1홉에 3원, 쥐 한마리에 1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전염병 발생상황은 〈表 3-2〉와 같은데, 부족한 당시의 의료기관 및 통계수집의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발생상황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癩病의 경우 그 심각성에 비추어 시급히 대책이 수립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다른 문제들에 밀려 지연되다가 보건부가 독립된 후 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 대구시에서도 국가의 시책에 맞추어 격리시설을 갖추어 浮浪患者는 초년도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未感兒는 특별 격리 양육하며, 在家患者도 점차수용한다는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 편 癩豫防協會를 조직하여 救癩事業을 전개하였다. 대구에서는 대명동 구 공동묘지에 수용소를 설치하는 한편 대표적인 미감아수용기관으로서 국립삼육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립삼육학원의 입원자총수는 5,069명에 달할 정도로 그 실적이 높았다(1949년. 당시 재원자는 800명). 미감아 양육기관인 애육원도 부속기관으로 운영하였는데 1949년 6월의 수용아동은 42명이다.

2. 6·25와 保健行政의 變化

1) 保健行政體制와 重點施策

6·25전쟁은 일반시민에게도 생활의 불안정과 생계의 위협을 가져다 주었지만 특히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수용시설이 부족한 탓에 갈곳이 없는 나환자들을 거리에 떠돌게 하였다. 이에 당국에서는 대량으로 부랑하게 된 나환자와 전후혼란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전란수습행정의 커다란 과제로 여겨 이에 대한 대책을 실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년 이후에는 전염병예방에 많은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1954년도에는 정부에서 전염병예방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전염병을 매개하는 쥐를 잡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1955년 이후의 50년대 후반부에도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56년 이후는 사회적 안정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재정상태도 나아져서 보건시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재정상태도 나아지고 외국원조의 힘도 상당부분 작용하여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DDT의 공중살포, 건물 및 우물소독 실시하는 한편, 길가는 행인에 대해서도 거리에서 강제로 신체에 소독약을 뿌리기도 할 만큼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에 나섰다. 행인에 대한 인체소독은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이를 잡기 위함이다.

2)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1950년대의 대구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은 해방직후에 비해 괄목한 성장을 보였다. 각종자료를 종합해보면 1947년에 119명으로 기록되던 의사의 수가 1960년에는 304명으로 늘어났으며, 병의원도 307개소나 된다. 그 중에서도 공중보건을 위하여 보건소가 4개로 늘어난 것은 행정당국의 시민보건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50년대의 의료인력과 의료기관현황을 <表 3-3> 및 <表 3-4>에 제시한다. 각종의 통계를 서로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결과 일관성없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당시의 공식문서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

醫療機關現況-50年代

〈表 3-3〉

년도\구분	총수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요양원	보건소	조산원*	의료유사업소
1957	507	6	256	101**	61	1	4	137	42
1958	552	6	258	84	48	1	4	73	78
1959	552	6	258	94	46	1	4	69	74
1960	610	6	301	102	49	1	4	74	73

자료: 경상북도, 《道稅一覽》, 1958, 대구시, 《통계연보》, 1961.

* 조산원수를 조산원개업수로 추정 간주

** 1957년도의 한의사수를 한의원개업으로 추정간주

醫療人力現況-50年代

〈表 3-4〉

년도\구분	총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간호원	의생	약사
1951		120*			24	112	16	
1953		185	43	37				
1954	394	211	50	42	37	54		56
1957	741	345	62	101	137	96		72
1958	565	230	48	84	73	130		78
1959	612	261	46	94	69	142		74
1960	674	304	49	102	74	145		73

자료: 1951;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52.

1953; 영남일보사, 《한국연감》, 1954.

1954; 대구시, 《市勢一覽》, 1954.

1957; 경상북도, 《道稅一覽》, 1958, 단, 약사통계는 대구일보사, 《경북종합연감》, 1958

1958이후; 대구시, 《통계연보》, 1961.

* 1951년의 의사수는 치과의사 포함

공공의료기관으로는 1954년 현재 1개의 도립보건소, 1개의 시립병원, 4개의 보건진료소 및 10개의 성병진료소가 있었는데 성병진료소는 공립 및 사립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⁸⁾

3) 傳染病의 發生과 豫防

戰後 비위생적 생활환경은 각종의 전염병 유행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상당수에 이르게 되었다. 50년대에 발생한 각종의 전염병과 이로 인한 사망자는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8) 대구시, 《市勢一覽》, 1954, pp.93-96.

〈表 3-5〉 傳染病의 發生과 死亡

연도\상황	총수		이질		장티프스		디프테리아		유행성뇌척수막염		유행성뇌염		천연두		발진티프스		2중전염병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53	93	27	2	1	6	2	9	2	76	22	-	-	.	.
1957	131	29	4	2	26	8	26	8	4	2	27	12	-	-	2	1	.	.
1958	317	92	4	-	27	3	27	3	4	1	191	76	1	1	1	-	.	.
1959	233	42	-	-	58	7	58	7	4	2	87	29	-	-	-	-	.	.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 미상, -: 없음

1953년까지 대구시의 별도 통계를 잡지는 못했지만 산발적으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952년 경북에서 각종 전염병으로 50여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 중 장티푸스가 239명 발병에 15명이 사망하고, 천연두가 147명 발병에 25명이 사망하는 등 예방과 치료의 미비로 전염병희생자가 많았다. 또 동년 9월에는 유행성 뇌염이 발생하여 9월 한달동안 전국에 331명이 발병하여 121명이 사망하였다. 53년 이후에는 〈表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3년에는 천연두, 57년과 58년에는 장티푸스와 디프테리아로 인한 희생이 컸으며, 1958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행성 뇌염은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하였다가 다시 9월 20일 까지 추가 방학을 할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대대적인 예방주사와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계절적 영향을 받는 뇌염의 예방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비토벌에 경주하던 경찰 까지 동원하여 방역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그 이외의 방역활동은 1953년에 4만 5천여명에게 종두를 실시하고, 1954년에는 종두 7만 6천여명, 장티푸스 16만 2백여명 발진티푸스 5천 9백여명에게 실시한 것과 건물소독, 인체소독, 우물물소독 및 쥐잡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 등이다.⁹⁾

4) 癩患者對策

콜레라 뇌염 같은 급성전염병도 문제지만 당시는 만성전염병인 나병이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필요로 하였다. 1952년 전국 나환자수는 5만여명이며 이중 1,300명만이 관, 사립의 요양원에 수용되고 나머지는 재가환자 아니면 거리의 浮浪환자로 떠돌게 되어 이들의 치료를 위하여서는 물론 전염을 막기위해서도 각급수용시설의 가동이 시급하게 되었다. 대구의 애락원(1954년 현재 1,059명 수용)과 삼육학원(1954년 현재 135명 수용), 칠곡의 애생원은 전국적 차원의 나환자수용소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50년대

9) 앞의 책, pp.91-92.

후반기에 까지 거리 부랑 나환자가 많아 도정당국은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자유집단부락을 형성하고 「경북癩이동진료반」을 설치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였는데 대구시도 물론 공동보조를 맞추었다.

5) 衛生事業

보건당국에서는 각종의 방역활동 외에도 공중위생을 위하여 유해음식점을 단속하였으며, 이들 업소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946년 2월 7일 부터는 음식점허가제를 실시하게 되었다.¹⁰⁾(1947년 당시의 대구시 접객업소수는 요리점이 9개소, 여인숙이 127개소, 음식점이 397개소였다. -《慶北年鑑》, 1947, 329.)

전염병은 식수를 통하여 전염되기도 하기 때문에 각종식수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하였는데 대구의 경우는 월 1회의 상수도 수질검사는 물론 46년의 콜레라 발생으로 인하여 139개의 우물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IV. 救護行政

해방 이후 1947년 5월말 현재 대구시의 구호대상자의 수는 7만 8천명이나 되어 총 인구의 26.1%를 차지하였고, 6·25전쟁으로 피난민이 가세한 1952년 9월 말에는 12만 4천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는 食糧不足에 住居마저 일정치 않은 難民들이 많았기에 수용보호를 요하는 인구가 많았는데 12만여명중 1만 4천 8백여명이 40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전쟁도 끝나고 사회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1957년에는 구호대상자가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7만 8천여명이 되었는데 이들을 구분하면 전재민이 684명, 원주빈민이 3,877명, 군경원호대상자가 74,377명으로 당시의 구호대상자는 주로 전쟁희생자들이다. 해방에서 부터 50년대의 사회복지는 이들 난민과 전재민 및 원주빈민의 구호와 전쟁고아의 구호가 행정의 초점이고 양곡의 배급과 월동주택의 마련이 고작이지만 배급할 양곡의 확보 조차 어려워 배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10) 영남일보사, 《慶北總監》, 1946, p.179.

1. 解放과 美軍政下의 救護行政

일제치하에서 막 벗어난 혼란상황에서 국내의 모든 산업부문은 거의 수면상태에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는 戰災民은 급증하여 해방직후는 失業者洪水時代라 할만치 失業者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재민도 절반은 구호대상으로 파악될 만큼 생활상태가 어려웠으나 그 대책은 미비하였다. 거기에 일제말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악성인플레이가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대중생활은 거의 파멸직전에 이르렀으나 당시에는 이에 대처할 적절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일시적인 수용소의 운영이나 민간에서 주도하는 각종의 사회단체를 통한 구

호사업들이 근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미군정이 시작되자 미국으로 부터 각종의 구호물품들이 들어와 일시적으로나마 전재민 이재민을 포함한 요구호대상자들의 구호에 도움이 되었다.

요구호대상자와 수용소실태 및 大邱府의 사회사업단체상황을 통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대처상황을 알아본다.

〈表 3-6〉 要救護對象者

구 분	세대수	인구수	비고
요 구 호 실 업 자	7,187	35,578	* 귀환동포의 절반
요구호 전재민수 (귀환 전재민수)	8,204	40,125	
공고구호대상자수	16,477	82,241	
계	707	2,515	

1947년 5월말 현재 (경상북도 보건후생국조사)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7, pp.337-338

〈表 3-7〉 大邱府營의 救護機關

단체명	설립	사업내용	현수용인원(1947)
이재민수용소(6개소)	1945	해외귀환전재민	3,500명
후생상점	1946	극빈자전재민상대의 식품점(배급) (1946.2.18~동년 6월까지)	2,568,000원
公益質屋		서민상대의 대부기관	월 60여명
구호여관(3)		대구 경유 전재민의 일시 수용소	
서부후생관		극빈자상대의 실비 이발소	

〈表 3-8〉 大邱府營 戰災民收容所 및 收容人員

수용소명	수용인원	호수	계	성인/남	여	소아/남	여
계		545	3,363	853	798	589	544
칠성동수용소		82	463	158	139	86	80
대봉동수용소		56	310	58	96	63	53
수창동수용소		222	1,024	288	264	241	231
동인동수용소		60	333	105	95	64	69
원대동수용소		42	261	88	73	45	53

수용소명 \ 수용인원	호수	계	성인(남)	성인(여)	소아(남)	소아(여)
역 전수용소	48	2,103	66	73	45	544
도수원수용소	35	182	50	58	45	80

1947년 9월말 현재

* 위 표에 조사된 수용자 외에 도원동에도 118호가 있음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47, p.345.

府營의 상기 기관들 외에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상당하였는데 慶北救濟會, 대성학원, 朝鮮救恤同盟南鮮分會, 歸還同胞共濟會, 慶北援護會, 歸還難民同盟, 基督教協會救護部, 慶北厚生會, 天主教百合保育院, 天主教診療所 및 大邱愛樂院등이 당시에 구호활동에 참여한 단체들이다.

한편 귀환 동포들의 경우 구호 食糧도 문제지만 住居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表 3-9〉 難民越冬住宅建設과 收容

계획과 실적 \ 수용인원	세대수	인구수
요수용인원(계획)	665	3,325
수용된인원(실적)	425	2,075

그리하여 경북후생회에서는 관의 도움을 받아 이재민을 위한 월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들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요수용대상자와 수용된 인원은 〈表 3-9〉와 같다.

2. 6·25와 50년대의 救護行政

해방과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혼란했던 상황의 수습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國家存亡을 다루는 6·25가 발발하여 50년대 초반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으로 닥치는 사태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대구는 전쟁의 포화가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후방의 최중심도시로서 일시적으로는 피난정부를 수용하는가 하면 각지에서 모여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모든 것이 전란 수습체제로 가동되기 시작하였고 전재민구호를 비롯한 각종의 구호행정이 치안질서의 유지와 더불어 행정의 초유의 과제였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난민이 대구로 몰려들고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傷痕軍警과 戰歿遺家族들이 발생하여 50년대는 해방이후 안정기를 채 맞지도 못한 채 또 다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따라서 50년대의 구호행정을 구호가 필요한 일반시민과 전쟁희생자 및 피난민을 구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傷痕軍警의 救護

사회복지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맞게된 6·25전쟁과 이로 인한 희생은 임기응변이나마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유가족 그리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의 가족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가족은 1951에 이미 전국적으로 그 수가 전국 300여만에 달하고 가족중 요구호대상자가 200여만에 달하였는데 당시의 정부

는 전쟁수행에만도 재정이 부족하여 예산으로는 10여만 밖에 구호하지 못하였으며 구호내용도 부실하였다.¹¹⁾

재정부족으로 원호가 불충분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상이군인들은 자구책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곳곳에서 물품을 강매 하는가 하면 구걸과 폭력적 방법에 의한 생계유지를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던 것이다. 대구에서는 1953년 원대동 정양원 폭력사건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도 50년대 전반에는 정부는 예산의 부족과 구호성금이 부족하여 별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숫자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실태파악과 물량적으로는 부족하나마 어느정도 구호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구는 1954년의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총 15,408세대 82,666명의 군경가족중 93.2%에 달하는 7만 7천여명이 원호대상자로 분류되고 그 중 69%가 구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3-10>.

軍警援護對象者數

〈表 3-10〉

구 분	인 원	계		원호대상자수		원호대상자수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군사원호		15,213	81,580	14,195	75,961	14,195	75,961
경찰원호		195	1,086	194	1,081	194	1,081
계		15,408	82,666(A)	14,389	77,042(B)	14,389	77,042(B)
요구호자비율:				B/A=93.2%		C/B=69.1%	

자료: 대구시, 《市勢一覽》, 1954, pp.106-107.

2) 戰災民과 難民의 救護

(1) 救護對象者 實態

아직 해방과 더불어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와 남북분단으로 북에서 넘어온 월남민들에 대한 대책 미흡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전쟁피해를 입은 이재민 까지 보태어 정부는 그야말로 要救護의 홍수속에 갈피를 잡지못하게 되었다. 상이군경과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한 구호도 미흡한 상태에서 전재민과 난민에 대한 구호 역시 충분할 리가 없다. 막대한 숫자의 요구호자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의 예산으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1952년 慶北年鑑의 자료에 의하면 1951년 8월말 현재 전국의 전재민은 피난민 380만여명 이재민 400만여명 합하여 780여만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경북에 73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당시 인구중 23%가 전재민인 셈이다. 전국적으

11)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52

로는 37.8%에 달한다(表 3-11).

〈表 3-11〉 6・25戰災民

구 분	전 국	경 북
인 구	20,689,493	3,169,103
전재민	3,807,226	370,034
피난민	7,825,413	731,936
이재민		
4,018,187		361,902
전재민/인구	37.8%	23%

1951. 8월말 현재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1980, p.25,27.

(2) 難民救護

6・25직후인 1950년도에는 정부보관양곡으로 남하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배급을 실시했으나 실제 무수한 피난민을 모두 구호할 수 없어서 전쟁의 피해를 직접입은 사람 가운데서 응급구호를 요하는 老幼者, 妊娠婦, 어린이가 딸린 婦女子를 우선구호대상으로 하였다.

1951년 1・4후퇴로 인하여 무고한 피난민이 대구에 몰려들게 되자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서 구호대상 피난민 중에서 1952년에는 겨우 1할 정도만이 수용되어 구호를 받을 수 있었다(表 3-12).

〈表 3-12〉 大邱地方 避難民과 收容者 現況

피난민수(A)	124,622	
구호자수(B)	65,746	A/B=22.6%
수용인원(C)	14,847	A/C=11.9%

휴전후인 1954년인가서는 피난민이 줄어들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구호는 여전히 불충분하여 거리에는 걸식아동, 부랑아 및 사창

1952. 9. 30. 현재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1953, pp.182-184.

등이 들끓고 있었다. 그 이상의 호구지책을 강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54년 대구의 피난민수는 112,408명이며 그중 요구호난민은 34,247명이었다. 각종 수용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4,328명이다.¹²⁾

전재민의 고통은 식량문제가 가장 긴급하기는 하나 주택문제 또한 이에 못지 않는 고통으로서 주택이 없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태가 빈발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50년 8월에 피난민임시수용조치법을 제정하여 개인민가에 피난민을 강권으로 입주토록하는 한편 피난민을 위한 주택건설을 시작하였다. 1951년 1.4후퇴후에는 겨울철에 남하하는 수많은 피난민을 위하여 임시수용소를 건설하고 각 도에 천막을 배부하기도 하였는데 재정의

12) 대구시, 《市勢一覽》, 1954, pp.101-104.

빈약으로 피난민의 주택문제해결은 지지부진한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한편 결식자를 위하여 우유죽급식소를 운영하고 각급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유배급도 실시하였다. 1954년에는 5월과 6월 2달 동안 12개소의 급식소에서 연인원 123,438명에게 급식을 실시하였다.¹³⁾

3) 戰爭孤兒保護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과 인명 그 어느 것도 비참하지 않은 것이 없었지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형편은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하였다. 부모가 구존하여도 기아와 영양실조를 면치 못하는데 부양할 가족조차 없는 아이들은 그 어느 상황 보다도 비참하여 눈으로 못볼 지경의 참상을 기록하는데, 영양실조상태인 어린 아이들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은 그것이 50년대 戰後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광경으로 알려질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다.

1950년말 경상북도의 전재고아는 4~5만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52년 말에 가서야 겨우 400여명이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의 경우는 전체 고아수에 대한 집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1954년 자료에 의하면 대구보육원등 37개 시설에 4,328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⁴⁾ 이들 시설은 모두가 사설 보호시설이며, 이들에게 필요한 생활비등은 외국의 원조단체에서 주로 공급하였고 당국에서는 이들을 위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거리에는 결식아동, 부랑아, 私娼등이 들끓고 도정당국은 이들의 구호를 위해 주민들의 동정을 호소하고 구호물자의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1956년도에 가서야 피난민의 수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국방비지출감소로 인한 재정사정완화와 더불어 미국의 잉여농산물 공급등으로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하였다.

4) 極貧者와 罹災民의 救護

50년대는 難民과 戰災民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다수가 보릿고개의 참상을 겪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연례행사 처럼 닥치는 풍수해는 식량사정을 악화시켜 그 때마다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되었다. 따라서 난민과 전재민, 극빈자 뿐만 아니라 때마다 발생하는 이재민 구호 역시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당시의 구호는 우선 식량사정이 급박한 가구를 대상으로 양곡을 배급하거나 대여하는 것 등이 전부였는데 결국은 糧政

13) 대구시, 《市勢一覽》, 1954, pp.105-106.

14) 위의 책, pp.102-103.

이 곧 救護行政이 된 셈이다.

(1) 罹災民 및 絕糧農民

전쟁이 종반에 접어든 1952년 이후 전재민과 피난민은 계속 감소되었지만 旱害, 水害 및 風害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재민들은 새로운 구호대상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계속되는 춘궁기의 절량농민 역시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50년대 중반기 이후 더욱 두드러져 그 이후에는 구호대책에 이들 모두를 포함시키게 되었다(1952년 9월초 경상북도의 경우 농가 40만여호 중 28만여호가 절량이 된 상태로 기록됨).

(2) 救護糧穀의 確保와 糧穀節約 運動

사태의 심각성은 끊이지 않으나 재정상태는 빈약하여 발생하는 빈민의 구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구호는 경상북도 당국이 직접관장하였는데 구호양곡의 획득을 위해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로 부터 보다 많은 구호물품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양곡절약운동을 펼쳤다. 공무원들의 외식금지, 음식점의 혼식제 실시, 양조제한을 비롯하여 대구시내에서 시행한 요식업 제한등의 조치등이 그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곡의 확보를 위해 외국도입을 시작하였는데 1952년의 가뭄으로 인한 흉작 이후 53년에 시작한 외국도입은 50년대 말 식량사정의 호전기 까지 계속되었다.

(3) 配給과 糧穀貸與

일부 요구호대상자들에게는 배급을 실시하였으나 양곡의 확보가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구호양곡의 배급이 지연되기도 하였고, 배급량 역시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거기에 다수의 절량민이 발생하자 정부는 각종의 양곡대여제도등의 양곡관리를 통하여 절량민 구호책을 펼쳤다. 1954년의 社還穀制度, 1956년의 米穀豫買制, 1957년의 備荒貯穀貸付등이 그것이다.

V. 建設行政

50년대의 건설사업은 대부분 전쟁의 피해를 입은 건물이나 도로 제방 교량의 복구에 집중되었는데 대구의 경우는 직접적인 戰場이 되지 않았던 까닭에 건설사업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다만 대구와 연결되는 각종의 국도건설과 改修공사들의 진척이 있었을 뿐이다. 중요한 것으로는 신천교 및 동촌과 대구간을 잇는 아양교개수와 대구-경주간과 대구-경산간의 도로포장이 이시기에 있었고, 시내 남부관통도로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획기적인 공사는 1954년에 시작된 가창수원지확장공사이다. 가창수원지 공사는 KCAC본부의 원조와 국고보조 및 시비로 이루어졌다.

주택의 경우 협소한 가옥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등 주거사정이 좋지 못했는데다가 이재민과 빈민들은 이나마 없어 주택난이 심각하자 疏開地에 土幕을 지어 풍우를 피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이재민용 월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1947년 8월 말 현재 要收容 세대 665세대 가운데 425세대가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비는 국구보조와 지방비로 충당하였다. 1950년대에는 재건주택건설을 계획하였는데 대구에 배당된 건설호수는 200호이다.¹⁵⁾ 재건주택은 1957년에 건설완료해서 난민들을 수용하였다.

第2節 60年代와 70年代의 市政施策

해방에서 50년대까지의 행정이 收拾과 復舊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60년대의 행정은 發展行政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祖國近代化」의 기치아래 추진된 각종의 시책들은 모두가 행정이 국민의 생활을 설계하고 유도하여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국가적으로는 1962년을 시작년도로하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常設計劃으로 자리잡았고, 대구를 道都로 하는 경상북도는 再建慶北(1961~1963), 躍進慶北(1963~1967), 富強慶北(1967~1971)등의 구호를 내건 연속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발전행정을 추진한 것이다.

대구는 60년대 후반 부터 내일의 都市像을 「生産하는 都市」, 「살기좋은 都市」, 「市民이 만드는 都市」로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에서 산업기반을 강화하며 도시기능의 충실을 기하고, 시와 시민의 협조하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투자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부응한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각종시책을 펴왔다.

한편 70년대는 상설계획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2차 단계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초기에는 60년대와 변함없이 발전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73년 유신발발과 더불어 총화유신을 바탕으로 각종시책의 재정비를 꾀하는 한편 1972년에는 새마을 운동의 都市的 실천을 그 목표로 하는 도시새마을 운동이 또하나의 행정방향설정의 기준이 되었다. 유신체제는 초기의 유신과업의 총화적 추진을 시작으로 후기의 유신총화의 생활화 및 총화유신의 정착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행정이 유신체제정착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15) 대구시, 《市勢一覽》, p.106.

새마을운동은 1971년 제1, 2차 경제개발계획이 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한 근대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에 근대화의 불길을 당기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1972년 부터는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에도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도시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갔다.

본절에서는 60~70년대 행정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된 발전행정의 전개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본 후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된 분야별 행정을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I. 發展行政과 새마을 運動

1. 再建・躍進・富強計劃

直轄市가 되기 이전의 大邱市는 慶尙北道の 道都이며, 慶北道政의 중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북도정의 방침이 곧 시정방침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경북도정의 중요 방침을 살펴봄으로써 대구시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60년대 경북도정의 중요 부분들을 시대별로 고찰한 후 대구시의 독자적인 시정방침은 항을 달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60년대 경북도정은 「再建慶北」, 「躍進慶北」, 「富強慶北」을 구호로 내건 각종 계획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각 계획의 기본방침, 대구시 관련부분 및 도시행정에 관련되는 중요 내용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再建慶北計劃

再建慶北計劃은 5·16 직후인 1961년 5월 24일에 취임한 박경원도지사가 재임하던 시기의 경상북도 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방침으로서 당시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國家再建」, 「祖國近代化」의 방침에 맞춘 지역개발계획이었다.朴지사의 시정방침은 ①革命課業의 促進, ②生活信條의 確立, ③産業의 振興, ④奉仕警察의 具現, ⑤救國教育의 振興으로 나타난다.

2) 躍進慶北計劃

躍進慶北計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맞추어 농업근대화를 주 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의 기반정비에 중점을 둔 1964년 부터 1967년 까지 4개년 계획이다. 약진경북 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計劃의 性格과 目標

① 計劃의 性格

제3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빈곤과 후진성의 극복, 생활의 근대화와 경제적 번영의 성취등이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정부의 의욕에 찬 부흥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계획의 명칭이 「약진경북계획」이다. 약진경북계획은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이를 통하여 도민소득을 향상시키고 조국근대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으며, 정부정책의 목표와 도·시군의 계획을 현실조건에 맞도록 조화시켜 구체적으로 일관성있게 발전시키려는 종합계획이다.

② 計劃의 目標

약진경북계획은 먼 장래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적 기반정비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당시 후진성과 빈곤이 심한 농업부문의 발전이 제일 시급한 것으로 보아 농업의 근대화를 주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기반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근대화, 수산업, 도시의 근대화 및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여 목표년도에는 농업생산액을 142%, 수산물 157%, 광산물 150%로 생산을 증대시키도록 목표를 정하고 도민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 중 도시부문에서는 대구시를 인구 120만을 계획인구로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정치, 문화, 사회의 각분에 있어서 종합적 대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③ 計劃推進의 基本方針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단결하며, 국가·도·시·군의 가용재원과 유형무형의 각종요소를 총동원하고,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농업근대화를 위해서는 경지정리, 주산지형성, 농민본부와 표준농장의 설치등을 추진하며, 선도부락의 시범사업실천을 통한 거점개발적효과를 유도하고 사방치수사업등의 산업기반정비와 도시계획과 문화환경의 정리등을 추진한다. 개발위원회는 도를 6개지구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대구의 경우는 별도의 지구로 설정되어 공업, 상업, 문화, 행정, 경공업 및 원예화훼를 개발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 都市近代化事業

도시근대화사업은 산업구조의 변천, 인구의 팽창등에 따라 도시의 사명과 형태가 급격하게 변모함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점토확장하고, 도시토목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등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위생과 각종산업의 진흥을 꾀하여 지역사회의 중심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대구시는 인구 120만을 계획인구로 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제2공업지대를 마련하며, 가로를 확장보수하는 외에 산격지구수원, 낙동강수원등을 개발하여 각종용수를 확보하고 근로자합숙소, 부녀복지회관, 체육관, 공예센타등을 설치하여 종합적 대도시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도시성격이 행정중심도시였던 것을 상공업도시로서의 성격도 구비하도록 도시재정비계획에 착수하여 1965년 2월 2일 건설부장관의 고시를 얻어 같은해 2월 10일 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계획부분 참조)

3) 富強慶北計劃

富強慶北計劃은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역적으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것으로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그 기본목표가 주어졌다. 1967년에서 1971년 까지의 5개년계획으로 농공병진,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計劃의 性格과 目標

① 計劃의 性格과 基本方針

부강경북계획은 앞서 실시한 약진경북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농공병진에 의한 소득증대를 통하여 살림살이를 보다 윤택하고 부유한 위치로 끌어 올림으로써 조국의 부강을 바로 경북에서 먼저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는 계획이다. 즉 정부의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역적 특수성에 조화시키고 지역 고유의 지역계획을 발전시켜 이를 견실하게 실천·구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계획목표의 효율적달성을 위하여 설정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1. 도민소득증대를 위한 蠶畜企業農의 育成, 天水畚 桑田化, 食糧作物 생산증대, 主産지조성, 중소기업 및 家内公업육성, 농업기술혁신등 사업의 중점추진
2. 소득증대와 병행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전천후 농업용수원개발, 경지정리사업, 산지 및 하천개발, 주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중점추진
3. 기간산업의 모체이며 본도공업의 기반인 포항지구 종합제철공장건설의 강력지원
4. 고용증대와 가족계획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투자에 중점을 둔 고용 증대, 특히 비농업 부문의 고용증가를 촉진하며 인구의 증가율을 저하시키기 위한 가족계획의 적극 추진
5. 공업지구 개발에 따른 외부경제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산업도로건설에 중점을 둔 지방도의 포장과 포장도로의 보수유지의 강화등의 교통시설 정비확장
6. 보호향상, 후생시설, 구호사업확장을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

7.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주택수요완화를 위하여 민간자체투자에 의한 건설유도

② 計劃의 目標

계획목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經濟成長과 産業構造 및 雇傭構造

계획기간중 도민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8.9%로 잡고 집약적인 자본투자를 꾀하고 건설한 자본배분으로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한다. 인구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근대적인 고용구조를 갖춘다.

2. 住民所得과 生活

도민소득향상은 지역격차와 缺狀價格의 차를 축소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제2차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수출증대와 기술혁신으로 생산을 증강시켜 목표년도인 1971년에는 도민총생산규모는 66.0%, 1인당 도민소득은 31,505원으로 41.6% 증가시킨다.

〈表 3-13〉

主要 計劃 指標

구 분	산 업 구 조		고 용 구 조
	1965	1971	1971
농림수산업	46%	42.7%	66.4%
광공업	18.2%	25.1%	10.2%
사회간접자본및 기타 서비스	35.8%	32.2%	23.4%
인구증가율	2.6%	1.6%	
도민소득총생산규모	66.0% 증가		
1인당 국민소득	31,505원		

3. 建設 및 地域開發

건설과 지역개발은 도로, 치수, 공업단지, 항만, 도시토목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구시가 구체적인 계획대상으로 잡힌 공업단지조성과 도시토목 분야의 계획목표만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의 제3지구, 비산지구, 검단지구등 총 530만평의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분산 공장조립이 억제되며 토지이용도에 부합한 공장건립을 계열화 하여 공장입지의 터전을 닦게 한다. 이 목표는 현 대구의 각 공업단지조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주택, 하수도건설, 보호시설의 확대개량 및 외곽지대와의 교통원활, 그리고 인구의 교외분산과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구획정리, 가로조성, 가로포장, 교량건설 및 불량지구개발등을 하며 특히 大大邱건설을 비롯하여 포항공업도시개발, 경주관광도시개발 등 주요 도시계획과 읍

이상의 지방도시에 계획기간중 26개 지구 총 5,016,106평의 토지를 구획정리하여 택지 3,688,296평, 공용단지 1,327,810평을 조성하여 가로포장8,226.6a, 교량가설 34개소 1,871m를 완공한다.

상수도는 대구의 20개군에서 37억원을 들여 급수 138,217M/T을 생산하여 급수보급율을 70%로 늘린다. 주택은 도시주택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내 약 3만호를 건설함으로써 주택부족율을 12%로 낮추며 기타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쾌적한 환경위생조성을 위하여 녹지대와 공원조성에도 주력한다.

사회복지, 교통운수, 교육문화부문에 각각 그 기반을 구축하여 시설을 확충한다.

③ 10대 重點施策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대 중점시책을 선정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蠶畜企業農 育成 및 天水畝 桑田化
2. 食糧作物 生産増大
3. 農水産物 主産地 造成 및 加工處理 強化
4. 輸出擴大, 中小企業, 家内工業, 農家 副業 育成
5. 産業技術의 革新
6. 全天候 農業用水 開發
7. 産地 및 河川開發
8. 耕地整理
9. 主要都市開發
10. 地域近代化

④ 投資計劃 및 財源調達

본 계획수행을 위한 투자총액은 1,590억원이며 제1차산업에 23%, 제2차산업에 64%, 제3차산업에 13%를 각각 배분한다. 재원조달은 국비 55.8%, 도시군비 11.6%, 민간부담 32.6%로 한다.

2. 施政方針의 變化

60~70년대의 대구시는 경상북도의 道都로서 경상북도의 도정방침에 따라 시정을 운영해왔기에 도정 전반의 상황은 「再建」, 「躍進」, 「富強」, 경북계획을 중심으로 제1항에서 살펴보았고,

본항에서는 대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한 시정의 방향을 시정방침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다.

1) 未來의 大邱像

(1) 1960年代

60년대의 대구시는 「내일의 都市像」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1967에 설정한 未來의 都市像과 重要事業計劃을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내일의 도시상은 대구를 “生産하는 都市”, “살기좋은 都市”, “市民이 만드는 都市”를 기본방침으로 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목표와 중점시책을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表 3-14>와 같다.

<表 3-14> 1967년의 「내일의 都市像」

基 本 目 的	
1. 內陸工業都市 開發	기간산업 유치, 중소기업 육성, 생산고용 증대를 통한 시민소득 증대
2. 都市 基本施設 整備擴充	도심의 정비, 외곽지 개발, 지역격차 시정을 통한 균형있는 도시발전
3. 社會 福祉 및 文化施設 擴充	공공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시민생활 향상
基 本 方 針	
1.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에서 : 산업기반강화, 도시 기능의 충실	
2. 풍요하고 쾌적한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 시와 시민의 협조, 효율성이 높은 사업 우선 투자	
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부응한 : 지원 유도	
重 要 事 業 計 劃	
1. 工業計劃	공업단지 조성(용지, 용수, 운수, 동력), 중소기업육성, 수출증대
2. 建設計劃	외곽지대개발, 가로정비, 상하수도 확장, 공원 및 유원지조성, 공공시설 정비
3. 社會計劃	주택건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청소사업, 보건위생
4. 農業計劃	특수농업단지조성, 주산단지조성, 농축산물가공공장 및 특수시설 설치

자료: 대구시 공보실, 시정화첩 “大邱市”, 1967-1969.

(2) 1970年代

60년대에 설정한 방향은 70년대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되나 다만 주요사업계획은 변경되었다. 1971년 까지는 변동이 없었고 1972년에는 다가오는 80년대를 겨냥하여 「80년대의 도시상」을 설정하고 이전과 같은 기본목표와 방침 아래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① 都市基盤事業整備: 토지이용의 합리화, 교통체계의 정비, 근린생활권 조성, 신시가지 개발, 특정지구 재개발, 동 자조개발

② 市民生活의 向上: 주택건설, 상수도 확장, 하수도 정비, 청소강화, 공원 녹지 조성, 보건위생향상, 공해 및 재해대책, 사회복지

③ 産業振興: 공업단지조성, 시장현대화, 근교농업, 고속도로주변 개발, 관광개발¹⁶⁾

도시기반사업 정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된 반면 농업계획은 사라졌다. 이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도시내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토지이용, 교통등의 문제가 새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공해 및 재해대책이 주요사업계획으로 등장한 것도 변화중의 하나이다.

2) 施政方針의 變化

시정방침은 7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시정방침은 1970년 대개발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방문행정의 추진, 새 공무원도의 확립으로 시작하나 유신말기인 1979년에는 발전시정의 구현을 구호로 유신총화의 정착화, 새마을운동의 지속발전, 도시개발의 기반정립, 문화복지의 향상, 봉사체질의 획기적개선등으로 유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들의 변화를 <表 3-15>에 요약한다.

<表 3-15> 시정방침의 변화(70년대)

연도	시 정 구 호	시 정 방 침	중 점 시 책
1970	몽치자 백만 가꾸자 새 대구	대개발추진 생활환경의 정비 방문행정의 추진 새 공무원도의 확립	
1971	-상 동-	-상 동-	
1972	협동하자, 생산하자 힘을기르자 -가정에 웃음을 -거리에 활기를 -사회에 질서를	-상 동-	1. 지역경제의 배양 * 대구산업의 체질개선 * 유통구조의 개선 * 근교농업의 육성 2. 계속사업의 우선종결 * 숙원사업의 추진 * 외곽지 개발 * 미진사업의 매듭 3. 재정운영의 건전화 * 금융자금 기채의 우선 * 예산운영의 효율화 * 경영재정의 강화 4. 시민복지향상과 영세민자활지원 * 생활주변 환경개선 * 영세민 자활책 강화 * 상수도 급수해택의 확대 * 복지시설의 개선확충

16) 대구시, 《市政現況》, 1972. p.6.

연도	시정구호	시정방침	중점시책
			5. 새로운 사회기풍의 진작 * 실수없는 행정 * 새로운 시민상의 구현 * 민방위태세 강화
1973	새롭게 가꾸고 알차게 건설하자 (가정에 기쁨을 거리에 녹음을 사회에 복지를)	강력한 총화체제 확립 명랑한 푸른도시 조성 활기찬 생산도시 건설 과감한 부조리 제거 사랑받는 시정상 구현	1. 유신과업의 총화적 추진 * 총화 체제의 강화 * 유신적 시민상의 구현 * 도시새마을 사업의 촉진 * 사회적 공해 제거 2. 도시시설의 확충 * 도시시설의 질적향상 * 공간녹화사업의 계속 추진 * 외곽지의 합리적개발 * 생활주변 환경의 정비 3. 시민복지의 향상 * 상수도 혜택의 확대 * 저소득 시민대책의 강화 * 주택사업의 확대 * 건전한 시민생활의 보호 4. 지역생산의 촉진 * 공업생산력의 보강 * 수출지원시책의 강화 * 유통기능의 건전화 * 근로농가소득의 증대 5. 능률의 극대화 * 행정능률의 향상 * 재정경영의 효율화 * 사업능률의 제고
1974	120만의 총화 번영하는 우리대구	-상동-	1. 균형있는 지역개발 * 도시기본시설 정비확충 * 균형적인 외곽지 개발 * 도시계획사업 정비보강 * 치산녹화사업 계속 추진 * 치수사업 확대 2. 지역경제력의 배양 * 생산여건 조성 * 유통구조 개선 * 수출진흥의 촉진 * 식량증산

第3章 市政施策

연도	시정구호	시정방침	중점시책
			3.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 * 주택건설사업 촉진 * 무허가 건물정비 * 상수도 급수혜택 증대 * 보건사업 확충 * 청소사업 확대 4. 문화복지사업의 증진 * 영세시민 생활안정 * 복지후생시설 효율적 지원 * 체육문화시설 확충 * 재해 및 안전대책 강화 5. 유신행정의 구현 * 총화적유신의 기반구축 * 새마을사업 확대 추진 * 행정의 현대화, 능률화 * 봉사체제 혁신
1975	창의로 개발 총화로 전진	시민 총화체제의 강화 조화있는 도시건설 산업기반의 재정비 복지문화시책의 확대 성실한 봉사행정	1. 새마을 사업의 확대추진 2.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대책 강화 3.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기반 확충 4. 시민숙원사업의 중점개발 5. 봉사행정의 구현
1976	질서있는 도시 슬기로운 시민	-상동-	1. 유신통화체제의 영속화 2. 도시기반의 균형적 개발 3. 지역생산 여건의 확충 4. 생활환경과 복지의 향상 5. 신뢰받는 시정상 구현
1977	-시정지표- 밝고 푸르고 활기찬 도시 -시정구호- 밝은 거리 성실한 시민 협동하는 대우	총화유신의 생활화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 경제력의 배양 문화복지의 향상 창조적 봉사행정	1. 향도적 새마을 총화행정 2. 도시편익의 생활행정 3. 내실위주의 개발행정
1978	-상동-	-상동-	-기본방향- 1. 앞서는 총화유신 2. 편리한 생활환경 3. 착실한 도시개발
1979	-상동-	발전시정의 구현	1. 도심 가로망의 중점소통

연도	시정구호	시정방침	중점시책
		유신총화의 정착화 새마을운동의 지속발전 도시개발의 기반정립 문화복지의 향상 봉사체질의 획기적개선	2. 도시새마을운동의 활력화 3. 소비절약운동의 대전개 4. 시민위주봉사태세의 확립 5. 주민생활환경의 정돈 6. 대중교통난의 완화 7. 불량지구재개발의 촉진 8. 서민주택의 보급확장 9. 시장유통구조의 개선 10. 도시계획의 재정비
1980	밝은 새시대 복지대구 건설	-발전시정의 구현- 도시기반의 확충 시민생활의 보호 지역문화의 계발 봉사체질의 개선	1. 대민봉사의 쇄신 2. 도시환경의 향상 3. 시민생활의 안정 4. 지역산업의 발전 5. 향토문화의 개발

자료: 대구시, 《시정현황》, 1970~1979

1970년대 市長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시정의 중점시책이 점 차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과 지역경 제의 확충 및 교통문제로 옮겨가고
金壽鶴(1969.10.25~1972. 6.29)	李圭貳(1972. 6.30~1974. 7.17)	
金武然(1974. 7.18~1976.10.21)	鄭採鎭(1976.10.22~1979. 1.14)	
朴昌圭(1979. 1.15~1980. 7.8)	藏炳九(1980. 8. 1~1981. 6.30)	

있으며, 유신체제의 구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참고로 이시기에 재임한 대구 시장과 임기는 <表 3-16>과 같다.

3. 새마을 運動

70년대는 정부로서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마무리 짓고 제3차 및 제4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온 시기이며 낙후된 농어촌근대화에 轉機를 마련하여 조국근대화의 기반을 확립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대구를 중심으로하는 경상북도는 ‘변영하는 푸른 경북’(金德燁知事), ‘힘찬 前進 알찬 慶北’(具滋春知事), ‘維新으로 總和前進, ‘새마을로 所得增大’(金壽鶴知事), ‘總和前進 榮光慶北’(金武然知事)등을 구호로 내걸고 지속적인 근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1971년 부터는 범국민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여 도정계획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추진체제, 농촌새마을운동, 및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나누어 그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새마을운동의 展開過程과 推進體制

(1) 새마을운동의 展開過程

새마을운동은 60년대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이 상대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심화된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농촌에서 부터 시작되었으나 1972년 부터는 도시에 까지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시발은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한 박정희대통령의 ‘농민, 관계기관지도요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농촌자조노력의 진작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동년 5월 6일의 ‘국토보존에 관한 지시’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강조함에 서부터 이다.

초기의 새마을운동은 각 里洞에 양회를 정부가 지원하여 농한기 유희노동력을 이용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을 생활환경정비를 위한 숙원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1970년 10월 부터 1971년 5월 까지 농한기에 실시된 이 시험사업은 물량면에서의 성과 뿐 아니라 농민들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터득케하여 새마을운동의 이념적 기초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73년 까지 새마을기반조성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1974년 부터 1976년 까지는 농업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새마을정신과 운동을 도시지역에 까지 확대시켜 민간주도의 도시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켰다. 1977년 부터는 소득기반의 완비와 농외소득원의 확대에 주력하여 소득증대에 전력하는 자립완성과 자율성장의 단계로 점진적 발전을 추구해 왔다.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을 요약하면 <表 3-17>과 같다.

<表 3-17> 새마을운동의 展開過程

연 도	시책방향	역점사업	비 고
1971	· 里洞 개발위원회를 주축으로 새마을운동 전개	· 10대 가꾸기 사업*	里洞당 양회 355袋씩 지원
1972	· 새마을운동의 지속화 · 새마을운동의 생활화	· 새마을가꾸기 사업 · 지붕개량사업 · 마을금고육성 · 농로개설사업	· 새마을운동의 소득화
1973	· 새마을운동의 종합체계화 범도민소득화, 생산소득화 · 마을의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 마을로 구분 체계화	· 기초마을(2,928): 새마을가꾸기 기본사업 · 자조마을(2,2461): 농로, 지붕개량, 녹화, 노임사업(하천, 국토가꾸기)	기초마을에 양회 500袋 철근 1t씩 지원 도시군에 새마을지도과 설치(1973.2.1.)

* 10대 가꾸기사업은 마을 진입로 확장, 공동우물 · 공동빨래터설치, 소하천정비, 하수구정비, 마을산록화, 堆肥場設置, 小溜池.管井 補修등이다.

년 도	시 책 방 향	역 점 사 업	비 고
		· 자립마을(360): 생산기반시설사업, 전화 사업, 소득구심사업	
1974	· 새마을운동의 자율적 확대발전 · 마을단위에서 지역단위 의 광역협동단사업으로 발전	· 새마을교육 · 지역협동단사업 · 소득표준 새마을육성 · 도시새마을운동의 전개	
1975	· 총화참여를 통한 경제난국 의 극복 · 민간주도 도시새마을운동 추진(민간단체 새마을운동 협의회 구성)	· 생산소득기반사업확대 · 소득기술교육강화 · 협동단사업확대추진 · 도시새마을운동의가열화	· 새마을담당 부군수제 신설(1975.1.1.)
1976	·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참여 를 위해 낙후마을의 중점육 성과 郡·市새마을운동의 本格화	· 부진마을의 집중개발 · 협동단사업확대 · 도시새마을운동의本格화 · 저축운동전개	· 매월 25일을 반상회의 날로 설정
1977	· 새마을자립기반의 완성	· 주곡 단위생산성 증대 · 농의소득원 개발 · 반상회운영강화 · 직장새마을운동의 강화	자연보호운동시작 (1977.10)
1978	· 새마을운동의 소득화 · 선진농촌을 향한 자율성장 기반구축	· 생산소득 기반확충 · 농의소득원개발 · 농촌주택개량사업 · 3대질서운동 전개 (정신, 행동, 환경) · 공장·직장새마을운동	· 농촌주택개량과(도)와 계(시·군)설치(78.3.27.) · 자연보호헌장선포 (78.10.5.)
1979	· 새마을도민상의 확립 · 미래지향적 농촌건설 · 새마을발전수준의 재정립 (자연마을 신설 운용)	· 생산소득기반확충 · 주거환경개선 · 3대질서운동의 추진 · 새마을금고 구심력강화 · 10대 求心事業(都市)	

(2) 새마을운동의 推進體制

새마을운동은 일반행정체제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계획발전체제(새마을운동 추진협조체제)와 사업운영체제(새마을운동 행정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였다. 추진협조체제는 중앙에 중앙협의회를 두고 시도와 시군에는 각각 협의회를 두었으며, 읍면에는 읍면추진위원회를 두고, 마을별로는 里洞개발위원회를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2) 農村새마을事業

(1) 農村새마을事業의 展開

농촌새마을사업은 농촌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가꾸기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농촌환경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새마을정신함양과 실천의 목적도 아울러 담은 전략적 기본사업으로서 농촌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한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지역역량과 자영능력을 배양함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데 지원사업과 자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사업은 기본자재와 부자재대를 지원하고 구심사업을 예시하되 되도록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주민자력으로 추진토록 했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의 내용은 마을진입로 넓히기, 공동우물과 빨래터 넓히기, 마을 앞 소하천 보수와 정비, 하수구정비, 마을산 녹화, 소류지준설, 퇴비장시설, 관정보수 관리등의 10대 가꾸기사업이 주가 되었다. 이러한 가꾸기 사업은 1973년 까지 새마을운동의 구심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기초조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3년에 마을의 단계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등급화하여 마을의 능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승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동기부여효과도 아울러 기대하였다. 마을 승급을 위한 필수 기준사업은 <表 3-18>과 같다.

<表 3-18> 마을 昇級을 위한 基準事業

事業別	基 礎	自 助	自 立
안길	간선안길	지선안길	-
농로	마을진입농로	경작농로	
소하천	마을안세천	마을간細, 小川	마을밖 小, 中川
농업용수	수리율 70%	수리율 70%	수리율 85%
농업기계	-	동력방제기	동력경운기, 동력탈곡기
협동영농	협동작업반	협동생산사업	협동생산사업
마을기금	마을당 30만원	마을당 50만원	마을당 100만원
호당소득	50만원	80만원	140만원

자료: 내무부, <새마을운동 10년사>, p.215.

기초마을은 기반조성사업을, 자조마을은 농로개설사업, 지붕개량, 나무심기와 하천가꾸기, 국토가꾸기 등의 노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자립마을은 생산기반사업과 소득구심사업 등을 추진토록하여 모든 마을이 자립마을을 향하여 하나씩 사업의 단위를 높여가도록 동기부여를 하였다.

1974년 부터 1976년 까지는 새마을운동의 자조발전단계로서 생산기반사업과 복지소득사업을 강력히 추진한 단계였다. 1977년 부터 1980년 까지는 소득기반의 완비와 농외소득원 확대에 주력하여 새마을운동을 자립완성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圈 사업에서 마을 간 협동사업으로 사업의 영역과 방식을 확대하고 보건위생사업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2) 農村새마을事業의 內容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새마을사업의 시작이자 중추였으나 새마을운동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사업의 내용도 보다 구체화되고 범위도 확대되어 종합적인 발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生産所得基盤造成事業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이나 특히 생산소득기반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생산기반시설(마을 금고, 공동작업장, 공동축사, 공동퇴비장, 공동잡설, 양식장, 건조장, 공동저장시설, 공동가공시설, 물량장), 농경지확장 및 개량, 농업용수시설, 농로, 소교량, 안길확장, 소하천정비등이다.

② 文化福祉環境事業

기본적인 가꾸기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문화생활을 위한 사업도 벌였는데 이 분야에 속하는 사업은 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공동목욕탕, 이발소, 공동변소, 어린이놀이터, 공동구판장의 설치등),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하수구, 간이급수시설, 메탄가스시설등이다. 여러가지 위생시설과 편의시설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회관의 건립은 각종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민활동의 센타로서 주민의 조직화와 결속에 기여했으며 구판장의 설치는 5일장을 통해 생필품의 구입을 하던 종래의 농촌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구판장의 수익금을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주민전체의 이익으로 재투자하는 2중의 효과를 거둔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③ 住宅改良事業

60년대 이후의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주민의 의생활과 식생활이 현저히 향상되고 생활의식도 향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해서도 개량의 욕구가 발생하였다. 당시 농촌의 전통적인 주택형태였던 草家を 개량하는 것이 초기의 주택개량사업이었으며 지방개발에서 출발하여 점차 주택구조개량과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주택개량사업의 추진초기에는 주민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하여 당국의 보조에 의한 사업추진이 많았으나 어느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주민부담에 의한 사업추진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의 경우 1976년 부터 1980년 까지 대상가옥 1,138동 가운데 정부지원에 의한 개량이 611, 자력에

의한 것이 346으로 계 957가옥이 이 사업에 의해 개량되었다.¹⁷⁾

④ 農路開設

농로는 마을과 경작지, 이웃마을, 지방도, 국도를 연결하는 노폭 5m이상의 농촌도로이며, 농로의 개설은 농업기계화의 지름길로서 새마을사업의 초기부터 중요사업으로 선정되어 강력히 추진되었다. 농로사업은 농로신설, 농로확장, 노면정비, 구조물설치 및 가로수식재등을 포함하였는데 농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농로는 단순히 농로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농촌의 간선도로기능 까지 하게 되어 버스가 마을 까지 운행하게 되고 새마을공장의 유치에도 한몫을 하게 되었다. 농로사업과정에는 교량설치도 포함되었고, 이 사업은 새마을 협동단사업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⑤ 새마을協同團事業

새마을운동의 초기에는 하나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작은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부락단위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단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몇개의 마을이 힘을 합하여 추진해야할 규모가 좀더 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들 사업을 협동단사업이라 한다.

협동단사업의 선정은 동질적인 생활권역내에서 주민들의 개발의욕을 높일 수 있고, 우수마을 지원원칙에 부합되고 사업의 시행결과가 권역내 다른 협동단사업으로의 확산효과가 크며, 유휴자원과 잠재실업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화할 수 있고 부락간 기술협동이 가능한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등에 따랐다.

새마을협동단사업의 추진방침은 협동권역단위로 새마을협동단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마을가꾸기사업으로 공동추진하며, 협동권개발사업의 진도에 따라 시군에서 지원된 사업자금은 읍면동장과 권역내 새마을지도자전원의 공동명의로 새마을금고나 농협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사업비의 50%내외를 주민이 공동부담할 것 등이다.

⑥ 國土, 小都邑 鑛産村 가꾸기

국토가꾸기사업은 새마을가꾸기사업의 연장으로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자 이에 자극받아 국토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연변의 산지, 하천등을 가꾸는 사업이며,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취락구조개선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산지가꾸기는 절개지정비, 土地整備, 浦落地整備, 裸地綠化, 特殊砂防

17) 경상북도, 《농촌주택개량사업실적》, 1981, pp.4-7.

등이고, 하천가꾸기는 제방축조, 하상정비등이며, 도로가꾸기는 노면손질, 側溝정비, 구조물 설치, 가로수식재등이다.

소도읍가꾸기는 1972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1974년 면소재지급 도시에 도시계획수립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소도읍가꾸기는 도로포장, 하수구정비, 간판정비, 녹화사업 등 기초환경정비가 주된 사업이었고, 1978년 부터는 도시계획에 맞도록 미래지향의 도읍기반 시설의 정비(도로확장 및 포장, 상수도시설, 택지조성, 상가지정비, 시장정비, 주택정비등)를 실시하였다. 소도읍가꾸기는 농촌중심의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게된 소도읍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광산촌가꾸기 역시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새마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광산촌의 기간시설, 주택정비, 보건위생시설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3) 都市새마을 運動과 工場새마을 運動

(1) 都市새마을 運動

새마을운동의 시발은 산업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에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을 형성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의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었으나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는 도시의 주민수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각종의 도시문제를 야기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위하여 도시에서도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농촌과는 달리 사회윤리, 기업윤리, 국가관, 사회질서등의 확립과 복지후생향상, 근검절약, 隣保相助 등이다.

도시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한 것들은 농촌새마을사업에서 실시한 환경개선사업등과 달리 효과가 단시일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可視的인 것들이 아니어서 참여를 위한 동기유인이 약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도시새마을운동이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한 운동과 직장새마을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基礎段階(1972~1974)

도시새마을운동은 1972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72년과 73년에는 시험사업으로 가로, 하수구 및 주택환경개선등의 생활환경정비와 청소, 공한지녹화 휴지통설치 등 도시정화운동과 저축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은 본격적인 추진단계로서 주민공동사업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제고, 생활주변의 손쉬운 일 부터 단계적으로 점화, 통반장과 주부의 새마을요원화등을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직장, 지역, 가정, 학교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직장새마을운동은 자율적 질서화운동, 직장환경정비, 사회봉사활동, 생산직장운동, 이웃넉

히기, 이웃돕기운동등이 계획되었으며, 지역새마을운동으로는 새마을지원금고조성, 새마을성금과 성품의 수집, 환경·시설정비, 푸른도시가꾸기등이, 가정새마을운동으로는 근검운동과 새생활운동등이 계획되었고, 학교새마을운동으로서는 학생협동운동, 향토봉사활동이 계획되었다.

② 自助段階(1975~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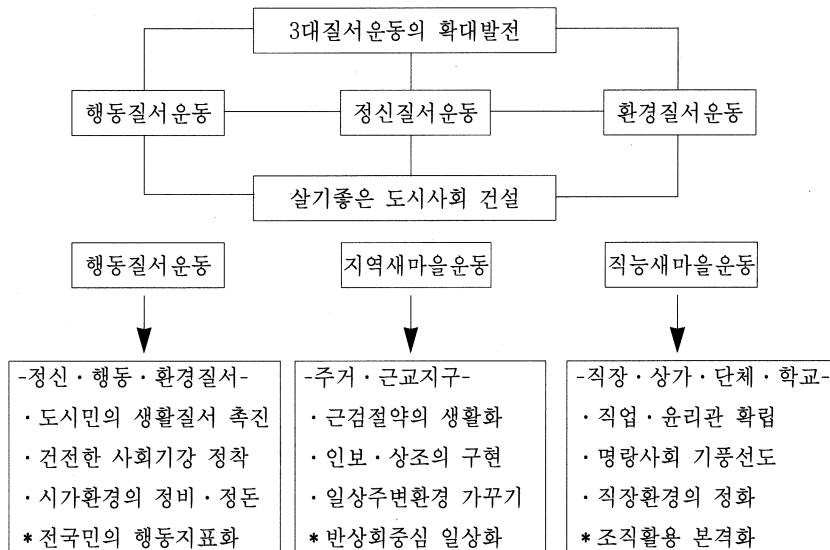
기초단계가 끝난 1975년 부터 1977년 까지를 도시새마을운동의 자조단계로 설정하고 새마을을 교육으로 새마을 정신을 고취하여 새로운 가치관 확립, 도시환경미화 및 도시정비 확대, 도시새마을 열기확산, 근검절약의 생활화, 隣保運動의 확대, 공중도덕에 기초한 시민상의 정립등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질서있는 도시사회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년도별로는 1975년은 「도시새마을운동 약진의 해」로서 직장에서는 자조하는 생산운동, 지역에서는 협동하는 인보운동, 가정에서는 절약하는 근검운동, 학교에서는 참여하는 향토교육의 슬로건을 정하였으며, 1976년은 도시새마을운동의 기본목표를 도의와 질서에 두었다. 즉, 정신면에서 도의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관념의 정립, 행동면에서의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는 생활자세의 확립, 환경면에서의 안전과 능률 및 쾌적한 도시공간질서의 조성을 정신, 행동, 환경의 「3대질서운동」을 도시에서 전개한 것이다. 1977년은 「도시새마을운동 심화의 해」로서 새마음갖기 운동, 정의와 도의에 입각한 건전한 사회기강의 확립, 청소의 일상화, 범시민적 참여기풍조성등을 기본추진방향으로 하였다.

③ 自立段階(1978~1980)

자립단계에서는 새마을이념에 입각한 시민상확립을 목표로 자발적인 참여의식 배양을 위하여 지역단위, 아파트단지, 직능단체 및 기타 집단을 통한 자율적인 참여기풍조성에 힘썼다. 도시지역단위 및 아파트단지의 반사회를 단위로 한 지역의 공동개발사업 전개, 직능단체별 거리질서, 상거래질서, 공중도덕등의 생활도의운동을 통한 사회정화 및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자연보호운동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1978년은 「3대질서운동 정립의 해」, 1979년은 「도시새마을운동의 심화 발전의 해」로 각각 정하였으며 이의 추진을 위하여 9개 행동강령 및 27개 실천덕목을 설정하였다. 3대질서운동의 기본구조는 〈圖 3-1〉과 같다.



〈圖 3-1〉

3대질서운동의 확대발전방안

자료: 내무부, 1978.

대구시에서는 이를 다시 질서의 생활화라는 방침아래 다음과 같은 실천요목을 개발하여 실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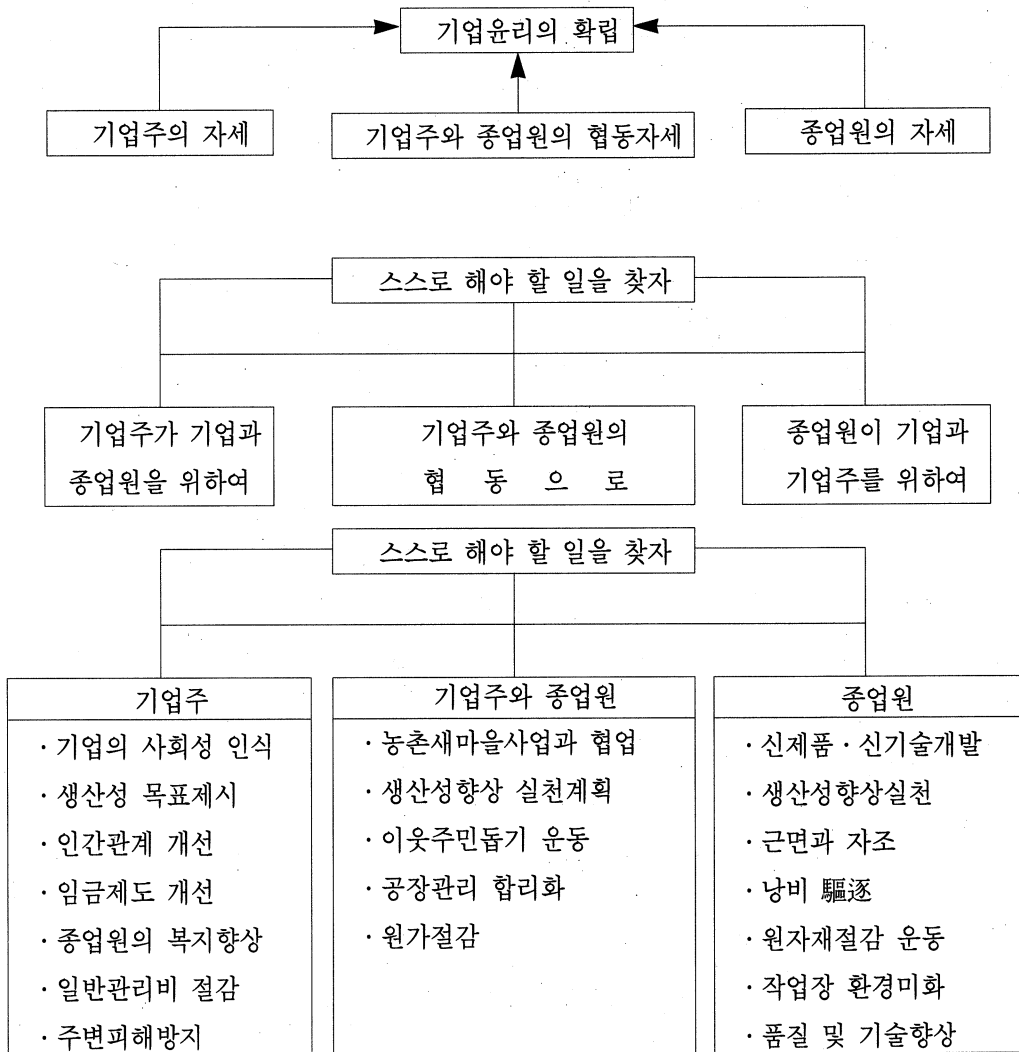
질서의 생활화

1. 정신질서 — 시민정신의 꾸준한 계발 — 나라와 고장 사랑하기
웃어른을 공경하고 청소년 선도하기
2. 행동질서 — 행동규범의 지속적 계도 — 거리 질서 바로잡기
상거래 질서 바로잡기
3. 행동질서 — 생활환경의 의욕적 개선 — 생활환경 정비 정돈하기
푸른 주변 가꾸고 보호하기

(2) 工場새마을運動

공장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의 특수한 영역중의 하나로 70년대 석유파동과 더불어 닥친 경제적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공장의 종업원들을 재무장시켜 물자와 에너지절약, 신제품·신기술개발, 품질향상, 기술향상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주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재인식케 하여 일반관리비절감과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게 하여 종업원과 기업주가 상호협력하여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하자는 것이다. 공장새마을운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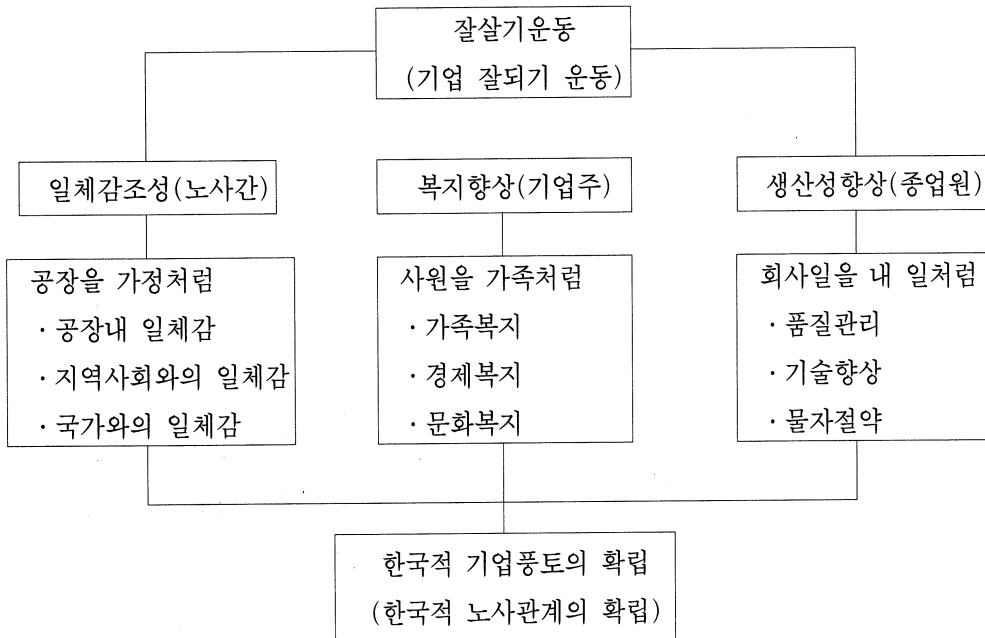
기본구상은 <圖 3-2>와 같으며 주된 추진내용은 정신계발, 노사협조, 생산성향상 및 복지후생향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圖 3-3>.



<圖 3-2>

工場 새마을운동의 基本構想

자료: 상공부, <공장새마을운동기본구상>, 1974.



〈圖 3-3〉

工場새마을운동의 推進方向

자료: 상공부, 〈공장새마을운동 기본구상〉, 1974

① 精神啓發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사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직무자세를 정비해 나가는 근면한 직장풍토의 조성, 創意 具現을 위한 새마을 분임활동 전개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 기업발전의 과정에서 스스로의 발전의 길을 찾아나가는 자조활동의 전개, 인화단결 추구를 통하여 總和體制구축, 팀 워크 강화를 통한 생산성향상과 협동생산정신의 습득을 목표로 하여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의 새마을농군학교에서 11,583명을 교육하는등 많은 교육이 이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② 勞使協助

새마을의 기본정신인 협동정신을 통하여 노사협조증진을 꾀했는데 이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종업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이 기업경영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며,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여 임금제도의 개선과 근로자복지향상에 힘쓰도록하는 것 등이 이부문의 중점목표이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공동운명체라는 공동의식으로 '내 공장, 우리의 공동생활의 터전'이라는 정신으로 서로가 협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고, 기업가는 근로자의 처우를 잘할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

게 하자는 것이다.

③ 生産性向上

생산성향상운동은 근로자들이 보다 열심히 일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과실이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복지시설로 되돌아가도록 하며, 분임조활동 및 제안제도의 활성화로 기술개발 및 작업개선을 추진하여 자재 및 에너지절약과 품질개선등에 기여케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福祉厚生向上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기업주가 복기후생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향상을 꾀한 것으로 산재보험료, 퇴직금 및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 등의 법정비용을 초과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자체의료시설, 통근버스, 공동구판사업, 중식비부담, 장학금제도, 근로청소년취학제도로서의 산업체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운영등을 실시하도록 한것 등이 이에 속한다.

(3) 새마을 金庫

마을금고사업은 재건국민운동의 일환으로 60년대 부터 추진된 것이나 새마을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 새마을운동으로 흡수되었다. 마을금고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의 저축심을 길러 저축증대를 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립자활정신을 배양하자는 운동이다. 새마을금고사업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추진하였으며 사업실적도 초기에는 전국의 50%이상을 달성할 정도로 그 성과가 좋았다. 새마을금고의 기금은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자금으로 이용하거나, 이자증식으로 저축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다. 주민의 저축심을 높이기 위하여 「1가구 1통장 운동」을 전개한 것은 추진과정의 중요한 소득의 하나이다.

(4) 自然保護運動

자연보호운동은 환경보전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야 하나 시작초기인 70년대에는 많은 시책들이 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자연보호운동 역시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다루어졌기에 본항에서 그 개요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시책들은 환경행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자연보호운동은 1977년 10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의무요 사명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제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錦繡江山을 자랑하던 우리의 국토가 6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날로 피폐해지자 이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정부의 자연보호운동기본계획에 따

라 정부기구인 자연보호위원회와 민간기구인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직장·단체·학교별로 자연보호회가 조직되어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동년 10월 5일의 전국적인 쫄기대회와 1978년 10월 5일의 자연보호헌장 선포는 이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① 自然淨化運動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시민생활행태의 변화와 상실된 시민의식등이 많은 자연을 훼손함은 물론 자연을 오염시키자 이의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자연정화운동이다. 자연정화는 지역, 직장, 학교등의 자연보호회별로 책임보호담당구역을 확정하여 비닐, 폐지, 공병,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수거활동과 안버리기운동을 도시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추진하는 한편 관광지, 등산로, 가로변등의 쓰레기통과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등의 오물처리시설설치, 화장실, 휴게소, 취사구역, 야영장, 우물, 의자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정비 및 각종 안내와 자연보호제도용 안내판을 비롯한 안내시설 등의 설치와 정비를 통하여 시행하였다.

② 自然保存活動

자연보존활동은 자연경관이나 자원을 특별히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야생동물 또는 휘귀식물의 서식지등을 조사 선정해서 보호대상구역으로 지정관리케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휘귀조수류 및 식물에 대한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마을 한가지 보호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시군별로 시군화와 시군목을 지정해서 증식과 더불은 보호관리도 실시하였다.

③ 自然保護의 教育·弘報 및 啓導·團束

자연보호는 그 행동의 방향설정과 실시가 강제적인 것 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이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정신을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의 각수준에서 교육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훼손방지 및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활동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연보호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각급학교의 자연보호교육에 활용하고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 자연보호회장, 새마을지도자, 직장단체임직원등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강연회, 전시회, 웅변대회등의 개최, 영화를 비롯한 각종의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마스크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한 대비로 자연보호신고소의 설치운영, 합동단속반, 기동순찰반의 편성운영, 각종감시요원의 증원, 명예감시관의 위촉 등 지도단속체제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Ⅱ. 保健行政

50년대의 보건행정은 각종의 전염병의 발생을 계기로 시민의 위생관념을 고취시키고 방역소독에 힘을 쏟기는 했지만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 요소가 없지 않았는데 비하여 60년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생활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닦기 시작한 시기이다.

대구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무의면해소를 위하여 보건소와 공의진료소를 증설하여 진료의 기회를 늘이는 한편, 만성전염병의 퇴치를 위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음성나환자 정착사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항구적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된 것이다.

1. 醫療機關 및 醫療人力

1) 保健所의 增設과 市立病院

1947년에 도립 대구보건소가 처음 개설된 이래 1962년 까지 5개의 보건소를 운영하였다. 1962년 9월 24일 법률 제1160호로 새로운 보건소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과거의 시·도립 보건소를 구·시·군별로 설치하게 한 것이다. 1963년 1월 1일 대구시에 區制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대구시도 구별로 1개씩의 보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보건소에는 일반진료실과 더불어 X선실, 검사실, 결핵관리실, 모자보건실(1969년 신설), 가족계획실, 치과실 및 약제실등이 설치되어 기초적인 검진 및 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가족계획사업이 시작된 1961년 이후에는 그 업무가 한층 바빠졌다.

보건소에는 일반직공무원 외에 의사, 약사감시원, X선기사, 객담검사원, 세균검사원, 위생감시원, 의약감시원, 가족계획지도원, 결핵관리요원, 성병관리간호원, 임상병리사 및, 치과 의사가 배치되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947년 도립보건소 개설 당시에는 의사1명에 일반직원 2명으로 출발하였으나 1969년 말 현재에는 일반직원만도 최대(중구)24명, 최소(북구)12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총 75명이 근무하고 있다(表 3-19). 보건소별로 직종별 정원이 다른 것은 지리상의 특성 때문에 필요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表 3-19〉

保健所職員現況

구분\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계
일반직원	24(23)	14	13	12	12(11)	75(73)
의사	1	1	1	1	1	5
약사감시원	· (1)	1	· (1)	1	1	3(5)

구분\ 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계
X선기사	1	1	1	1	2	6
객담검사원	1	1	1	1	1	5
세균검사원	1(2)	1	1	1	1	5(6)
위생감시원	2	1	1	1	(1)	5(6)
의약감시원	(1)	.	.	1	.	1(2)
가족계획지도요원	7(8)	7(9)	7(8)	5(8)	5(7)	31(40)
결핵관리요원	1	1	1	1	1	5
성병관리간호원	1	.	.	2	.	3
임상병리사	.	.	.	1	1(2)	1(2)
간호원	.	.	.	1(2)	1(2)	1(2)
정자수	1	1	1	1	1	5
운전원	1	1	1	1	1	5
치과의사	.	(1)	.	.	.	(1)

1969년말 현재

()안의 숫자는 현원과 정원이 다른 경우의 정원

〈表 3-20〉 市立病院과 保健所の 診療實績

연별\기관	시립병원	중구보건소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1963	—	—	—	—	—	—
1964	21,485	4,963	5,462	7,125	8,503	6,834
1965	40,996	35,886	34,622	22,650	30,857	25,462
1966	26,582	32,212	31,386	22,625	31,043	25,953
1967	28,098	32,585	31,085	36,368	28,746	23,431
1969	13,259	5,224	32,662	9,331	14,328	7,693
1970	10,770	5,280	37,383	9,008	8,893	3,836
1971	14,268	757	32,274	19,698	37,901	4,569
1972	22,119	6,293	27,445	22,865	13,399	7,820
1973	26,788	8,102	28,789	7,595	8,955	7,016
1974	11,082	9,731	16,802	3,728	7,086	7,470
1975	18,133	7,906	23,475	4,998	8,382	11,504
1976	19,046	4,012	8,291	26,512	14,122	6,817
1977	1,690	1,348	14,805	2,613	2,521	17,659
1978	2,010	1,520	18,204	3,019	2,845	504
1979	6,750	40,563	171,203	160,614	210,374	191,414

1963 이전 자료 미상

자료: 보건과

대구의 시립병원은 1914년 시내의 전염병환자를 수용·치료하기 위해 남산동에 「부립 전염 병격리병사」를 설립한 것이 모체가 된다. 이 病舍는 1922년 서구 내당동에 대지 7,695m², 건평 1,332m²(약 500평)규모의 병동을 건립하여 이전하고 「부립 회생병원」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대구 부립병원」으로 개칭하였으며, 다시 1949 「대구 시립병원」으로 개칭하였다. 6·25전쟁중에는 「수도 경찰병원」에 병사를 임시로 대여해 주었고 1954년에는 공군의 원조로 북구 칠성동 409번지에 병실을 증설하였다. 한편 1956년에는 중구 동인동 295번지에 일시 유료병원을 증설한 바 있으나 1961년 이를 폐지하였다.

1962년 서구 중리동 690번지에 대지 9,900m², 연건평 1,798m²(약 540평)의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립병원은 일반병동, 격리병동, 결핵병동, 사체실등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환자와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1950년대에 비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력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 1979년 현재 의료기관의 총계는 부설 의무실을 포함하여 699개소나 되며 의료인력 역시 약사를 제외하고도 675명이나 된다. 의료기관중에서는 현대적인 병원의 개설과 더불어 그간 모자보건에 큰 기여를 해왔던 조산원의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가족계획사업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발족한 모자보건센터의 설치 또한 이 시기의 특기할 만한 의료기관의 성장이다. 의사 1인에 대한 인구수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는 지속적인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증가추세가 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증가하는 인구수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表 3-21〉

醫療機關의 分布

구분 연도	총수	소 계	병 의 원			치과 의원	한 의원	의 무 실				요 양 원			조산원 개업	보 건 소	모자 센터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계	학교 부설	부설사 무기관	산업근로 기관부설	계	결핵	나병			
1961		424	3		316	50	108									5	-
1962	539	331	2	4	325	54	104	6	-	-	6	1	-	1	38	5	-
1963	535	333	2	4	324	55	100	6	-	-	6	1	-	1	37	5	-
1964	523	319	2	4	313	61	105	-	-	-	-	1	-	1	32	5	-
1965	517	309	2	7	300	62	105	5	-	1	4	-	-	-	31	5	-
1966	592	357	2	8	347	74	119	6	-	1	4	-	-	-	31	5	-
1967	571	343	2	8	333	68	120	7	-	2	5	1	-	1	27	5	-

구분 연도	총수	소 계	병 의 원			치과 의원	한 의원	의 무 실				요 양 원			조산원 개업	보 건 소	모자 보건 센터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계	학교 부설	부설사 무기관	산업근로 기관부설	계	결핵	나병			
1968	566	335	2	10	323	71	124	7	3	-	4	2	1	1	22	5	-
1969	573	336	2	12	322	75	129	3	-	1	2	2	1	1	23	5	1
1970	556	325	2	13	310	77	117	6	-	1	5	2	1	1	23	5	1
1971	561	331	2	15	314	75	119	8	-	1	7	2	-	2	20	5	1
1972	578	344	2	18	324	77	117	7	-	1	6	2	-	2	25	5	1
1973	580	342	2	9	331	83	113	9	1	-	8	2	-	2	25	5	1
1974	564	346	3	6	337	85	101	8	1	2	5	-	-	-	18	5	1
1975	575	351	4	5	342	91	101	10	-	2	8	1	-	1	15	5	1
1976	620	368	3	8	357	95	100	29	16	2	12	-	-	-	22	5	1
1977	603	367	4	7	356	102	101	6	-	1	5	-	-	-	21	5	1
1978	629	386	3	9	374	107	103	9	-	1	9	-	-	-	18	5	1
1979	699	459	3	9	447	111	99	8	8	-	-	-	-	-	15	5	2
1980	723	463	4	9	450	121	106	10				-	-	-	17	6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表 3-22〉 醫療人力의 推移

구분 연도	총수	개 설 신 고 자*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1968	540	323	71	124	22	587
1969	565	337	75	130	23	604
1970	542	325	77	117	23	592
1971	545	331	75	119	20	795
1972	558	339	77	117	25	634
1973	557	336	83	113	25	856
1974	556	351	85	102	17	901
1975	562	354	91	100	17	504
1976	581	363	95	101	22	1,015
1977	595	365	102	101	27	1,038
1978	626	496	109	103	18	1,032
1979	675	447	111	102	15	1,023
1980	694	450	121	106	17	1,017

* 개설신고자중 의사는 개업의를 말함, ** 약사 총계중 1975년 이전은 각연도 《통계연보》, 1976년 이후는 1982년 《통계연보》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醫師 1人에 대한 人口數

〈表 3-23〉

연 도	1959	1964	1967	1968	1969	1970	1971
의사 1인에 대한 인구수	1,613	1,233	1,018	1,204	1,207	1,306 (1,186)	1,320 (1,186)

()안은 동년도 시정보고 자료에 나타난 숫자임
자료: 대구시사, 1973, 제3권, p.554에서 발췌

2. 傳染病의 發生과 防疫活動

전염병의 예방은 보건행정의 중요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중반까지는 각종전염병이 빈발하였다. 그 중 장티프스는 1963년에 433명 발병에 15명 사망으로 방역행정에 비상을 걸었고, 디프테리아 역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였다. 제2종 전염병으로 규정된 홍역도 상당수 발병하였는데 홍역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1967년 이래 그 수가 점차 감소하나 이후는 간헐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유행성 뇌염은 1964년 48명의 사망환자를 낸 이래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의 위생관념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지는 한편 당국에서 꾸준히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유행성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히 예방접종을 하는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였기 때문이다. 1963년 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종두와 BCG, D.P.T., 및 소아마비의 예방접종은 천연두 및 결핵, 백일해, 홍역 등의 발생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일생에 한번씩은 누구나 걸린다고 믿기 조차 하였던 홍역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보건사업중 특기할 만한 것이다.

第1鍾 傳染病發生 및 死亡者

〈表 3-24〉

구분 연도	총 수		이 질		장티프스		파라티브스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61	-	-	-	-	187	14	1	-	44	3	-	-
1962	310	18	3	-	245	16	1	-	59	2	2	-
1963	484	25	8	2	433	15	2	-	37	7	4	1
1964	301	25	4	-	255	16	-	-	40	9	2	-
1965	169	10	1	-	120	6	-	-	44	4	4	-
1966	73	7	-	-	13	-	-	-	57	7	3	-
1967	50	1	-	-	5	-	-	-	43	1	2	-
1968	38	-	1	-	16	-	1	-	16	-	4	-
1969	16	-	-	-	9	-	-	-	7	-	-	-
1970	54	-	-	-	45	-	-	-	9	-	-	-

第2節 60年代와 70年代의 市政施策

구분 연도	총 수		이 질		장티프스		파라티브스		디프테리아		유행성 뇌척수막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71	72	1	-	-	50	1	-	-	22	-	-	-
1972	34	-	-	-	18	-	-	-	16	-	-	-
1973	34	-	-	-	11	-	-	-	23	-	-	-
1974	21	2	-	-	15	1	-	-	6	1	-	-
1975	34	1	-	1	11	-	-	-	22	-	1	-
1976	51	4	1	1	27	-	-	-	22	2	1	1
1977	12	-	-	-	-	-	2	-	9	-	1	-
1978	20	-	12	-	7	-	-	-	-	-	1	-
1979	18	-	9	-	6	-	-	-	3	-	-	-
1980	47	-	36	-	9	-	2	-	-	-	-	-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表 3-25〉 第2種 傳染病 發生狀況

구분 연도	총 수		백 일 해		급성전각회 백골염		홍 역		유행성 이하신염		마리리아		인후렌자염		유행성뇌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62	1,079	8	205	-	96	-	429	-	116	-	5	-	210	-	18	8
1963	399	-	273	-	17	-	57	-	43	-	6	-	3	-	-	-
1964	651	48	37	-	44	-	377	-	51	-	3	-	5	-	134	48
1965	533	6	54	-	10	-	145	-	63	-	-	-	241	-	15	6
1966	464	4	174	-	8	-	235	-	32	-	3	-	-	-	12	4
1967	81	5	14	-	4	-	7	-	32	-	3	-	1	-	20	5
1968	200	1	4	-	19	-	117	-	48	-	5	-	-	-	7	1
1969	255	-	111	-	-	-	94	-	47	-	1	-	-	-	2	-
1970	128	1	29	-	7	-	48	-	42	-	-	-	-	-	1	1
1971	210	-	43	-	1	-	94	-	7	-	-	-	-	-	-	-
1972	82	-	17	-	-	-	26	-	39	-	-	-	-	-	-	-
1973	153	-	34	-	6	-	50	-	42	-	-	-	6	-	15	-
1974	190	1	95	-	2	-	23	-	70	-	-	-	-	-	-	-
1975	114	1	47	-	5	1	2	-	56	-	-	-	4	-	-	-
1976	128	1	13	-	-	-	59	-	56	1	-	-	-	-	-	-
1977	143	3	58	-	-	-	42	-	89	-	-	-	-	-	5	1
1978	162	1	28	-	-	-	25	-	89	-	-	-	-	-	5	1
1979	250	-	58	-	1	-	94	-	97	-	-	-	-	-	-	-
1980	458	-	109	-	-	-	317	-	32	-	-	-	-	-	-	-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豫防 接種 一覽表

〈表 3-26〉

구분	연도	종두	장파라 티프스	발진 티프스	콜레라	B.C.G	소아마비	D.P.T	디프 테리아	인후렌자
	1961	62,834	799,026	-	17,000	-	-	-	-	-
	1962	73,745	298,172	13,944	-	-	-	53,294	-	-
	1963	73,513	617,127	-	742,334	39,479	42,233	4,211	-	-
	1964	52,675	307,434	-	140,522	14,537	-	898	-	-
	1965	61,514	279,192	-	-	22,277	68,549	25,215	-	-
	1966	67,167	507,771	-	-	22,641	21,130	13,003	-	-
	1967	71,853	494,060	1,246	-	56,531	149,876	41,148	-	-
	1968	62,486	30,050	-	-	83,785	26,417	10,848	13,255	-
	1969	78,607	145,208	-	394,646	85,698	28,619	11,697	5,580	-
	1970	83,938	247,624	-	1,679,625	90,890	20,584	16,734	-	-
	1971	85,505	364,397	-	1,134,444	83,937	31,160	35,160	25,201	-
	1972	88,312	461,976	-	701,958	69,577	30,265	30,265	26,097	-
	1973	115,351	466,752	-	730,969	84,524	38,914	52,738	54,897	12,087
	1974	92,432	386,511	-	563,590	87,352	40,122	37,169	56,089	5,600
	1975	93,295	363,511	-	446,835	84,106	33,806	71,102	66,495	-
	1976	90,095	513,267	-	318,042	126,683	33,601	82,679	69,709	-
	1977	62,958	546,417	-	382,671	63,565	45,870	96,951	62,174	-
	1978	57,819	428,071	-	296,865	44,225	62,984	127,977	36,085	-
	1979	-	388,986	-	197,619	59,201	97,739	68,482	37,456	-
	1980	-	342,173	-	545,903	62,082	69,008	70,377	-	-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表 3-27〉 結核患者推移와 豫防接種實績

구분	전년말 환자수	현재 환자수	B.C.G 접종자수
연도			
1963	-	-	79,479
1964	-	-	14,537
1965	2,845	2,116	22,277
1966	2,116	1,938	11,130
1967	1,938	3,020	56,709
1968	3,020	3,705	56,531
1969	3,705	4,043	83,785
1970	4,034	3,660	85,698
1971	3,660	3,839	90,890
1972	3,839	3,607	83,937
1973	3,607	4,370	84,524
1974	4,370	4,826	87,352
1975	4,826	4,549	84,106
1976	4,549	4,231	126,683
1977	4,231	6,201	63,565
1978	5,251	5,221	44,225
1979	5,221	3,965	59,201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3. 慢性疾病의 管理

1) 結核管理

결핵은 매우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재정이 궁핍하여 60년대 이전에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61년 처음으로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매년 연말에는 결핵관리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왔으나 환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예방접종실적과 환자 수추이는 〈表 3-27〉과 같다.

〈表 3-28〉 癲患者와 麻藥中毒者 動態

구분 연도	나 환 자			마약중독자		
	계	양성	음성	계	남	여
1961	-	-	-	133	109	24
1962	-	-	-	125	81	44
1963	-	-	-	40	20	20
1964	-	-	-	40	25	25
1965	717	500	217	133	108	25
1966	718	501	217	80	59	21
1967	599	413	186	58	37	21
1968	124	100	24	27	20	7
1969	47	36	11	15	13	2
1970	39	11	20	9	8	1
1971	23	31	8	13	7	6
1972	17	6	11	30	16	14
1973	16	4	12	7	5	2
1974	14	4	10	8	5	3
1975	14	5	9	18	17	1
1976	2	-	2	31	14	17
1977	57	9	48	31	14	17
1978	149	28	121	-	-	-
1979	178	33	145	10	4	6
1980	193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 癲病 및 麻藥中毒

1950년대에는 나병환자의 거리부랑이 사회문제화 할 만큼 심각하였으나 나환자관리 특별대책이 실시된 이후 나환자요양시설의 운영, 음성나환자정착촌의 건립 및 미감아수 용양육을 늘이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1960년대 후반 부터는 그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마약중독의 경우는 40~50년대 혼란한 사회상황을 틈타 아편의 밀경등이 이루어졌으나 60년대 이후는 그러한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아편으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줄어들었으나 대마초등 과거에는 사용하지 않던 신종 마약이 등장하여 60년대 초기에 비하여 중독자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 국민건강의 위협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3) 性病檢診

생활수준의 향상과 위생관념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성병에 감염되는 환자수는 꾸준히 발생하여接客업소와 위락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하는 한편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77년 11월 1일 부터는 의료보호의 차원에서 성병에 감염된자는 누구든지 전국의 보건소 또는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진자의 변화를 〈表 3-29〉에 제시한다.

〈表 3-29〉 性病檢診現況

연도	수검자	검진결과		성별감염별			
		건강	보균자	매독	임질	연성하감	미상
1961	6,639	5,129	1,150	-	655	-	-
1962	4,105	3,248	857	96	1,887	43	63
1963	8,103	5,836	2,267	130	1,620	106	144

연도	수검자	검진결과		성별감염별			
		건강	보균자	매독	임질	연성하감	미상
1964	8,297	6,474	1,823	28	1,620	53	122
1965	7,781	6,149	1,632	10	1,471	56	95
1966	5,088	3,792	1,296	13	1,144	-	139
1967	5,095	3,611	1,484	-	1,483	1	-
1968	4,966	3,815	1,151	21	815	3	312
1969	4,948	2,863	2,085	64	603	-	1,418
1970	3,917	2,209	1,708	73	513	1	1,121
1971	3,651	2,080	1,571	26	498	-	1,047
1972	7,516	5,451	2,065	103	1,035	23	904
1973	49,061	45,140	3,921	161	3,737	10	13
1974	46,931	43,978	2,953	181	1,912	-	860
1975	36,592	30,343	2,401	104	1,878	-	419
1976	42,319	39,185	3,134	119	2,203	-	812
1977	58,721	55,097	3,624	44	2,316	-	16
1978	75,768	55,901	6,380	1,203	3,073	26	-
1979	43,223	38,455	4,768	1,022	3,692	-	54

자료: 보건과

4. 家族計劃

50년대의 飢餓에 허덕인 쓰라린 경험이 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을 한편으로는 인구증가억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60년대 초반 해도 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족계획은 좁은 국토에 식량도 부족하고, 개발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나온 자구책의 하나이나 초기에는 전통적인 다자녀관과 인식부족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쳐 그 시행이 몹시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 가족계획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등이 결실을 보아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1.6%씩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1962년에 보건사업의 하나로 가족계획사업을 착수하였는데 초기의 저항적이던 태도가 높은 양육비와 생활비,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회구등으로 변화되어 참여율을 높이게 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무료진료 및 시술, 영세민 유배우자에 대한 콘돔 무상지급, 영구불임시술시의 무료시술과 생활비지급등의 유인책도 큰몫을 하였다. 1964년에는 보건소에서 시술한 불임시술자수가 2,840명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는 10배가 넘는 9,144명이 되었다. 1980년 말 현재 일시적인 피임과 영구적인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은 모두 29,090명이다.

가족계획을사업은 ①순회교육, 가정방문, 시청각교육, 상담등의 계몽활동, ②약품 또는 기구를 무료배부하여 수태를 조절케 하는것, ③피임시술등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表 3-30> 및 <表 3-31>에 가족계획 사업 활동과 피임시술현황을 제시한다.

<表 3-30> 家族計劃事業 活動 現況

연도	구분	계몽활동총수		약품 및 기구 배정 인원		
		회수	참석인원	정제	제리	콘돔
1963		-	-	22,181	1,063	11,756
1964		1,430	83,565	35,971	3,933	77,592
1965		3,162	163,461	5,380	2,838	31,558
1966		4,406	102,613	1,593	2,383	36,494
1967		4,982	96,493	2,121	1,485	47,725
1968		6,130	85,851	332	236	43,746
1969		5,793	60,967	-	-	46,860
1970		6,213	59,583	-	-	53,485
1971		11,837	114,272	-	-	44,376
1972		13,236	95,858	-	-	5,512
1973		12,839	121,521	-	-	103,641
1974		12,652	83,1221	-	-	69,652
1975		885	39,829	-	-	80,865
1976		1,071	29,755	-	-	74,361
1977		8,596	77,923	-	-	40,394
1978		94,392	172,810	-	-	76,606
1979		9,027	43,410	-	-	40,815

자료: 보건과

계몽활동 - 78년 이전은 좌담회, 78년부터 가정방문으로 변경되었으며 강연회, 가정방문, 시청각교육이 포함됨

<表 3-31> 家族計劃 施術 狀況

연도	불임시술	루프시술	연도	불임시술	루프시술
1964	865	1,975	1973	999	13,974
1965	626	6,203	1974	14,618	1,668
1966	690	10,715	1975	1,678	14,580
1967	622	9,014	976	2,100	13,700
1968	564	6,850	1977	4,213	14,500
1969	511	6,240	1978	8,403	13,402
1970	404	6,206	1979	8,400	8,000
1971	450	6,660	1980	8,620	10,000
1972	483	7,290			

자료: 보건과

5. 市立保健施設

보건소와 시립병원외에도 시립보건시설로 시립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립화장장은 1925년 대명동(현 경북공고 서편 약 150m지점)에 일본식 신사형 건물인 화장장을 설치하여 1966년 5월 말 까지 40여년간 운영되었다. 그 부근은 당시 임야였으나 도시화로 인하여 부근에 민가가 들어서서 주변 일대가 새로운 주택지로 변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경산군 고산면 고모동 산 113번지에 화장장을 신축하여 1966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 시립화장장은 부지 11,850평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 317.4평의 건물에 장의실과 대기실 각1개동, 숙실2개동, 渡廊下1개동을 갖추고 있으며 사체소각로는 대중소 각 2,4,1기를 갖추고 있고 하루 처리가능능력은 42구이다.

Ⅲ. 社會福祉

1. 生活保護

1) 生活保護法の 制定과 救護行政의 發展

행정기관의 구호체제가 미흡했던 40~50년대에는 실제 구호대상자의 파악 조차 힘들 뿐 아니라 빈약한 재정으로 전쟁수행, 전후복구에 힘쓰느라 구호자체도 충분하지 못하여 각종의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5·16정부가 절대빈곤에서의 탈피를 구호로 내걸고 각종의 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증진에도 적극적인 면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3호로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고, 1968년 7월 23일에는 법률 제 2039호로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79년에는 대통령령(9495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자녀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 지급규정이 제정된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호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여 필요한 구호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60년대의 구호행정은 성장주도의 경제정책에 가려 그 빛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으며 법률에 규정만 된채 시행은 미루어 두고 있는 상태인 것이 다수 있었다.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여 일시에 모든 구호대상자들을 구호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분적인 생계보호에서 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차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사회복지에 관심도 높아지게 되어 보호대상범위도 넓히고, 구호수준도 높이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60년대에 미흡하나마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빈민행정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일반영세민의 3종류로 구분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거택빈민으로 1인 1일 250g(연중 92kg)의 양곡을 지급하고, 일반영세민은 근로능력이 있는 잠재실업빈민으로 이들중 질병, 재난등 불의의 사고로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20일 한도내에서 1인 1일 250g의 양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 조림, 사방, 치수 등의 각종 자조근로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후 1인 1일 3.6kg씩의 양곡을 지급하였다. 시설구호대상자들은 1인 1일 420g의 양곡과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시설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는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2) 生活保護

1961년에서 1979년 사이의 요구호대상자의 추이는 <表 3-32>와 같다. 50년대의 일시적인 배급이나 수용보호의 수준에 그치던 구호행정이 체계를 잡기 시작한 했지만 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이 과학적으로 계산한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한 것도 아니고 보호대상자의 자격결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자의 증감을 근거로 사회복지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정부에서 실시한 정책의 수혜자 파악으로서의 의미는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연도별 재정상태에 따라 일정기준의 재산과 수입상태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에 미달하는 가구를 선정했기 때문에 숫자의 증감만으로 요구호대상자의 증감상태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구호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자등으로 재산이 일정기준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61년에는 이를 1~3급으로 구분하였다. 3급은 연령상한선이 55세이다.

要求護對象者現況

〈表 3-32〉

연도	총인구수		총 수		생활보호자		비농영세민		도시실업자		농촌실업자		절량농가		재 해 민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1961	121,275	678,277	1,021	3,393												
1962	127,669	716,589	15,489	78,621	1,823	6,525	6,859	38,238	4,144	20,500	1,561	7,351	1,102	6,007	-	-
1963	153,520	761,956	18,653	90,350	2,661	8,485	3,800	18,993	8,307	41,535	2,253	10,561	1,627	10,757	5	16
1964	145,329	787,978	33,593	163,114	3,656	8,455	2,697	126,791	-	-	3,758	19,660	1,482	8,208	-	-
1965	151,672	811,406	25,541	120,541	3,092	8,485	8,323	41,573	13,928	69,620	-	-	198	996	-	-
1966	161,873	847,494	15,986	72,009	3,259	8,542	6,592	33,183	5,410	26,821	-	-	725	3,463	-	-
1967	171,699	887,107	15,747	68,432	2,897	8,542	6,071	27,294	6,104	29,336	-	-	675	3,260	-	-
1968	187,899	961,657	20,274	81,834	3,684	9,736	6,745	28,634	8,087	35,302	723	3,565	244	1,480	-	-
1969	204,088	1,034,234	12,274	51,811	2,772	7,356	3,508	14,986	6,174	29,316	-	-	-	-	22	153
1970	217,666	1,082,750	15,432	68,910	2,788	7,356	6,429	32,146	6,215	30,408	-	-	-	-	-	-
1971	228,932	1,132,589	12,813	54,832	2,857	7,356	5,180	24,690	4,776	22,786	-	-	-	-	-	-
1972	239,308	1,164,048	8,037	32,675	2,857	7,985	-	-	5,158	24,690	-	-	-	-	-	-
1973	251,045	1,200,273	8,053	33,293	2,895	8,294	-	-	5,653	25,127	-	-	-	-	-	-
1974	266,974	1,266,233	8,307	32,549	2,654	7,412	-	-	-	-	-	-	-	-	-	-
1975	276,392	1,311,078	15,132	68,703	2,242	6,089	12,890	62,614	-	-	-	-	-	-	-	-
1976	294,392	1,359,040	16,689	74,100	1,818	4,189	14,871	69,911	-	-	-	-	-	-	-	-
1977	309,267	1,415,759	16,862	71,183	1,992	3,797	4,870	67,386	-	-	-	-	-	-	-	-
1978	328,748	1,487,098	16,862	71,183	1,992	3,797	870	67,386	-	-	-	-	-	-	-	-
1979	351,676	1,572,824	19,007	83,226	1,847	3,426	17,160	79,801	-	-	-	-	-	-	-	-

1961년은 총 13,352가구중 1급이 7,616가구, 2급이 4,215가구, 3급이 1,521가구이다.

1980년은 거택보호 3,470가구, 영세민보호 17,996가구 총 21,466가구가 보호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失業者 勤勞救護事業 實施 狀況

〈表 3-33〉

연도	구분 지구수	노 임		취로 연인원	구분 연도	사업 지구수	노 임		취로 연인원
		현금(천원)	양곡(kg)				현금(천원)	양곡(kg)	
1963	48	-	2,489,518	697,978	1972	17	27,858	236,525	131,656
1964	85	-	1,170,477	381,970	1973	5	2,000	-	5,000
1965	46	-	979,050	293,256	1974	121	502,340	-	719,616
1966	39	-	971,728	276,594	1975	37	1,074,528	-	928,567
1967	111	-	1,470,192	413,572	1976	38	934,270	-	735,131
1968	25	-	879,900	244,422	1977	41	249,839	-	221,994
1969	19	-	435,986	121,111	1978	38	245,513	-	169,016
1970	11	-	553,508	153,474	1979	49	718,766	-	300,286
1971	10	26,862	42,922	124,168					

1961년은 1.1-5.31 사이에 1,802명의 취로실적이 있다.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3) 失業者勤勞救護(就勞事業)

구호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자에게 실시한 근로구호는 공공취업의 한 형태로 각종의 개발사업에 실업자를 참여시키고 노임으로 현금 또는 양곡을 지급한 것이다. 노임은 1970년 까지는 양곡으로만 지급하였고 1973년 이후는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 양곡으로 지급한 것은 절대빈민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지급 양곡의 질에 대한 불만과 보관과 운반부담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현금지급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적은 <表 3-33>과 같다.

2. 醫療保障

1) 救療事業

60년대는 아직 본격적인 의료보장제도가 수립되지 않아 無醫村이 많고, 생활수준이 낮아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질병이 있어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순회의료진료사업과 구료환자시혜사업을 실시하여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 순회진료사업은 주로 70년대에 들어서서 시행되었는데 의료위약지구와 새마을 우수부락에 대하여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구료사업은 동장과 읍면장이 구료대상자들을 선정하여 이들

<表 3-34> 救療事業實績

연도	구료환자(무료)	일반환자(유료)
1963	55,725	279
1964	103,970	3,466
1965	190,473	11,565
1966	169,801	11,233
1967	180,313	12,671
1968	167,858	15,191
1969	82,497	12,775
1970	75,170	15,245
1971	109,467	8,261
1972	99,941	19,288
1973	87,245	24,173
1974	55,899	23,626
1975	74,398	28,567
1976	78,800	27,669
1977	40,636	44,425
1978	30,102	59,936
1979	780,918	54,518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극빈영세민은 보건소, 공의료소 및 도·시립병원에서, 저소득자는 비영리의료기관 및 일반개업의원에서 각각 시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생보자 및 극빈영세민 가운데 입원환자는 도·시립의료원에 입원가료를 받도록 하였다.

2) 救療券發給

구료권발급 및 시료사업을 위해 「경상북도 구료환자 사무취급 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은 구료권을 발급하였는데 대구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였다. 구료권을 받은 사람은 1차로 공의진료소의 진료를 받고, 그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전원을 요청하며 전원의뢰를 받은 보건소장은 도·시립병원, 비영리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시혜토록 하였다. 그리고 무료의료권은 대구적십자병원, 대구동산기독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학병원, 수성병원, 제한동의학술원 등의 시내 각 비영리 의료기관장이 발행하였으며 일반개업의원분은 각 시군 의사회분회장이 발행토록 하고 이를 소지한 환자의 치료는 해당병원에서 무료로 하였다. 救療事業實績은 <表 3-34>와 같다.

3) 醫療保險 實施

1976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77년 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은 저소득자만이 아닌 일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로써 시행초기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때에 실시된 보험을 직장의료보험으로 칭한다. 보험의 적용 대상은 질병, 부상, 분만, 업무상 재해등으로 수혜대상은 피보험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보수의 3~8%범위내에서 노사가 절반씩 부담토록 하였다. 요양취급기관은 보험자가 선정하고 이를 도지사가 승인토록 하였으며 행정기관은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종합감독을 하도록 하였다.

1979년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 및 교원 의료보험이 실시되었고, 동년 7월 1일 부터는 직장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3. 社會福祉施設

거택빈민에 대한 구호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또하나의 사업은 자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다. 시에서는 시립의 각종 구호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거나 사립시설과 법인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 본다.

1) 保護施設

시에선 각종 공사립의 보호시설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영·육아시설, 직업육아보호시설, 양로원, 윤락여성보호갱생원 및 숙소제공시설등이 있다.<表 3-35>. 아동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도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보호자로 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윤락여성의 경우는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하여 법으로 윤락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근절되지 않아 이들을 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직업훈련을 시키는 한편 직업알선을 통해 자활의 길을 알선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表 3-35〉 保護福祉 施設 現況

연도	시설 총 수	영아원	육아원	직업육아 보도시설	양로원	윤락여성 보도갱생원	숙소제공 시설	기 타
1961	70	55	(영,육)		7			7
1962	61	53	(영,육)		3			5
1963	58(미분류)				3			
1964	74	10	43	-	3	3	1	
1965	49	10	41	1	3	3	1	
1966	78	10	41	1	3	3	1	
1967	85	10	41	1	3	3	1	
1968	85	9	39	1	3	3	2	
1969	74	10	38	1	3	3	2	
1970	77	8	33	1	3	3	1	
1971	68	8	27	2	2	3	1	
1972	65	7	23	2	2	2	1	
1973	49	5	21	2	2	-	-	
1974	50	2	21	2	2	-	-	
1975	50	2	21	2	2	-	-	
1976	60	2	21	2	2	3	-	
1977	62	2	20	2	2	2	-	
1978	63	2	20	3	2	2	-	
1979	58	2	20	3	2	2	-	
1980	51	2	18		2			29*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 장애자시설 6, 부랑자시설 1, 모자시설 1, 탁아소 18, 기타 3.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호양곡의 지급, 운영비의 보조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호실적은 〈表 3-36〉와 같다.

〈表 3-36〉 厚生施設 收容者 救護 實績

연도	구분 시 설 수			종사 자수	수 용 인 원			구 호 상 황	
	계	인가	미인가		계	남	여	양곡	생계비
1961	66	54	12	401	5,679	4,427	1,252	-	-
1962	61	57	4	604	7,326	3,935	3,391	10,556,066	5,156,067
1963	58	56	2	715	8,324	3,928	3,928	10,926,810	5,587,404
1964	60	59	1	399	8,641	4,110	4,110	764,748	5,906,063
1965	61	60	1	798	8,074	4,511	4,511	1,093,540	3,697,324
1966	65	64	1	890	9,040	4,748	4,748	1,176,251	4,482,000
1967	67	67	-	924	8,674	4,617	4,617	1,124,901	5,477,667
1968	57	57	-	847	6,450	3,554	3,554	1,104,336	19,321,874
1969	60	60	-	819	6,361	3,535	3,535	852,973	13,297,878
1970	58	58	-	743	5,752	3,286	3,286	799,222	19,227,690

구분 연도	시 설 수			종사 자수	수 용 인 원			구 호 상 황	
	계	인가	미인가		계	남	여	양곡	생계비
1971	55	55	-	712	5,319	2,265	3,054	570,143	28,801,613
1972	55	55	-	669	6,289	2,874	3,415	867,073	33,779,056
1973	52	52	-	588	5,602	2,544	3,058	723,213	54,197,505
1974	50	50	-	588	5,416	2,499	2,917	615,981	72,850,020
1975	50	50	-	558	5,419	2,744	2,675	611,923	118,503,515
1976	53	53	-	586	5,784	2,735	3,049	736,591	163,800,300
1977	39	36	3	307	4,659	2,223	2,436	921,051	648,129,553
1978	54	53	1	537	3,888	1,837	2,051	789,437	232,616,650
1979	55	54	1	539	5,965	3,029	2,936	789,707	250,502,112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 障害者 福祉施設

우리 사회에는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그들의 주거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60~70년대에는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시설현황만 <表 3-37>에 제시한다.

3) 其他福祉施設

기타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는 무의탁 유랑자를 위한 시립희망원, 탁아소, 아동상담소 및 어린이회관등의 아동복지시설, 여성을 위한 모자보건센터, 부녀상담소, 및 여성회관, 직업훈련과 직업보도를 위한 직업훈련원과 가내수공업관 어려운 시절 서민들이 이용하던 공익전당포 등이 있다.

4. 市立福祉施設

각종의 복지시설 가운데 대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숙소제공시설,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노동회관, 무료직업소

<表 3-37> 障害者 福祉施設 現況

연도	시설	지체 부자유자	신체 장애자	점자출판 시설	허약아 갱생시설	맹아 갱생시설
	갱생시설	갱생시설	수용시설			
1961	4					
1962						
1963						
1964	4	1	1	-	1	1
1965	4	3	1	1	1	1
1966	4	-	1	1	1	1
1967	2	-	-	-	1	1
1968	4	1	2	1	1	1
1969	4	-	1	-	1	1
1970	2	-	-	-	1	1
1971	2	-	-	1	1	1
1972	3	-	-	1	1	1
1973	2	-	-	1	1	1
1974	3	-	-	1	-	-
1975	3	-	-	1	-	-
1976	5	-	-	4	-	-
1977	2	3	-	4	-	-
1978	5	-	-	3	-	-
1979	5	-	-	3	-	-

1962, 1963년은 자료미상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개소, 공익전당포, 시립희망원, 가내수공업관과 1962년 12월 4일 수용능력 60명 규모로 중구 태평로에 설립되었던 시립탁아소 등이다.

① 市立希望院

시립희망원은 무의탁 유랑자(결인과 부랑아)를 집단수용하여 거리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대구시 성당동 46번지에 설립하였다. 그 후 1968년 달성군 화원면 본리동(현 달서구 본리동) 85번지로 신축이전했으며 1980년 말 현재 수용인원은 709명이다. 시설내에는 사무실, 강당, 의무실, 목욕실, 창고, 취사장, 사체실 및 안내실이 있고, 원생숙사12동과 직원숙사 3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勞動會館

노동회관은 근로자와 영세시민을 위하여 1960년 대구시 중구 태평로 3가 179번지에 건립하였다. 회관에는 이발부, 미용부, 목욕부, 회의 및 예식부, 교양강좌실등이 있으며, 각각의 이용료는 최염가로서 1968년 기준으로 이발 40원, 미용 35원, 목욕 30원, 예식 1회 300원, 교양강좌 1회에 100원 씩을 받았다.

③ 女性會館

대구시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 불우한 여성의 교화·선도 및 자립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1967년 11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번지에 설립되었다. 여성회관에서는 부녀상담부, 교화선도부, 기술교도부 및 숙박부의 4개 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부녀상담부는 부녀자의 신상 및 가정문제, 가족계획, 직업등의 상담과 가출 부랑여성의 전락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화선도부는 여성의 일반적인 교화선도와 자질향상을 위한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교도부는 편물, 양재, 자수, 미용, 수공예등의 생활과 교양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지도와 직업보도를 담당하고, 숙박부는 불우한 여성들에게 실비로 숙박을 제공한다. 1일 숙박 수용능력은 50명이며 기술교도사업이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④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은 학습환경이 좋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공부환경을 조성해줄 목적으로 1967년 4~6월에 걸쳐 중, 동, 서, 남, 북구 5개소에 현대식 부르크 및 칠근조 2층의 회관을 건립하였다.

회관은 130여명씩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독

〈表 3-38〉 어린이會館 名稱과 所在地

소속	명칭	소재지	부지(평)
중구	달성어린이회관	달성동 209-9	109
동구	신천어린이회관	신천동 1구 65-8	138
서구	비산어린이회관	비산동 4구 213-7	234
남구	대명어린이회관	대명동 3구 2590-2	190.88
북구	칠성어린이회관	칠성동 2가2구 409	300

서실과 TV 1대씩을 비치한 시청각실을 설치하고, 동회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각 구의 어린이회관 명칭과 소재지는 <表 3-38>과 같다.

Ⅳ. 環境行政

우리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자연 및 사회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시민의 소망인 동시에 의무이다. 시에서는 공중위생의 증진과 적극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지도 계몽 및 감독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행정은 시민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위생과 보건향상, 쾌적한 환경조성 및 공해방지등을 중요한 과제로 한다. 보건행정을 제외한 환경분야를 청소행정, 환경보호 및 공해방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清掃行政

1) 清掃行政概要

清掃行政은 시행정의 중요업무임에도 1953년에서 1959년까지는 일시 경찰서의 업무로 되어있었다. 그후에는 계속 보건과내의 한 계의 사무로 되었다가 1964년 10월 동 계가 청소과로 승격되어 한 과의 업무로 되었다. 이는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청소 사무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시정 전반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청소행정은 위와 같은 기구면에서의 개혁 뿐만 아니라 장비의 개선, 오물의 위생적 처리 등에 힘쓰고 있다.

5·16이후 「오물청소법」이 제정 공포되어 대구시도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68년 기준 시가 행하는 쓰레기수거 대상가구는 14만여가구로서 총 가구수의 약 75%에 불과하고 분뇨 수거대상 가구는 9만여 가구로서 총 가구수의 약 48%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자가수거를 행하고 있고 특히 분뇨수거는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서도 전량을 수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쓰레기는 시 청소구역내 34만여 가구의 배출량 전량을 수거하고 있으며 분뇨는 42.1%는 수거처리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되고 있다.

2) 쓰레기처리

60년대만 해도 대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오물처리는 현대적인 장비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재래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매우 비위생적이었다.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는

1968년의 경우 1일 평균 961.5t의 쓰레기를 수하차 82대, 쓰레기차 31대, 리야카 146대로써 수거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無蓋車이므로 粉塵이 飛散하여 시민위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일부분이 농가 퇴비로 사용되는 외에 거의 대부분이 대지매립에 사용되고 있어 분진의 비산, 파리의 번식, 부패로 인한 악취의 발산등이 심하여 고충을 겪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새마을 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도시행정의 기본목표를 살기좋은 생활환경에 두고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의 시책과 함께 청소행정강화에 주력한 결과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함과 함께 청소장비도 현대화하여 1980년에는 청소차가 90대로 늘어났다. 그러나 날로 쓰레기발생량은 증가하나 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매립지의 확보와 처리를 위한 또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쓰레기처리실태를 <表 3-39>에 제시한다.

<表 3-39> 쓰레기 處理實態와 收去裝備

연 도	가 구	쓰 레 기			수 거 차		
		배출량	수거량	수거율	자동차	수하차	리어카
1962	-	178,120	174,960	98.2	-	-	-
1963	-	188,705	177,937	94.3	-	-	-
1964	100,186	207,320	176,967	85.4	11	87	14
1965	115,928	224,475	202,913	90.4	18	91	89
1966	122,236	274,765	252,508	91.9	22	92	94
1967	132,693	322,123	320,837	99.6	32	93	98
1968	141,297	334,524	334,524	100.0	31	82	146
1969	149,423	409,836	409,836	100.0	34	60	211
1970	165,617	476,163	476,163	100.0	44	76	272
1971	168,769	495,670	495,670	100.0	43	195	148
1972	188,422	530,539	530,539	100.0	47	195	157
1973	210,618	578,236	578,236	100.0	55	218	160
1974	232,685	578,424	578,424	100.0	60	26	356
1975	252,931	556,757	556,757	100.0	65	22	378
1976	258,550	615,208	615,208	100.0	65	422	-
1977	295,130	692,625	692,625	100.0	73	498	-
1978	292,005	764,229	764,229	100.0	83	545	-
1979	320,185	824,854	824,854	100.0	87	529	-
1980	339,128	883,125	883,125	100.0	90	525	-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3) 糞尿收去

분뇨수거는 흡인식 차량 20대와 재래식 차량 12대로서 행하고 있는데 흡인식 차량에 의한 수거는 비교적 위생적이나 재래식 차량의 경우는 인부가 가가호호의 변소를 퍼서 통으로 운반하여 트럭탱크에 옮겨 붓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번지는 악취와 불결 등이 심하다. 그리고 종말처리도 비위생적이다.

재래식 분뇨 수거분의 처리는 <表 3-40>과 같이 시 외곽지 또는 인접 군의 농촌지역에 분뇨탱크를 설치하여 그곳에 일정기간 저장하였다가 농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나 분뇨 저장탱크의 부족으로 완전히 부식되기전에 농비로 쓰여짐으로 기생충이 만연할 우려가 컸다. 도시지역에는 분뇨 저장탱크 시설을 년차적으로 증설하고 일정기간 위생적으로 저장 처리한 분뇨만을 비료로 사용케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기생충환자 및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였다. 대구시의 분뇨저장탱크 현황은 <表 3-40>과 같으며, 분뇨처리실태는 <表 3-41>과 같다.

1961년 이전은 시에서 직영으로 분뇨수거를 하였고, 1961년에서 65년 6월 20일까지는 보생기업등 9개 업체가 대행수거를 하였다. 1965년 위의 업체들이 경영난으로 도산된 후 부터는 대구위생사에서 단독 대행처리 하게 되었다. 1980년 12월 도시인구증가와 시행정구역의 확장으로 처리량이 늘어나게 되어 북구지역에 1개업체를 추가 공모 공개추첨을 한 결과 참가한 18개 업체중 북대구위생(주)가 추가로 선정되어 1980년 현재는 2개사에서 대행수거를 하고 있다.

<表 3-40>

糞尿貯藏탱크現況

위치	용량 (kl)	설치연월일	시청에서의 거리(km)	탱크수
계	17,977			
비산	2,160	1) 56.11.25 2) 59. 6.21	5.63	2
성당	1,440	63.12.30	6.43	1
효목	2,100	1) 57.10.31 2) 59. 6.20	5.79 2	2
두산	1,224	1) 57.12.23 2) 66. 8.29	7.6	2
산격	720	59. 3.20	6.76	1
검단	880	66. 9. 3	7.2	1
고모	303	65.12.30	9.1	1
매천	8,250	67. 8.16	7.0	2
봉무	900	67. 8.18	9.0	1

자료: 대구시사편찬위원회, 《大邱市史》 제3권, 1973, p.561

〈表 3-41〉

糞尿處理現況

연 도	수거구역내 가구/ 처리가구		처 리		수 거 차	
			배출량	수거량	재래식	흡인식
1962					12	
1963					7	7
1964	56,349		129,492	20,677	1	9
1965	56,749		130,122	28,612	8	8
1966	61,902		131,799	65,715	8	12
1967	62,997		444,815	82,536	12	20
1968	91,639		184,830	75,809	12	20
1969	136,571	67.0	211,506	211,491	12	28
1970	138,297	74.0	257,550	95,921	15	30
1971	160,610	73.7	297,110	114,245	17	26
1972	189,953	83.0	341,992	107,675	10	22
1973	196,840	82.0	344,437	103,413	10	20
1974	218,588	88.0	363,022	104,517	10	20
1975	241,938	88.0	415,370	148,555	10	20

연 도	가구/처리가구		배출량	정화처리	수거량	수거율	재래식	흡인식
1976	258,550	93.6	46,760	146,250	164,250	36.8	10	22
1977	295,130	95.4	71,174	325,174	146,000	31.0	10	25
1978	292,005	94.1	489,520	331,174	158,346	32.4	10	28
1979	320,185		525,746	340,239	185,507	35.3	10	32
1980	339,128		552,235	391,238	232,700	42.1	10	32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시정현황》, 각연도

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현황의 자료를 택하였음

2. 環境保護

1) 自然保護

자연보호운동은 70년대 새로운 시책의 하나이다. 공업화, 도시화에 따라 자연이 파괴되고 공해가 날로 극심해져가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자연보호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지역단위로는 경상북도의 시·군·구청별로 37개의 자연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 직능단체별, 보호대상별로 9,673개의 자연보호회를 구성하여 수목, 토석, 야생동물의 절취, 파괴, 포살등 행위를 엄금 감시케 하고 오물제거활동을 행하고 담배꽂초등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한 것이 그것이다. 자연보호운동의 추진경위와 추진기구 및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自然保護運動의 推進經緯

60년대에는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우선의 공업화 정책이 국가발전의 중요 전략으로 채택되어 환경문제를 외면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공해문제, 환경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7년 10월 5일 당시 박정희대통령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세대의 의무요 사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창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 자연보호운동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1977.10.18)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 이 계획을 시달하여(10.21.) 이 계획에 따라 정부기구인 자연보호위원회와 민간기구인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지역, 직장, 단체, 학교에 이르기 까지 자연보호회가 조직되었다. 이어 동년 11월 5일에는 전국이 일제히 자연보호결기대회를 개최하고 자연보호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게 했다.

경상북도에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동년 자연보호결기대회를 시군별로 가지고 전도민이 자연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은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현장이 선포되고,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오염 훼손되고 있는 자연의 회복과 보호에 대한 운동은 도민의 공감을 얻어 활발히 전개되었다.

(2) 自然保護運動의 推進機構

자연보호운동의 추진을 위해서 1978년 초에 도, 시, 군, 구에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을 장으로하는 자연보호회를 구성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37개의 자연보호회가 구성되었다. 또 지역별, 직능단체별, 보호대상별로 도내 총 6,542개의 자연보호회를 조직하여 103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시장, 군수, 읍·면·동장실, 보호대상지역등에 370여개의 자연보호신고소를 설치하고 자연보호회장, 새마을지도자, 산악회장, 낚시회장, 조기회장 등 277명을 자연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했으며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명예감시관 등으로 760여개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동의 추진을 주도하게 했다.

1979년에는 자연보호운동의 기반확충과 적극화를 위해 지역자연보호회 조직을 강화하고 각 급학교별 자연보호회를 조직하여 9,673개의 각종 자연보호회와 15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자연보호신고소도 증설하고, 명예감시관도 474명으로 증원 강화했으며 합동단속반도 918개로 강화했다.

(3) 自然保護運動의 展開

1977년말에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은 1978년 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자연정화, 자연보존, 환경보전의 3대 체계하에 자연, 문화재, 생활주변등의 대상을 자연보호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① 自然淨化運動

자연정화운동은 먼저 더럽혀진 자연의 정화를 통하여 심신을 맑게 가꾸는 것이 자연보호의 첩경이라는 인식하에 지역, 직장, 학교 등 자연보호회별로 책임보호구역을 확정하고 비닐, 폐지, 공병, 담배꽂초 등 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으며, 산지, 하천 관광유원지, 생활주변의 정화작업을 집중적으로 전개 하였다. 쓰레기 수거활동과 더불어 쓰레기 안버리기운동을 도시새마을운동과 연계시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는 한편 등산로, 관광유원지와 가로변등의 오물처리시설, 각종편의시설을 설치·정비하고 각종 안내시설과 편의시설도 정비확충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② 自然保存活動

자연정화운동은 주로 더럽혀진 환경의 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나 자연보존활동은 훼손의 우려가 있는 자연경관이나 자원의 보존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다.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야생동물 또는 희귀식물의 서식지 등을 조사 선정해서 보호대상구역으로 지정관리케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조수류 및 식물에 대한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것등이 그것이다. 대구시에는 동구 도동의 달성 측백수림이 1962년에 보호수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별 시군화 시군목지정보호 방침에 따라 목련을 市花로 전나무를 市木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③ 自然保護教育 및 弘報

자연보호는 일시적인 지도나 단속 및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초기에는 자연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직장 및 지역사회의 각 수준에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훼손방지를 위한 단속활동들 하였으나 점차 자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교육을 적극화하였다. 교육은 공무원, 군인, 예비군, 민방위대, 자연보호회장, 새마을지도자, 직장단체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기관 및 자체교육을 활용하도록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였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자연보호신고소의 설치운영, 합동단속반, 기동순찰반의 편성운영, 각종감시요원의 증원과 더불어 명예감시관을 위촉하는등의 지도 단속체제도 강화하였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벼운 위반의 경우는 훈방조치를 취하였지만 입건하거나 구류, 과료등의 처벌도 행하였다.

2) 公害防止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업화 및 도시교통수단의 증가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공해가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매연, 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인체와 생산에 위협을 주는 공해가 심각한 상태이지만 산업화의 초기에는 경제성장, 수출증진이라는 미명하에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정도의 심각성이 증중에 이르른 후에야 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어 그 효과가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후반 경북도에서 공해공장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데 1967년엔 공해대상 공장총수가 1,250이던 것이 1969년에는 1,360으로 늘어났고 이를 대상으로 초 년도인 1967년에 810개 공장을 검사하고 2차년도인 1968년에 540공장을 검사한 후 매년 증가하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검사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의 공장은 대구를 비롯한 포항, 경주, 김천, 안동등의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주로 대도시인 대구에 공장이 밀집해 있는 실정이었다. 공해대상공장에 대해서는 공해안전도를 검사하여 공해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表 3-42>.

〈表 3-42〉 公害工場 調査實態(1967~1969)

연도	공해대상 공장총수	공해검사 공장수	미검사 공장수	연내증가 추정공장수	연내검사 대상공장수	검사 목표
1967	1,250		1,250		1,250	810
1968	1,300	810	490	50	540	540
1969	1,360	1,300		60	60	60

자료: 영남일보사, 《慶北年鑑》,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중권 p.1109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지속적인 공해감시업무를 통해 쾌적한 환경유지에 주력하고는 있으나 1979년의 공해유발업체는 1,503개소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해발생업소로 판명되는 경우는 개선, 조업정지, 이전 및 허가취소등의 처분을 하였는데 1979년에 적발된 업소중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475개소, 이전명령을 받은 업소는 76개소이다<表 3-43>.

〈表 3-43〉 公害防止業務處理

연도	공해업체현황			공해업소검사						행정조치			
	연중변동		연말현재	신규업소검사			기존업소검사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이전 명령	허가 취소
	신규	감소		계	기준이내	기준초과	계	기준이내	기준초과				
1978	532	-	1,008	532	532	-	784	107	677	667	-	10	-
1979	864	364	1,503	864	864	-	682	131	551	475	-	76	-

자료: 환경위생과

한편 시에서는 공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공해유발 업소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신고된 업소에 대하여 그 상태를 검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검사건수가 늘고 있다. <表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년대 중반 부터 그 숫자가 그 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해의 심각성의 증가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表 3-44> 公害發生要因

연 도	신고업소	요 인 별 공 해 검 사 건 수							
		계	소 음	진 동	매 연	개 스	분 진	악 취	폐 수
1967	404	592	343	16	48	98	66	16	5
1968	388	576	328	15	47	100	65	16	5
1969	374	562	323	14	46	96	64	15	4
1970	360	548	318	13	45	92	63	14	3
1971	589	770	517	3	95	1	61	18	75
1972	403	555	410	-	81	-	28	8	28
1973	762	923	548	28	168	37	50	45	47
1974	1,344	1,510	821	57	257	981	105	110	69
1975	270	270	238	-	11	8	2	7	4
1976	1,320	2,072	823	-	440	245	154	251	159
1977	1,472	2,803	1,618	72	485	23	321	76	208
1978	1,827	5,119	1,584	1,584	427	427	427	427	243
1979	1,814	4,971	1,548	1,548	521	521	24	484	325

자료: 환경위생과

V. 治安, 民防衛 및 消防

1. 治安

1) 警察官署現況

60년대는 5·16에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 충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질서확립을 위하여 그 간 체계적이지 못하였던 각종의 제도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경찰관서도 대대적인 신설 내지 개편을 통하여 치안질서유지와 시민생활 및 재산보호에 주력하였다. 경찰서의 경우 60년대 초에는 대구경찰서, 남대구경찰서 및 동대구경찰서의 3개서이던 것을 1973년 7월에 남대구경찰서와 동대구경찰서를 대구남부경찰서와 대구북부경찰서로 바꾸고 1975년 1월에는 대구동부경찰서를 신설하였다. 1979년 10월에는 대구서부경찰서를 신설하고 대구경찰서를 대구중부경찰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관할 구역의 확대 및 도시화

의 진전의 영향이다. 경찰서의 증가와 더불어 파출소 및 지서 그리고 검문소도 증가하였는데 그 현황은 <表 3-45>와 같다.

<表 3-45> 警察官署一覽

연도	파출소	지서	검문소	신고센터	연도	파출소	지서	검문소	신고센터
1961	33	5	-	-	1971	44	2	5	7
1962	36	3	-	-	1972	46	2	5	6
1963	35	3	-	-	1973	50	2	5	2
1964	35	3	-	-	1974	50	2	5	3
1965	35	3	-	-	1975	51	1	3	4
1966	44	2	-	-	1976	51	1	2	12
1967	44	2	-	-	1977	51	-	3	14
1968	43	2	4	3	1978	56	-	2	10
1969	44	2	13	6	1979	60	-	2	10
1970	44	2	12	6	1980	63	1	1	17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 5·16과 社會秩序의 確立

60년대의 경찰은 5·16직후 사회질서의 확립에서 부터 그 임무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초기에는 경찰관인사의 쇄신, 사회각부문의 단속과 검거등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중점시책은 ①警察官人事刷新, ②警察官交流轉配, ③徵召集 忌避者 團束, ④不法武器索出, ⑤交通秩序確立, ⑥特別犯罪 檢舉, ⑦暴力輩團束, ⑧似而非記者團束, ⑨公務員犯罪團束, ⑩通禁違反者團束強化, ⑪密輸事犯. 麻藥事犯團束 등이었다.

(1) 警察官 人事刷新

경찰관인사쇄신은 5·16이후 혁명과업완수를 명분으로 한 인사쇄신책으로서 부정부패공무원 정리 및 병역미필 공무원의 정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직된 경찰관 정리등과 이에 따른 신규임명등과 인사교류를 시행하였는데 대구시를 포함한 경상북도의 경찰관 인사상황은 <表 3-46>과 같다.

<表 3-46> 警察官 人事狀況

구 분	사유	계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退 職	계	454	1	14	14	47	85	293
	依願免職	85	-	1	1	4	26	53
	勸告免職	285	-	11	7	37	48	182
	懲戒免職	52	-	1	-	1	6	44
	事情形便 一方解免	32	1	1	6	5	5	14

구분	사유	계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	경사	순경
任命	計	357	-	-	-	-	-	357
	新規任命*	355	-	-	-	-	-	355
	復職任命	2	-	-	-	-	-	2

* 경찰전문학교시험 경찰관채용시험합격자

자료: 경상북도경찰국

경찰관교류는 1961년 9월 20일 경찰관 轉配交流에 대한 지시로서 공정한 집행을 기함과 동시에 경찰직무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데 그 기준은 勤績, 出身地, 本籍地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1964년 9월 28일 부터 10월 29일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진 총 인원은 1,366명으로 경감의 진출입이 6명, 경사 244명, 순경 1,116명등이었다.¹⁸⁾

(2) 各種團束 및 檢舉

5·16이후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단속과 검거를 강화하였는데 병역의무의 불이행, 불법무기소지자의 색출, 교통질서확립, 특별검거, 폭력배단속, 사이버기자 단속 및 공무원 범죄의 단속등이 그것이다. 그중 병역의무자의 단속은 징소집기피자의 자수기간을 정하여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전역에서 총 49,097명을 처리하였으며, 불법무기소지자 역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61년 6월 25일 부터 7월 24일 한달간 신고를 받았다. 이 기간중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통질서확립을 1961년 5월 18일 부터 11월 17일 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우마차 모두 합하여 경상북도에서 87,402건이 단속되었으며, 보행자나 자전거 우마차는 대부분 훈방조치 되었으나 자동차의 경우는 면허정지등 법적제재를 받은 건수가 7,351건에 달한다. 경상북도의 자료이나 교통문제는 주로 대도시인 대구에서 발생하므로 그 통계를 <表 3-47>에 제시한다.

<表 3-47>

交通秩序確立

구분	단속 건수	치				상			
		조	치	상	황	태	도	이	양
		폐차	운행정지	면허취소	면허정지	입건	치載	훈방	타도이양
자동차	8,634	18	1,637	24	3,518	22	2,132	301	982
보행자	73,076						650	72,426	
자전거	3,716						38	3,678	
우마차	1,976							10	1,966
계	87,402	18	1,637	24	3,518	22	2,820	76,415	2,948

자료: 경상북도 경찰국

18)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중, 1983, p.1038.

폭력배등 특별범죄와 강력범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기관의 정화를 위한 似而非記者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 총 134건을 검거하여 61건은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38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즉심에 10명, 25명은 移監되었다.

(3) 公務員犯罪團束

5·16이후 官紀確立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1961년 한해 동안 5·16을 전후하여 단속한 실적을 비교하면 <表 3-48>와 같다.

<表 3-48> 公務員犯罪 團束實績

구분	종별		계		警 察		稅 吏		市郡公務員		其 他		處 理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군재	민재	기타
계	전/후	30/63	73/89	4/16	1/ 3	1/ 5	15/26	38/39	10/18	30/25	-/13	71/75	2/ 1		
竊 盜	3/ 3	1/ 1								2/	2/	/ 3			
瀆 職	2/11	2/15	2/ 9	2/12						/ 2	/ 3	/ 6	/ 8	2/ 1	
橫 領	20/29	46/47	2/	2	/ 1	/ 1	15/21	38/34	3/ 7	6/12	/ 2	46/45			
恐 喝	/ 1	/ 2	/ 1	/ 2							/ 2				
文書偽造	/ 2	/ 2					/ 2	/ 2				/ 2			
收 賂	3/ 8	11/10	/ 5	/ 5	1/ 1	1/ 3	/ 1	/ 1	2/ 1	10/ 1	/ 2	11/10			
其 他	5/ 9	14/10			/ 1	/ 1	/ 2	/ 2	5/ 6	14/ 7	/ 1	14/ 9			

자료: 경상북도경찰국, /윗부분은 5.16 이전(1961.1.1-5.15), / 아랫부분은 5.16 이후(1961.5.16-1961.11.15)

(4) 其他

5·16이후의 혼란을 틈타 일어날지도 모르는 각종의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의 단속을 강화하였는데, 당시에 실시되었던 야간통행금지를 위반해서 단속된 인원은 5.16~11.15 동안에 6,903명, 密輸事犯은 9건 9명에 당시 시가로 6,077,840원어치의 화장품과 만년필 및 장신구밀수였다. 또한 특정 외래품은 수입은 물론 판매도 금지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단

<表 3-49> 麻藥事犯 斷續實績

期間	檢舉件數	檢舉人員	檢 送	即 審
5.16 전	94	117	94	23
5.16 후	351	371	318	53
계	445	488	412	76

자료: 경찰북도 경찰국

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에 의류와 화장품등을 포함하여 74건에 73명이 단속되었다. 마약 사범은 이보다 수가 더 많아 같은 기간 동안에 488명이나 검거되었는데 그 내용은 <表 3-49>와 같다.

3) 維新과 警察行政

70년대는 60년대에 이어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의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기간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1972년 10월에 단행된 10월 유신이라는 커다란 변혁과 70년대 말에는 60~70년대를 유지하던 박정희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10·26사건이 일어나는등 혼란이 가중된 시기이기도 하였다. 10월 유신은 총화행정과 국가안보를 강조하였으며 경찰도 이의 영향으로 여러가지 특별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이를 연도별 중점시책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¹⁹⁾

① 1970년도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을 노린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공비색출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질서와 향토방위」에 역점을 두었다.

② 1971년도

「향토예비군육성 및 예방경찰의 활동강화」라는 도정방침에 따라 「사랑받는 경찰상의 구현」, 「행정체제확립」, 「각종 질서공해의 과감한 제거」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③ 1972년도

경상북도의 도정방향의 최우선시책이 「안보우선의 체제확립」이었는데 1972년은 10월 유신이 일어난 년도로서 유신치안유지에 주력한 해이다. 경북도경에서는 도시클락손 금지, 검문소폐지, 외곽지 밝히기운동, 동해안 경비 강화, 범국민총화사범단속등의 5대 중점업무 시행하였다. 도시클락손금지는 1972년 9월 1일 부터 대구시내전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경음기의 사용을 금지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 대공취약성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검문소 16개소를 폐쇄하여 민폐의 요인을 제거한 것과 각종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뒷골목과 외곽지 등달기운동을 전개한 것등은 이 해의 특별한 시책들이다. 한편으로 총력안보와 새마을운동 저해요인을 일소하고자 1월 부터 국민총화저해사범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을 만들어 9월 까지 경북도내에서 12,300건을 적발, 처리하였다.

④ 1973년도

1973년은 「범죄없는 명랑한 내고장 만들기」운동을 전개하고 직원상호간의 인화단결, 책임치안, 치산녹화에 주력한 해이다. 직원상호간의 인화단결은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며 그를 통하여 민주경찰로서의 봉사를 더욱 강화하자는 뜻이 담겨져 있다. 책임치안을 위하여서는 교통질서의 생활화, 청소년보호체제의 확립 및 불우청소년 선도를 위한 각 기관간의 유대확립과 종합센터로서의 청소년회관 건립추진, 완벽한 경비태세의 확립, 고

19)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중권, 행정편에서 발췌

속도로 치안태세의 확립, 장비의 적정관리, 사회불안요인의 과감한 소탕, 대공태세의 확립, 외사업무의 강화, 민방공 자위체제의 확립 및 강화, 예비군무기관리의 철저, 풍수설해방지, 화재예방과 사전점검활동 강화, 통신운용강화등을 추진하였으며, 치산녹화업무는 산림청의 내무부 이관에 따라 일선 경찰이 맡게 된 산림사범단속업무를 철저히 이행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⑤ 1974년도

1974년도는 「유신치안」 정착의 해이다. 시민생활 보호,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 경계태세 강화등이 이를 위한 시책들이었는데, 시민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물가, 보건의범단속과 야간통행제한 완화등이 추진되었고,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을 위해서는 예방 경찰활동의 강화와 봉사자세개선등이 추진되었다. 경계태세강화를 위해서 군·경·예비군 합동으로 지역방위를 강화하는 한편 이동장, 통반장, 예비군등의 대공태세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소방시설을 정비하여 화재예방에도 힘을 기울인 한해였다.

⑥ 1975년도

1975년은 안보태세의 완벽, 사회질서의 확립, 경찰기강의 쇄신, 직원사기진작 등에 역점을 두었다. 안보태세의 완벽을 위해 경계경비의 철저, 대공 심리전활동강화, 총화저해사범 단속, 간첩색출 책임제, 전투능력배양, 중요시설 경비강화, 민방위훈련 강화를 추진하고, 사회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방법체제 정비와 치기배, 도범의 중점단속을 하였으며 거리질서확립, 청소년선도활동의 강화등도 이에 해당된다. 경찰기강쇄신을 위해서는 복무태세확립, 봉사자세 확립, 내부 부조리시정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인사질서의 확립 및 후생복지향상등을 추진하였다.

⑦ 1976년도

1976년에는 안보태세의 강화, 책임치안제 확립, 성실한 대민봉사, 경찰기강의 쇄신, 직원 사기진작등에 역점을 둔 경찰행정을 폈다. 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하여서는 승공태세의 확립과 대간첩작전태세확립 및 경계업무의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예방경찰강화, 수사활동강화, 서민 경찰구현등을 통하여 책임치안을 강화하였다. 성실한 대민봉사를 위하여서는 대민봉사자세를 확립하는 한편 신뢰받는 행정, 공정한 민원처리를 강조하고, 경찰기강쇄신을 위하여서는 자체부조리척결, 공정한 인사관리, 경찰관 자질향상과 사기양양책등을 모색하였다.

⑧ 1977년도

1977년은 안보치안, 서민치안, 협력치안, 내실치안등이 경찰행정의 주된 추진방침이었는데 이는 정부의 서정쇄신작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서정쇄신, 사회불안요소제거, 대공태세

확립등을 통하여 안보치안을 확립코자 하였으며, 서민치안은 방법활동강화, 거리질서확립, 사회기강순화등을 중점목표로 삼았고, 협력치안은 청원경찰력증강,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활용과 자위방법사상계도, 교통순시원의 효율적활용등을 내용으로 하며, 내실치안은 생정풍토의 쇄신, 직장새마을운동의 전개등을 통하여 다지고자 하였다.

⑨ 1978년도

1978년은 대공태세의 강화, 중요범죄의 소탕, 3대 질서운동 전개, 경찰행정 풍토쇄신등에 주력하였다. 중요강력범죄의 소탕을 위하여 10월 1일 부터 도경찰국에 특별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강력사건의 해결을 위해 도경 수사과에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으며, 3대 질서운동의 정착을 위해 전경찰관을 일요일 마다 유원지등에 고정 배치하여 3대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제도활동을 펴고 경찰행정의 풍토쇄신을 서정쇄신과 연관시켜 추진한 것등이 주요활동 내용이다.

⑩ 1979년도

1979년의 중요방침은 멸공태세의 강화, 건전한 사회기풍 확립, 특정지대 위해예방, 도시대형화에 따른 치안대책,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북경찰, 창의와 계발하는 경찰, 단결하고 협동하는 경찰의 실천 등이다. 특히 1979년에는 대구시의 교통질서확립에 중점을 두고 대구 시내 주차지정장소, 좌우회전금지구역, 일방통행로등을 대폭 증설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공휴일 차없는 거리를 신설하는 등 교통공해제거와 보행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1979년에는 대도시 교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대구 시내 주차지정장소, 좌우회전금지구역, 일방통행로 등을 대폭 증설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공휴일 차없는 거리를 2개소 신설하여 교통공해를 제거하고 보행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4) 各種事件의 處理

① 各種犯罪의 團束과 處理

명량한 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찰이 미풍양속을 해치고 질서를 문란케하는 각종의 보안사범에 대해 수시단속과 아울러 특별단속을 폈으며 70년대 후반에는 3대 질서운동의 정착을 위해 보안사범 단속과 함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제도를 하였다. 유원지 등에서 미풍양속저해사범과 자연환경저해사범도 단속하였는데 년도별 범죄처리실적은 <表 3-50>과 같다.

〈表 3-50〉 各種犯罪의 處理

연 도	총 수			형 법 범			특 별 범 범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1969									
1970	85,921	81,581	83,921	11,182	8,895	11,212	74,739	72,686	72,709
1971	70,205	66,794	68,623	11,322	9,107	11,468	58,883	57,687	58,155
1972	116,688	113,913	116,556	12,045	10,156	12,356	104,623	103,757	104,200
1973	17,113	15,018	17,428	12,933	10,979	13,075	4,180	4,039	4,353
1974	15,427	13,924	17,019	12,411	10,998	13,722	3,016	2,926	3,297
1975	17,143	15,402	19,804	13,474	11,846	15,792	3,669	3,556	4,012
1976	23,883	20,524	24,591	16,057	13,511	16,639	7,776	7,013	7,952
1977	23,636	20,346	24,754	16,586	13,767	17,420	7,050	6,626	7,236
1978	24,800	20,697	24,875	17,481	13,767	17,420	7,319	6,930	7,455
1979	28,899	23,570	27,860	18,793	14,631	18,401	9,106	8,939	9,459

1969년 이전 자료는 자료 미상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② 少年犯罪

사회의 혼란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쳐 각종의 소년범죄들이 성인범죄를 무색케 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다. 이에 70년대 소년범죄의 경향을 살펴본 바 상해와 폭행사건이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이며 우려해야할 부분이다. 소년범통계를 <表 3-51>에 제시한다.

〈表 3-51〉 少年犯罪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상해	폭행	협박	공갈	도박	사기	실화	기타
1972														
1973	6,535	-	29	23	-	854	39	338	1	7	1	23	7	818
1974	2,118	-	19	19	1	906	48	10	1	11	2	29	14	1,628
1975	3,133	2	44	28	1	1,302	62	326	1	12	5	11	2	833
1976	2,419	3	61	19	-	1,901	55	360	1	24	8	15	5	1,214
1977	3,470	3	42	65	5	1,044	49	966	-	67	19	23	20	1,167
1978	3,081	4	66	66	-	855	461	1,084	-	50	5	27	22	441
1979	4,002	4	78	81	1	812	555	1,247	4	43	9	19	22	1,127

1972년 이전 자료는 미상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60년대는 50년대에 전쟁복구로 인해 미쳐 손을 쓰지 못하던 거리질서운동등도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리의 부랑아와 결인을 단속한 것이었다. 이들 실태를 <表 3-52>에 제시한다.

<表 3-52> 浮浪兒 및 乞人 團束

연도	단속건수
1961	771
1962	2,070
1963	375
1964	2,327
1965	5,157
1966	2,436
1967	4,098
1968	1,331
1969	588
1970	787
1971	799
1972	1,990
1973	1,251
1974	666
1975	596
1976	259
1977	745
1978	506
1979	583
1980	

자료: 각 경찰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며, 단속대상에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검사미비로 인한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기타의 각종위반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통질서확립을 경찰의 중점시책으로 설정한 1979년의 단속건수가 전해에 비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교통질서확립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5) 交通團束

점차 자동차와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도로교통이 복잡해지고, 각종 사고가 빈발하여 경찰에서는 교통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60년대말 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게된 운전자증가상황과 교통단속실적을 <表 3-53>와 <表 3-54>에서 각각 살펴본다. 특기할 것은 60년대초에는 거의 없다시피하던 여성운전자가 70년대말에와서는 급

<表 3-53> 運轉者 現況

연 도	계	총 수		
		남	여	외국인
1961	1,013	1,012	1	-
1962				
1963				
1964	5,796	5,767	15	14
1965	5,776	5,746	13	17
1966	6,978	6,943	13	22
1967	7,728	7,665	27	36
1968	11,310	11,225	71	14
1969	16,070	18,650	324	96
1970	22,026	21,626	356	44
1971	22,853	22,447	346	60
1972	26,747	26,421	287	39
1973	26,943	26,734	177	32
1974	25,455	25,160	291	4
1975	31,235	30,691	528	16
1976	39,316	38,319	980	27
1977	44,941	44,225	673	43
1978	60,744	58,943	1,755	46
1979	82,971	80,542	2,414	15
1980				

1962, 1963년 자료는 없음

자료: 각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交通團束 및 處理

〈表 3-54〉

연 도	단속 건수	위			반				사				항			
		속도	추월	회전	음주운전	무면허	일반통행	무검사	신호	정 원	주정차	불법영업	적재	노선	정비불량	기타
1961	14,782	662	90						318	3,848	-	691	6,273			
1962																
1963																
1964	16,585	1,562	189	128	20	94	158	20	455	3,255	4,551	7	982	65	295	4,804
1965	23,112	4,306	233	143	18	17	475	37	353	3,831	5,387	2	1,648	40	570	9,052
1966	15,036	241	329	295	17	-	330	164	491	1,299	4,132	5	626	16	395	6,716
1967	16,304	183	520	392	14	7	433	126	833	775	5,326	1	45	10	253	7 386
1968	20,457	1,043	444	479	19	322	780	110	1,272	306	7,538	13	112	10	389	7,520
1969	31,612	1,871	584	1,785	37	286	1,185	389	2,398	429	11,074	26	252	11	1,137	10,148
1970	28,978	1,225	956	1,547	44	375	1,232	35	3,463	434	10,213	9	210	36	384	8,915
1971	28,872	1,752	1,059	1,488	31	37	1,210	-	2,637	190	11,106	10	175	14	586	8,577
1972	44,465	845	741	2,715	65	72	1,553	347	3,756	212	17,696	-	167	2	637	15,657
1973	33,290	100	162	1,731	33	29	559	-	1,579	44	9,255	-	27	-	454	19,317
1974	9,111	138	237	1,372	31	6	144	-	1,371	70	2,645	-	157	12	512	2,416
1975	38,426	645	548	2,675	42	-	585	7	4,266	62	10,957	-	40	1,705	430	16,494
1976	96,450	4,610	1,126	4,141	32	46	2,310	-	5,125	1,288	23,010	-	346	-	99	54,317
1977	55,938	34	358	2,439	11	-	919	-	2,109	543	9,773	3	768	3	1	38,977
1978	55,793	69	361	2,630	21	4	1,128	-	1,529	639	12,963	21	277	-	1	36,150
1979	91,855	226	490	4,748	52	23	4,362	-	2,519	744	39,192	15	195	-	6	39,283
1980	122,246	214	270	6,323	41	165	405*		2,383	512	38,291	41	229		3	73,369

1962, 1963년은 자료 미상, * 1980년의 일반통행건수는 차선위반건수 임.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이러한 교통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늘어만 감을 〈表 3-55〉에서 볼 수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고시의 운전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다는 과속, 추월 및 중앙선침범등의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表 3-56〉. 즉 운전자과실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道路事故現況

〈表 3-55〉

연 도	총 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기 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1961	515	149	642	164	37	185	264	89	350	66	23	88	21	-	19	-	-	-
1962	234	49	205	100	7	79	77	28	83	41	12	28	-	-	-	16	1	16
1963	282	56	226	115	23	92	65	7	58	52	11	41	16	4	12	34	11	23
1964	290	58	232	117	16	101	36	4	32	68	13	55	15	1	14	54	24	30
1965	241	56	268	110	23	80	38	11	67	75	25	92	11	5	11	11	2	14

연 도	총 수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기 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1966	450	76	401	101	13	81	108	24	82	219	34	218	11	1	10	11	1	10
1967	732	65	657	420	35	375	144	19	125	99	8	91	19	1	18	50	2	48
1968	1,065	95	843	568	38	496	161	28	130	195	17	92	56	3	38	85	9	87
1969	1,395	99	1,170	881	47	691	185	19	97	205	13	240	12	1	6	112	19	136
1970	1,864	109	1,482	1,138	56	1,006	222	13	85	244	29	206	19	3	23	241	8	152
1971	2,104	144	1,866	1,389	68	1,105	236	18	147	256	50	425	50	425	112	111	6	101
1972	1,909	113	1,709	1,568	74	1,385	113	19	132	186	16	160	3	3	-	39	1	32
1973	2,392	99	2,155	1,504	44	1,386	314	28	207	405	27	686	14	-	14	155	-	162
1974	2,061	126	1,948	1,082	26	1,006	299	35	231	374	41	424	7	3	1	299	21	286
1975	2,939	146	2,581	1,752	64	1,411	343	16	282	598	52	638	51	5	54	225	9	196
1976	3,331	122	2,549	2,202	59	1,613	628	36	548	307	22	246	9	1	4	168	5	139
1977	5,332	136	4,140	2,603	41	1,986	1,113	46	794	995	43	766	9	1	6	612	5	588
1978	7,367	175	5,218	3,892	111	3,048	1,984	33	1,442	522	27	335	62	1	35	827	3	358
1979	9,607	178	6,038	4,834	85	2,900	1,907	44	1,216	1,384	28	1,040	242	3	40	1,042	19	581

자료: 각 경찰서

〈表 3-56〉 交通事故運轉者分析

연 도	건 수	사 고 시 운 전 상 태					
		과속	추월	음주	중앙선위법	운전미숙	기타
1961							
1962	232						
1963	282						
1964	290						
1965	241	207	10	5	23	2	4
1966	450	396	14	17	23	-	-
1967	691	207	7	9	162	106	200
1968	1,065	413	11	12	67	143	419
1969	1,395	356	39	20	38	136	806
1970	1,864	632	40	49	99	81	963
1971	2,104	553	19	16	38	551	927
1972	1,909	588	8	12	25	118	1,158
1973	2,293	147	18	16	53	743	1,416
1974	2,601	93	10	31	39	42	1,846
1975	2,939	119	88	65	55	57	2,555
1976	3,311	534	309	58	76	112	2,222
1977	5,322	642	55	101	211	968	3,345
1978	7,367	931	818	315	513	410	3,880
1979	7,850	508	504	172	544	315	5,807

1961년 자료 미상, 1962-1964년은 1965년 이후와 자료의 분류방식이 달라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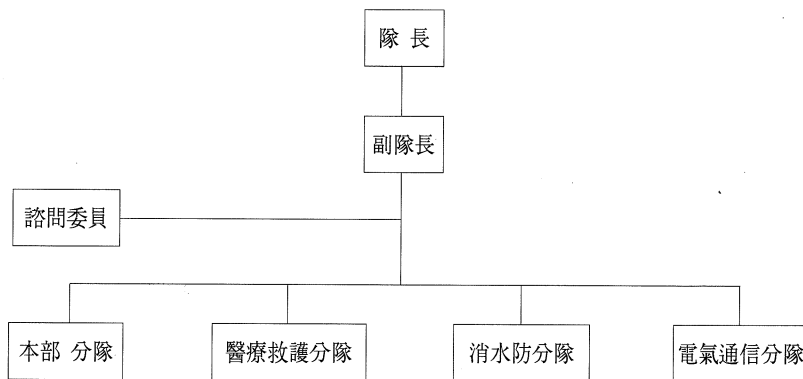
2. 民防衛

1) 民防衛隊의 編成과 組織

정부는 1975년 7월 민방위기본법을 법률 제 2776호로 제정 공포 하고 동년 8월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시달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발족된 민방위대의 기본임무는 적의 침공,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난과 화재등 인위적인 재난 및 한 해와 병충해등의 농업재해, 전염병, 화생방등에 대비하는 것이다.

민방위를 위한 행정조직은 도의 경우 지사 밑에 민방위국과 민방위과, 소방과를 두고 시군에 있어서는 대구시는 민방위국과 민방위과, 소방과를 두었고 다른 시군에는 민방위과를 두었으며,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방위협의회를 도와 각 시군에 설치하였다. 민방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방위협의회를 도와 각 시군에 설치하였는데 시군 민방위협의회는 시장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시군교육장, 지방검찰청지청장, 경찰서장, 재향군인회 시군분회장, 지역내 군부대장, 시군민방위과장(민방위국장)이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두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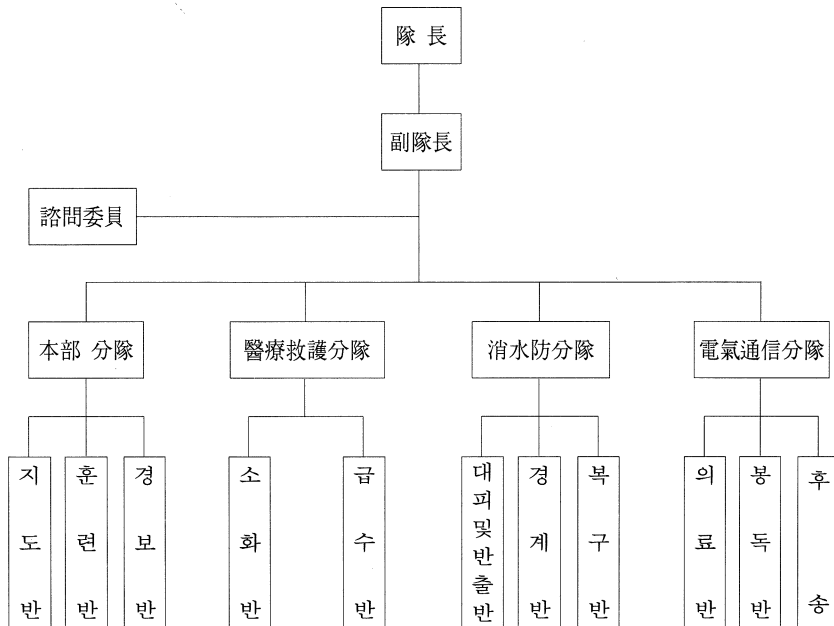
민방위대의 편성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로 나누었는데 대원은 17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로 구성되는 민방위대편성의무자와 14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로 구성하여 매년 12월에 편성을 하도록 하였다. 민방위대의 편제는 <圖 3-4> 및 <圖 3-5>와 같다.



<圖 3-4>

民防衛技術支援隊 基本編制

자료: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 중권, 1983. p.1219.



〈圖 3-5〉 職場民防衛隊 標本編制

자료: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北道史》 중권, 1983, p.1219.

2) 民防衛 訓練

① 「民防空 消防의 날」 訓練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민방위훈련은 정부시책에 따라 1972년 1월 15일 실시된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은 매월 15일 또는 25일을 민방공의 날로 정하여 1975년 6월까지 41차에 걸쳐 주로 도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② 民防衛의 날 訓練

1975년 7월 25일 제 42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을 제1차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대체하여 이후 부터는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매월 15일에 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은 가상피폭지점의 대피훈련, 화생방, 소방, 경보전달, 야간등화관제등이다.

③ 民防衛 教育

민방위 교육은 편성초기에는 대원들의 정신교육에 주력하였으며 1978년에는 년 15회에 걸쳐 대원 1인당 62시간을, 1979년에는 년 93시간을 교육하였고 교육내용은 정신교육과 실기 교육을 병행하였다.

3) 民防衛隊 活動

1975년 민방위대가 발대된후 1978년 까지 한해대책, 수해복구, 화재진압, 병충해방제, 설해복구, 냉해예방등의 많은 재해에 대하여 예방, 피해의 최소화, 응급복구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 1976년 12월 17일 발생한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번지 서문시장 제 3지구 1층 중앙부의 화재진압에 세운 공헌은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때 민방위대원은 1,914명이 동원되었으며 이들의 활약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3. 消防

1) 消防官署와 裝備

대구의 소방행정은 일제시대 대구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거류민단에 의하여 1907년 3월 1일 대구부의 동부 및 서부에 官設消防組를 창립한 것이 嚆矢이다. 1909년에는 동부와 서부 소방조를 연합하여 대구소방조로 개편하였다. 1919년 7월 4일 중구 남일동 대구소방서 뒷뜰에 높이 21.5m의 망루를 설치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던 중 부족인력충원에 한국인이 처음 소방에 근무하게 되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한국소방인 76명중 70명은 경찰에 편입되고 잔여인력 6명을 중심으로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오늘날과 같은 소방서를 개서하였다.

1946년 4월 10일 미군정법령 제 66호에 의하여 각도에 소방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다시 1947년 에 해체되고 소방청이 설치되어 자치소방체제로 운영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후에는 경상북도 경찰국에 소방과가 설치되어 소방업무가 경찰행정과 통합되었다가 1975년 9월1일에는 민방위기구에 편입되었으며 시도 민방위국에 소방과가 신설되어 소방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대구시의 소방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서는 1961년 대구소방서 하나에 소방관 41명, 순경 겸 소방원 153명 의용소방대원이 400명이며, 소방장비는 펌프차 4대, 탱크차 11대, 腕用펌프4대가 고작이었으나 1979년에는 대구소방서와 대구동부소방서의에도 8개 소방파출소와 2개의 파견대를 갖추어 모두 12개의 소방관서를 설치하게 되었다.

소방장비는 초기에는 펌프와 탱크 몇대가 고작이었으나 도시의 건물이 고층화되고 건물의 자재나 내부장식들이 화학재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사다리차와 화학차등의 장비개선이 점차 이루어졌다.

소방인력은 초기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와 분리되지 않은 시기에는 경찰업무를 겸하는 경우

도 있었고, 또 상당수는 의용소방대로 충당하였다.²⁰⁾ 소방장비중 차량의 변화추세와 소방인력 변화추세를 <表 3-57>에 제시한다.

<表 3-57> 消防裝備와 人力

연 도	消 防 裝 備 (車 輛)													消火水		人力	其他
	계	지휘차	펌프차	방수포차	#탱크차	사다리차	화학차	선전차	운송차	승용차	배연차	동력펌프	구급차	소화전	저수장	소방관수	기타
1961	19	-	4	11	-	-	-	-	-	-	-	4*	-	252	32	194**	
1962	17	-	4	11	-	-	-	-	-	-	-	-	-	271	35	78	2
1963	18	-	4	12	-	-	-	-	-	-	-	-	-	306	35	136	2
1964	19	-	4	13	-	-	-	-	-	-	-	-	-	306	35	131	2
1965	21	-	4	15	-	-	-	-	-	-	-	-	-	306	37	123	2
1966	19	-	4	14	-	-	-	-	-	-	-	-	-	316	37	123	-
1967	24	1	-	14	1	1	1	2	2	-	-	2	-	315	37	109	2
1968	27	1	3	14	1	1	1	2	2	-	-	2	-	721	37	109	
1969	24	2	8	2	7	1	-	1	1	-	-	2	-	393	51	121	
1970	24	2	7	2	6	1	3	1	1	-	-	1	-	393	51	121	
1971	23	2	4	2	7	1	3	1	2	-	-	1	-	1,095	38	135	
1972	24	2	3	2	8	1	3	1	2	-	-	1	1	1,169	38	137	
1973	24	2	3	2	8	1	3	1	2	-	-	1	1	623	69	134	
1974	33	1	9	2	9	4	2	1	4	-	-	1	-	655	69	145	
1975	33	1	8	2	9	4	2	3	2	-	1	1	-	707	108	142	
1976	65	4	16	4	20	8	2	2	2	2	4	2	-	841	67	145	
1977	47	2	27	-	2	4	4	2	1	1	1	3	-	1,013	37	236	
1978	54	2	32	-	1	4	4	2	5	1	1	2	-	1,055	37	?	
1979	45	2	26	-	-	4	5	-	2	5	1	-	-	983	37	283	
1980																	

- ① * 1961년의 동력펌프난에 기재된 숫자는 腕用펌프, ** 소방대원수는 소방관과 순경겸소방원을 합한 수이며 단기 4294년에 발간된 제1회 대구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함
- ② * 1962년의 기타는 소방차중 기타종임
- ③ #방수포차는 1967년 이전은 탱크, 1969년이전은 펌프탱크차의 수임, 화학차는 1969년이전 구조차, 동력펌프차는 1969이전 구조차
- ④ 1968년 부터의 저수조수는 공설과 사설을 합한 수임
-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0) 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慶尙北道史》중권, 1983, p.1222 경상북도 전체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인력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2) 火災의 發生과 各種 事故

아무리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갖춘다해도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소방과 출소와 소방차 및 소방관수를 계속 증가시켜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각종의 화재가 끊이지 않아 그 피해가 매우 컷기에 참고로 <表 3-58>에 화재 발생건수와 피해상황을 제시한다.

<表 3-58> 火災發生件數 및 피해상황

연도	건수	피해액(천원)	인명피해
1961	308	45,531,820	-
1962	123	51,129,000	7
1963	108	23,063,600	3
1964	103	6,570,430	2
1965	129	188,391,259	4
1966	107	20,580,150	1
1967	159	204,468,530	7
1968	174	125,305,720	4
1969	208	38,386,700	5
1970	227	95,452	9
1971	259	44,587	6
1972	193	38,841	11
1973	210	45,968	6
1974	170	77,004	12
1975	180	2,653,017	9
1976	165	1,545,970	19
1977	246	232,246	17
1978	250	309,533	2
1979	291	253,100	4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화재발생상황을 화재발생지점별로 분석해보면 주택과 점포 및 공장화재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表 3-59>.

〈表 3-59〉 種別火災發生狀況

연 도	건 수	주 택	관공서	회 사	점 포	학 교	공 장	창 고	병 원	홍행장	교회사찰	기 타
1961	308	150	1	1	52	4	74	1	3	1	-	21
1962	123	60	2	1	17	2	30	4	1	-	1	8
1963	108	48	-	-	15	-	29	-	-	1	-	11
1964	103	57	3	-	8	1	18	-	-	-	1	15
1965	129	60	-	-	24	1	32	3	-	-	-	12
1966	107	41	1	1	22	1	18	1	3	-	-	17
1967	159	44	2	3	29	-	31	5	-	1	1	47
1968	174	51	1	1	34	-	41	-	3	1	-	37
1969	208	55	-	-	39	3	57	2	1	-	-	53
1970	277	87	-	1	32	2	57	2	3	2	3	88
1971	259	72	1	-	49	1	50	5	4	3	1	63
1972	192	59	-	8	34	5	38	2	2	-	1	43
1973	210	56	-	1	41	4	47	-	2	-	1	58
1974	170	54	-	-	28	2	42	4	-	-	1	39
1975	180	35	-	1	34	1	46	4	1	-	-	58
1976	165	32	-	-	35	1	44	4	3	1	-	45
1977	246	59	-	-	36	4	68	5	-	3	-	71
1978	249	49	-	-	33	5	76	5	4	-	-	78
1979	291	68	2	-	49	4	58	4	-	-	-	106
1980												

자료: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第3節 大邱直轄市の 市政施策

I. 發展計劃의 樹立과 對話行政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됨에 따라 지역이 확장되고 인구도 증가하여 행정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시에서는 종래의 영남내륙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각종의 시책들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직할

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정방침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長期發展計劃의 樹立

1) 發展計劃樹立沿革

대구는 직할시가 되기 이전인 1971년 1972년에서 1981년 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10년간의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계획은 계획목표년도 인구 170만을 위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도시」, 「생활을 사랑하는 도시」, 「시민이 만드는 도시」를 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 그 후 1975년 1월에 대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이어 동년 3월 대구발전 3개년계획(1975~1977)을 수립하였는데 대구경제개발계획은 1인당 소득 1,000\$ 조기달성과 도시의 경제기반강화 및 경제성장의 지속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구발전 3개년 계획은 80년대 장기비전의 조기실현을 도모하고, 대구시민의 현실적인 생활수요의 최적수준을 설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시계획의 성격을 띠었다.

직할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장기개발계획인 2000년대를 향한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 1991년 말 현재 2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완료 단계에 있다. 양차의 계획목표와 계획내용을 통하여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추적한다.

2) 第1次 大邱長期綜合開發計劃

(1) 計劃의 背景

대구는 직할시 승격을 계기로 기존 2000년대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획의 기본구상과 장기개발지표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1982년에서 1986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기본 바탕은 국가상위계획 정책방향을 지방에서 실천하는 것과 대구의 도시기본여건충실화에 두었다. 상위계획으로는 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2~'86)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82~'91)이 있었다.

이들 계획에서는 ①도시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개발로 균형적인 정주체계를 확립하고 대도시 과밀문제를 해결하며, 도시생활 기본시설을 확충한다는 것과, ②특히 대구를 “제1차 성장거점도시”의 하나로 지정하여 관리기능의 대폭수용, 도시형 산업의 개발육성, 정신,문화적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수도권지향인구의 수용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③정주체계확립을 위해 대구를 전국 5개 대도시 생활권중 “대구대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설정하여 고

도의 중추관리 기능을 부여하고, ④국민기본수요의 충족과 인구자질의 향상, 빈곤의 완화등의 사회발전확대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대구시는 2000년대의 대구상을 ①알맞은 인구의 쾌적한 도시, ②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③풍요한 자연속에 활기찬 도시 및 ④격조높은 문화와 자랑스런 시민상으로 설정하고 주요개발지표는 <表 3-60>와 같이 설정하였다.

主要開發指標				
구 분	단 위	1981년	2001년	증가치
인구	천명	1,777	3,000	1,223
가구	천세대	399	750	351
주택보급	%	54	95	41
상수도생산	만t	35	150	115
상수도보급	%	90	97	7
1인당급수량	l/1일	223	500	277
하수도보급	%	52	95	43
도로율	%	13	22	9
도로축조	%	52	90	38
도로포장	%	40	90	50
공원개발	m/1인	1.3	7.3	6.0
자동차	대/100인	2	10	8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획 제1차 5개년계획(1982~1986), p.10.

(2) 計劃의 基本條件과 計劃目標

대구는 50년대 난민유입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된 인구와 직할시 승격으로 편입된 인구를 합하여 1981년 현재 1,777천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50년대 이후 줄곧 섬유공업을 주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섬유도시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이 섬유에 편중되어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면치 못한다. 섬유경기가 호조를 보인 '77~'78년에는 1인당 시민소득이 1,050\$(전국 944\$)~1,294\$(전국 1,279\$)여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섬유경기가 하락세였던 1979년 1,522\$로서 전국의 1,597\$에 뒤지는 등 지역경제력과 시민소득이 섬유산업의 경기에 좌우되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 ①질서가 정착된 건전한 도시, ②편리하게 정돈된 도시기반, ③현저히 향상된 생활환경, ④생동감 넘치는 지역산업 및 ⑤품위있게 개발되는 시민문화를 개발목표로 하여 <表 3-61>과 같은 개발지표를 설정하였다.

第1次 5個年計劃의 主要開發目標

〈表 3-61〉

구 분	단 위	1981년	2001년	증가치
인구	천명	1,777	2,198	421
가구	천세대	399	511	112
주택보급	%	54	64	10
상수도생산	만t	35	100	65
상수도보급	%	90	95	5
1인당급수량	l/1일	223	400	177
하수도보급	%	52	75	23
도로율	%	13	18	5
도로축조	%	52	62	10
도로포장	%	40	67	27
공원개발	m/1인	1.3	2.0	0.7
자동차	/100인	2	4	2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획 제1차 5개년계획(1982~1986), p.12.

(3) 計劃의 概要

계획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82년에서 1986년 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01년을 목표로한 대구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매 5년 단위의 4차 단계로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간과 싯점을 일치시킨 것이다.

계획사업의 추진은 책정한 시책방향과 단위시책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연차별로 총량 완수를 목표로 하며 다만 당해년도 투자비의 급격한 변동 또는 부득이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는 광범위한 자문과 협의에 따라 연차간 사업의 부분적 축소 또는 확대조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비와 재원은 제1차 기간중 투입될 투자비는 총 2조 61억으로 시(국)비 7,809억과 민자 1조 2,252억으로 계획하며 그중 市費는 81년 투자가용재원을 불변가격으로 하여 매년 약 20%의 자연신장을 추정하여 총 2,525억을 투자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시책의 내용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새 大邱像의 創造 --- 자랑스럽고 질서있는 새시민 사회의 건설
 - ① 자랑스러운 직할시민상의 정립
 - ② 시민존중의 시정풍토 정착
 - ③ 도시새마을운동의 활성화
2. 都市基盤의 再整備 --- 2000년대를 지향한 거대도시의 기반 구축
 - ① 도시계획의 재정비 보완
 - ② 도심불량지구 정비사업의 촉진
 - ③ 교통 간선도로망의 대폭확충 정비

- ④ 편입지역의 특색있는 부도심개발추진
- ⑤ 단위생활권 정비사업의 추진
- 3. 生活環境의 向上 --- 생활기본 여건 충족,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 ① 생활주변도로의 완전 정비
 - ② 주택보급율 64% 달성
 - ③ 상수도 100만t 생산시설 완성
 - ④ 도시배수 및 폐기물처리시설확충
 - ⑤ 공해예방대책의 강화
 - ⑥ 범시민 푸른대구조성운동의 전개
- 4. 市民福祉의 増進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의 확보
 - ① 공공복지시설의 증설과 균형있는 배치
 - ② 서민생활보호시책의 확대 실시
 - ③ 원활한 대중교통체제의 확립
 - ④ 각종 취해의 예방을 통한 시민생활의 안전도모
 - ⑤ 시민소비생활의 보호와 절약풍토의 생활화
- 5. 地域經濟의 活性化 --- 미래지향적이고 활기있는 지역산업의 육성 발전
 - ①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舉市的 추진체제의 구축
 - ② 공업입지 및 구조개편 방안의 연구 추진
 - ③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지역별 적정배치
 - ④ 관광자원의 개발과 레저산업의 육성
 - ⑤ 근교농업의 육성지원
- 6. 教育文化의 振興 --- 품위있는 시민성의 계발과 수준높은 향토문화의 창조
 - ① 사회교육의 확대를 통한 문화시민의 자질함양
 - ② 스포츠 시설의 확충과 건전리크리에이션의 보급
 - ③ 문화시설의 보강과 문예활동의 적극지원
- 7. 行政運營의 發展 --- 직할시다운 행정운영의 정착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 ① 직할시 행정수행체제의 조기 정착
 - ② 행정기반의 혁신과 행정능율의 고도화

(4) 評價

제1차 계획은 직할시로의 승격과 더불어 인구 및 시역확장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 팽창과 질적 다양화에 직면하여 여건불비와 행정적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고 행정조직을 정비개편하

고 지방재정력을 확충하여 증대된 시민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참여시정확대 및 강화를 통한 자율행정과 자력성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함으로써 2000년대의 품위있고 개성있는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하였으나 외곽지 균형개발, 지역경제활성화, 환경오염대책, 노령인구 증가대책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등 부분적 목표달성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第2次 大邱發展 5個年 計劃

당초 계획했던대로 1986년에는 1987년에서 1991년까지의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계획이 그러하였듯이 2차 계획도 장기도시기본계획의 실천 목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1차 계획의 실적과 미흡했던점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보다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질적수준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1) 計劃의 基本與件과 計劃目標

대구는 분지라서 개발가능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심시가지내의 지가가 매우 높으며 산업기반이 약한데다가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다는 입지여건의 제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있는 발전이 추진되면 인근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전국도로망의 경유지로서의 잇점을 살려 유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 제2차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1. 都市體系 및 空間構造

- ① 도시성장관리의 효율화
- ②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 ③ 도시재개발의 촉진

2. 生活環境

- ① 상수도시설확충
- ② 수질보전
- ③ 청소능력의 보강
- ④ 주택보급의 확대
- ⑤ 공원녹지의 개발

3. 都市交通體系의 再定立

4. 産業經濟

- ① 섬유정책의 진로 전환

- ② 고부가가치의 도시형산업의 육성
- ③ 지역특화산업의 개발육성
- ④ 유통산업의 활성화

5. 社會開發

- ① 사회복지
- ② 교육
- ③ 개성있는 도시문화 형성
- ④ 생활체육의 확산

6. 行・財政部門

- ① 자력성장체제의 정착과 행정의 전문화
- ② 자율참여 행정기반의 조성

이러한 발전방향에 맞추어 설정한 2000년대의 대구의 미래상은 한마디로 「품위있고 개성있는 풍요로운 도시」라는 구호하에 ①수준높은 시민의식이 정착된 매력있는 문화도시, ②기반시설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균형발전도시, ③활력있고 특색있는 경제산업도시 및 ④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복지도시로 설정되었다.

2000년대의 미래상실현을 위한 계획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都心, 副都心 및 外廓地의 均衡있는 開發로 特色있는 多核都市化
- 2. 慶釜, 邱馬, 88올림픽 및 中央高速道路의 中心地로 國土의 交通 要衝地帶化
- 3. 都市基盤設施의 擴充, 綠地休息空間의 擴大, 公害對策이 完備된 快適한 都市
- 4. 最新纖維技術의 開發 및 高附加價值産業의 育成으로 先進形 産業都市
- 5. 嶺南內陸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등 中心機能을 修行하는 地域中樞管理都市

(2) 計劃內容

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짜여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의 실적평가를 바탕으로 그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 1. 自律參與 基盤造成 — 행정과 시민과의 의사전달통로의 다양한 확대와 개방을 통한 신뢰행정풍토조성 및 민주시민의식의 함양
 - ① 행정의 위약점까지도 함께 걱정하는 공개행정풍토의 조성
 - ② 시민과의 대화의 폭을 확장하고 의견수렴 통로를 다양하게 개방
 - ③ 위민행정과 봉사행정의 적극적 실천으로 행정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신뢰풍토 정착
 - ④ 시민교육의 내실화와 사회정화운동의 발전적 전개로 민주시민의식 확립

2. 都市基盤整備 — 도시공간구조를 균형있고 특색있게 개발

- ① 균형있는 도시개발의 기반을 구축
- ② 시민의 호응을 유도하여 도시 재개발을 활성화
- ③ 시민의 택지수요 충족

3. 生活環境改善 —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생활기본여건 개선

- ① 환경보전 및 공해 감시체계의 확립
- ② 도시공간 구조에 적합한 녹지체계망의 구성과 시민위락시설의 확충
- ③ 청소능력의 보강과 장기적 쓰레기 처리능력의 확보
- ④ 시민주거생활 안정의 도모
- ⑤ 시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

4. 交通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및 도로체계 개선

- ① 장기적인 교통대책수립으로 폭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
- ② 도심과 외곽지역을 잇는 광역도로망체계의 확립과 남북간도로의 확충 정비
- ③ 생활주변 도로의 포장확충 및 도로시설물 정비로 시민생활편의 도모
- ④ 버스 공동배차제 정착 및 노선의 탄력적 조정

5. 産業經濟育成計劃 — 산업구조 및 유통구조의 개선과 도시실정에 맞는 경제질서의 정착

- ① 공업기반의 내실화와 현대화
- ② 유통구조의 개선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 ③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 ④ 에너지절약 시책의 효율적 추진
- ⑤ 근교 농업육성을 통한 외곽지역 소득증대

6. 社會福祉増進 — 안락하고 건강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의 확대

- ①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의 조성
- ② 노인 및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참여의 유도과 복지대책 강구
- ③ 의료시혜 및 의료보장의 확대
- ④ 부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시설 확장

7. 文化, 教育, 體育振興 — 품위있고 즐거운 시민의식의 교양과 지방문화, 교육,

체육의 진흥

- ① 지방문화시설의 확충과 문예창작활동의 적극 지원
- ② 시민교육의 확대로 지역발전에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의식함양

- ③ 스포츠의 생활화를 장려하고 스포츠 레저시설 확충
- 8. 地域防衛・防災 — 시민의 안전과 평온을 위한 재해 및 위기 대응태세 확립
 - ① 화재, 재난,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조치체계와 능력보강
 - ② 비상시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 9. 行政運營計劃 — 민간부문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는 대도시 관리능력의 향상
 - ①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정조사 연구체제의 확립
 - ②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행정전산망 확충 및 최신통신체제의 구축
 - ③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청사 및 근무환경의 개선
- 10. 財政

4) 各種 研究와 資料의 活用

시에서는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특색있는 시책을 중점 개발하는 외에도 매년 1회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연구논문을 공모하여 《市政研鑽》誌를 발간하고 시정연구위원과 시정연구반원들의 연구업적을 《市政研究》지를 통하여 발간하고 있다. 이는 시정발전의 합리적 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991년 7월 1일에는 직할시 승격 1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시정의 주요성과를 토대로 《直轄市政 10年》을 발간하여 시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988년 부터는 《市政白書》를 발간하고 있다. 시정백서는 1988년 1권이 발간된 후 잠시 공백이 있다가 1992년 부터 다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 각종자료의 원활한 공급과 활용을 위하여 시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처리의 합리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이를 토대로 합리적행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1년에는 총 용역비 8,640만원에 7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자료실은 1991년 말 현재 13,915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이용인원은 5,505명에 10,814책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1년 6월 18일 대구시 및 경상북도와 대구은행을 비롯한 지역경제계의 기금출연으로 재단법인 대구권 경제사회 발전연구원(92년 6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을 설립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5) 姉妹都市 交流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행정도 국제도시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역여건과 규모가 비슷한 선진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이 그 하나인데 대구시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및 소련 카자흐공화국 알마아타시와의 자매

결연등을 추진하였다.

① 아틀란타시와의 姉妹結緣

아틀란타시와의 자매결연은 1980년 4월 29일 아틀란타시 거주 대구 출신 교포 강석영씨의 제의를 시가 받아들여 동년 8월 14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 아틀란타 한국 총영사를 경유 아틀란타 자매결연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아틀란타시와의 교류는 두 도시간의 이해증진과 우의를 바탕으로 ㉠韓國 近代史 史料 發掘(구한말 고종황제의 典醫였던 애비슨 박사의 궁중일기를 조지아주 문교행정책임자이자 아틀란타시 자매결연위원인 그의 손녀 크라우드포드여사가 자매도시 결연기념으로 1982년 6월 대구대학교의 총장방문시 대구대학교에 기증함), ㉡友情的 使節團 相互訪問, ㉢姉妹都市間 合作會社 設立(82년 대구 화성산업사와 아틀란타 CTR사 및 양도시 민간인의 참여로 주방기구 개발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한 합작회사를 아틀란타시에 설립하여 향토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이 됨), ㉣大邱 輸出 商品 아틀란타 展示會 參加(82년 7월 5일에서 15일까지 아틀란타 국제상품전시회에 대구의 7개 기업체가 수출상품을 전시함으로써 아틀란타 진출기반조성과 중남미 진출 전진기지로서의 교두보확보), ㉤大邱 源花女高-아틀란타 페이스 아카데미 姉妹結緣, ㉥兩都市 市長 相互訪問등의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② 알마아타시 및 기타

알마아타시와의 자매결연은 1990년 양도시의 경제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상설 무역사무소를 추진중이며, 섬유산업의 선진도시인 이태리 밀라노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하여서도 노력중이다. 밀라노시와의 교류는 89년 4월 당시 박성달 시장이 밀라노를 공식 방문하여 양 도시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폭넓은 교류 협력의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남미 4개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지역수출 상품의 현지 순회전시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2. 施政方針의 變化

대구직할시는 1981년 7월 1일 부터 1992년 말 까지 6명의 시장이 재임하였다. 매 시장이 부임할 때마다 새로운 시정방침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각오로 행정을 수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초대 鄭採鎭 시장에서 부터 6대의 李海鳳 시장에 이르기까지의 시정방침과 중요 업무계획을 살펴 봄으로써 그간의 시정시책의 특징변화를 살펴본다(表 3-62). 80년대의 국정지표는 ①민주주의의 토착화 ②복지사회의 건설 ③정의사회의 구현 ④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었음을 참고로 밝혀둔다.

市政方針의 變化

〈表 3-62〉

연 도	시 정 구 호	시 정 방 침	시 정 방 향 과 중 점 시 책
1981①	밝은 새시대 복지대구 건설	-시민편의 증진- 1. 대민봉사의 쇄신 2. 도시환경의 향상 3. 시민생활의 안정 4. 지역산업의 발전 5. 향토문화의 개발	——'81년 시책방향—— 시민생활의 편의 증진 도시기반의 정비강화 서민생활의 안정보호 지역경제의 활성화 향토문화의 보존발전 새시대 시민상 구현
1981②	활기찬 새대구 금지높은 시민	-화합·전진- 1. 시민존중의 봉사 2. 균형있는 도시개발 3. 지역경제의 활성화 4. 건강한 시민질서	
1982	-상동-	-상동-	——정부시정목표의 지방적 실천—— 화합·안정·전진 ↓ ——'82 시정과제—— 경제안정과 활성화 3대 부정적심리 추방 올림픽 대비 시민의식 개혁 ↓ ——'82 중점방향—— 참여시정의 확대 생활환경의 대정비 현장위주·주민공감
1983	밝은 거리 푸른 도시 질서있는 시민	1. 생활환경개선 2. 지역산업 진흥 3. 도시질서 정착 4. 문화복지향상 5. 책임행정구현	새시대 시민상 구현 ——'83 시정방향—— 시민의식의 선진화 균형있는 도시개발 ——'83 역점시책—— 물가안정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공원·녹지의 개발 사회복지의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화체육의 진흥 ——선진 새대구의 건설——

1984	밝은 거리 푸른 도시 질서있는 시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환경 개선 2. 지역산업 진흥 3. 도시질서 정착 4. 문화복지 향상 5. 책임행정 향상 	<p>—— '84 시정방향 ——</p> <p>국정방향의 지방책임 완수</p> <p>안정·질서·도약의 새대구</p> <p>선진대도시기반의 개발조성 제65회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p> <p>↓</p> <p>—— 주요시책 ——</p> <p>선진시민의식의 함양 시민복지의 증진 대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녹지공간의 개발 지역경제력의 향상 전국체전준비의 철저</p> <p>↓</p> <p>정의 복지의 선진조국 창조</p>
1985①	밝은 거리 푸른 도시 질서있는 시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환경 개선 2. 지역산업 진흥 3. 도시질서 정착 4. 문화복지 향상 5. 책임행정 향상 	
1985②	궁지높은 시민 건강한 도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시정 확대 2. 생활편의 증진 3. 도시기반 완비 4. 지역산업 육성 5. 문화시민상 정립 	<p>—— '85 시정방향 ——</p> <p>안정과 발전</p> <p>화합·신뢰사회의 구현 시민생활환경의 집중개선 장기, 전략적도시기반 시설확충</p> <p>↓</p> <p>—— 역점시책 ——</p> <p>화합·안정기반의 강화 시민생활복지의 증진 대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녹지·휴식공간의 개발 지역경제력의 향상 문화·체육의 진흥 사회안녕질서의 확립</p>
198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시정 확대 2. 생활편의 증진 3. 도시기반 완비 4. 지역산업 육성 5. 문화시민상 정립 	

1987	건강한 도시 신뢰받는 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정이 다져진 지역 2. 미래를 내다본 개발 3. 활기가 넘치는 경제 4. 전통이 숨쉬는 문화 5. 민의를 받드는 시정 	<div>제2차 대구발전 5개년 계획</div> <div>다핵도심권 건설 교통요충지화 쾌적한 도시건설 선진형 산업도시 건설 중추관리도시화</div> <div>↓</div> <div>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효율적 재배치 시민생활의 기초수요 확충 시민복지의 증진 특색있는 지역경제질서의 안착 주체적 시민문화의 계승발전</div>
1988 1989	-상동- 참여하는 시민 희망찬 도시	<div>-상동-</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질서의 정착 2. 서민생활의 보호 3. 지역경제의 진흥 4. 지역경제의 진흥 5. 향토문화의 창달 	
1990	-상동-	-상동-	<div>10대 주요사업</div> <div>지하철 건설 신천대로 건설 서변 I.C 및 서변대교 건설 금호강계통 상수도 확장 금호강, 신천 종합개발 신천하수 처리장 건설 쓰레기 소각장 건설 성서공단 조성 국립 대구박물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div>
1991	새 질서 새 생활 새대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행정 2. 화합안정 3. 서민복지 4. 경제진흥 5. 도시개발 	<div>새질서 새생활의 질적 향상</div> <div>지역경제 진흥과 물가안정 지역화합과 자치역량 제고 서민복지의 증진 도시교통난 완화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개성있는 문화·체육의 창달</div>

비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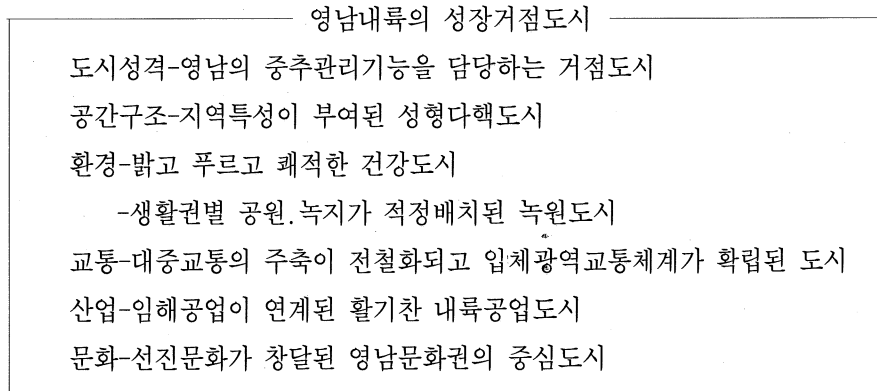
鄭採鎭(1981. 7. 1 - 1982. 5. 2), 李相熙(1982. 5. 3 - 1985. 2. 20),
李相淵(1985. 2.21~1987. 4.29), 朴培根(1987. 4. 30 - 1988. 12. 12),
朴成達(1988. 12. 13 - 1990. 12. 27), 李海鳳(1990. 12. 28 - 1992. 4. 21)

자료: 대구직할시, 시정현황. 업무계획 각연도

* 참고-①②는 시장이 바뀌어 시정현황이 두번 발간된 경우임.

시정방침은 대체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마련되고 있으며 해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정방침을 통하여 살펴본 바로는 대구는 점차 민주화 복지화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로서의 포부도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5년에는 제1차 발전계획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2000년대의 대구상을 강조하고 여기에 부응하는 시정시책을 펴고자 노력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85년에 제시한 2000년대의 대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적정규모의 인구를 포용한 살기좋은 대도시

3. 對話行政과 市政參與

1) 對話行政

민주사회는 중앙의 통제로 부터 지방의 자치로, 관의 주도로 부터 민간의 참여를 통한 시정으로 전환될 때 더욱 성숙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대화행정은 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시민에게 알려 민·관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로 추진되는 시민참여 행정시책의 하나이다.

경우에 따라 참여통로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를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자기몫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계층간의 갈등해소를 통해 시민화합의 공감대를 확산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전공무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업무추진에서는 물론 일반 사회생활속에서도 시민과의 대화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행정신뢰 분위기조성에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화의 방법은 시장과 시민간의 간담회, 시민초청대화, 사랑방순회대화, 생활현장대화, 시민내방대화, 전화대화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화의 대상은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을 젊은층, 부녀층, 소외계층, 여론조성 및 지도층으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981년 부터 1990년 까지 실시된 대화실적은 총 155,368회에 2,221,975명이 참여하여 65,45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은 29회에 508,000명이 참여하여 12,217건의 건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의사항의 처리는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즉시처리하고, 장래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약속하며, 반영불가능한 것은 불가통보를 하는 것 등으로 처리하였다.

2) 班常會

(1) 班常會 開催 現況

반상회는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근린사회 주민조직으로 이를 통하여 주민들 끼리 협동하는 정신을 기르고 공동관심사를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행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정부시책을 올바르게 이해케하여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광장으로 활용되는 대화행정의 한 장이다. 오늘날 전통적인 인보정신이 점차 퇴색되고 고층아파트의 보급으로 주거환경이 이웃과 차단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반상회를 통한 이웃간의 교류기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과거 농촌에서 전통적인 주민조직의 형태로 존재하던 반상회가 비교적 근대적인 모습으로 도시에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76년이다. 당시 불붙기 시작하던 도시새마을 운동의 모체로서, 또 활착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초기에는 이웃 친하기와 상호협동 등 주민공동관심사항 해결을 주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시작초기에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홍보에 주력한 결과 관주도의 주민조직이라는 선입견과 습관화된 도시생활의 공동생활의식의 결여로 참석율이 저조하였다. 그러나 점차 정부시책이나 공지사항의 전달 일변도에서 자발적인 건의와 토론식의 회의개최를 유도하고, 주민들 또한 도시생활에서 인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해를 거듭할 수록 참석율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팽배하는 개인주의의식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노출을 기피하고, 생활문화수준의 향상으로 개인생활이 복잡하고 바빠진 영향으로 일정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개최하는 모임인 반상회의 참여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연평균 참석율은 <表 3-63>와 같다. 반상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중 건의에 해당되는 사항은 구청을 통하여 시에 접수되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하고 당장 불가능한 것은 검토하여 장래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1981년 부터 1990년 까지 접수된 총 건의사항은 34,138건이며, 그중 해결한 것은 29,238건으로 평균 85.7%의 해결율을 보이고 있다.

처리한 29,238건의 건의사항을 내역별로 분석하면 보건위생과 도로교통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사회참석 현황과 건의사항 처리내역의 분포를 <表 3-63>과 <表 3-64>에 제시한다.

<表 3-63> 班常會 參席現況(年平均)

연도	평균	1976	1977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9	1990
참석율	87.8	84.1	87.7	88.4	88.2	88.7	88.9	86.7	86.1	89.8	85.9	85.5

자료: 시정과

<表 3-64> 班常會 建議事項 處理內譯

구분	계	보건 위생	도로 교통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건설 건축	영농	산림	기타
구성비	100	19.8	19.6	10.7	7.9	13.1	8.4	1.2	0.1	18.6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875.

(2) 班常會의 發展

반사회가 회를 거듭할 수록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평가 아래 반사회적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81년 7월에는 직할시의 출범과 함께 반구역을 조정하여 11,355개였던 반의 수를 13,118개로 늘렸으며, 반사회의 전담기구로서의 여론계를 신설하였다. 10월에는 내무부의 반사회활성화 추진방침에 따라 세대주중심 반사회를 유도하고, 전공직자는 거주지 반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각 기관단체장들이 취약지반사회에 순회참석함으로써 반사회운영에 활기를 띠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반사회의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반사회여론청취상황실을 구청별로 운영하는등의 조치도 취하였으나 이것이 도리어 주민통제기구화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와서는 반사회를 주민과 좀 더 친숙한 조직으로 만들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1989년 10월 부터는 반사회시 배포하던 반회보의 제작 발행을 구청에서 하도록 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반회보를 만들도록 하였으며 1990년 2월 부터는 반회보의 명칭도 「내고장 소식」등으로 다양하게 붙이도록 하였다. 또한 반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모범통반장을 선별표창하며 산업시찰과 자녀장학금지급등의 복지제도도 실시중이다. 80년대 후반의 반사회는 민주사회의 주민참여 조직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정착화시키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새마을 운동

초기의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중심으로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시작하여 정신계발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어졌는데 대도시의 경우는 도시가 지니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농촌과 동시에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 5월 18일 전국 새마을 소득증대추진대회시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우리민족의 일대 약진운동이다. 범국민운동이 되어야 한다.” 하는 지시에 따라 도시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도시새마을 운동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대구의 경우도 이에 발맞추어 도시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勤儉」, 「節約」과 「隣保」, 「協同」으로 직장·지역·가정·학교등 4개분야로 나누어 선진 문화 시민상을 정립하기 위해 질서·친절·청결운동과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전시역 공원화 운동, 자연정화활동 및 건전사회기풍확립을 위한 인보협동운동등을 중점추진하였다.

직할시 승격후 10년간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官主導 새마을 운동에서 민간주도 새마을 새마을 운동으로 그 추진주체가 바뀌었으며, 시에서는 민간주도 새마을 운동의 자치능력 배양에 힘을 기울여서 이를 지역단위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동·통단위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다.

이 시기의 새마을 운동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관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특히 '86년의 아시아 경기대회 및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통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최근의 새마을 운동은 민주화 개방화 물결에 편승한 각종 무질서, 범죄, 사회병리현상의 퇴치를 위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발전하고 있다. 도시새마을 운동과 공장새마을 운동으로 나누어 그간의 성과를 살펴본다.

1) 都市새마을 운동

도시새마을 운동은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과 직할시민으로서의 선진시민상구현 및 인보협동정신고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는데 시에서는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도자 육성과 유공자표창 및 새마을 단체지원등을 하였다.

(1) 새마을 운동 支援

① 새마을 組織現況

도시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수행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주민조직의 구성과 知德을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의 역량 및 지역주민의 단합에 달려 있다. 대구시의 새마을 조직과 지도자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직할시 초년인 1981년에 250개이던 조직수가 1990년에는

316개로 늘어났으며, 지도자 수도 7,271명에서 10,937명으로 늘어났다(表 3-64). 이는 민간주도로 추진주체가 변경된 후에도 그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表 3-65〉 새마을 組織과 指導者의 增加

구분 연도	계		지 역		부 녀		직 장		문 고		금 고		공 장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조직	지도자
1981	250	7,271	117	2,396	117	2,396	7	138	1	120	1	196	1	2,025
1986	300	9,167	142	2,784	142	2,784	7	819	7	131	1	166	1	2,483
1990	316	10,937	149	3,211	149	3,211	8	782	8	172	1	164	1	3,397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851.

② 支援事業

새마을 지도자들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단합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들의 士氣振作을 위하여 지도자의 표창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및 자금지원등을 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표창은 각종의 훈포장 및 표창으로 나누어 지는데 표창수가 1988년 이후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제 6공화국시절의 과거에 대한 평가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진 80년대 중반기까지의 새마을 운동의 진로 및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작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설치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새마을 운동 자체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재평가작업후 새마을 운동은 국민정신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 받아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으며 90년대에는 다시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운동 유공자 표창 현황을 〈表 3-66〉에 제시한다.

〈表 3-66〉 새마을 有功者 表彰 現況

연도	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계	203(16)	109(4)	44(10)	50(2)
1981	15(2)	9(1)	3(1)	3
1982	21(2)	15(1)	2	4(1)
1983	27(2)	16(1)	5(1)	6
1984	36(3)	19(1)	6(1)	11(1)
1985	28(2)	16	5(2)	7
1986	21(2)	13	4(2)	4
1987	35(3)	16	12(3)	7
1988	7	1	3	3
1989	4	1	1	2
1990	9	3	3	3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852.

(훈·포장은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및 포장이 포함된 것임), ()안은 공무원 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은 1984년 부터 시작되었는데 1984년에는 24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1990년에는 429명에게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지급하였다. 지원범위는 1986년 까지는 소수단체에 한정하였으나 1987년 부터는 동협의회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84~90 까지의 총 지급액은 491,774천원이다.

한편 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지부와 구지회 및 동협의회와 부녀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그 현황은 <表 3-67>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3-67> 새마을 團體 豫算 支援 現況 (단위:천원)

구분	계		시 지 부		구 지 회		동협의회(부녀회)	
연도	단체	지원	단체	지원	단체	지원	단체	지원
계		1,694	274,812	686,000	734,160			
1982	1	18,000	1	18,000				
1983	1	53,400	1	53,400				
1984	7	97,600	1	25,600	6	72,000		
1985	7	113,150	1	29,150	6	84,000		
1986	7	113,000	1	29,000	6	84,000		
1987	279	232,250	1	24,000	6	96,000	272	112,250
1988	279	269,782	1	29,262	7	112,000	272	128,520
1989	282	319,590	1	27,200	7	91,000	274	201,390
1990	290	468,200	1	39,200	7	147,000	282	282,000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853.

(2) 새마을 事業

① 精神教育

도시 새마을 운동은 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토대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되는 시민운동으로 시민의 정신력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에 시에서는 선진시민상구현을 목표로 새마을 지도자, 사회지도층인사, 청소년, 공무원, 서비스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새마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은 합숙교육과 비합숙교육으로 구분 도시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개발 촉진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 10년간 교육을 받은 시민은 총 1,604,839명이며, 합숙교육 68,908명 비합숙교육 1,535,931명을 실시하였다.

② 環境改善

위생적이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꾸미기 위하여 마을안길포장, 하수도 설치, 가로광고물정비 및 전지역공원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도로포장 하수도설치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1년에서 90년 10년간 총 사업건수는 3,090건의 사업을 시비 14,707백만원, 주민자부담 4,518백만원 총 19,225백만원을 들여 실시하였다.

거리환경정비를 위한 간판정비 및 광고물 정비는 10년간 총 632,951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원화 사업은 노변 꽃길 조성, 가로화단조성, 소공원조성, 울타리미화등으로 85년 부터 90

년 까지 총 7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③ 所得支援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보다 풍요한 생활을 영위키 위한 주민들의 동기유발사업이다. 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을 1983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일반소득사업지원과 우수농고생장학금지원 및 화훼기술육성자금지원으로 나누어 1983년 부터 1990년 까지 총 2,788가구에 4,58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④ 奉仕活動 및 其他

질서, 친절, 청결로 특징지워지는 3대시민운동과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인보복지운동을 통하여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도록 하였는데 3대시민운동에 참여한 회원수는 84년에서 90년 까지 총 10,908명이며, 불우이웃돕기는 83년부터 90년 까지 총 44,639명에 254,654천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돕기는 87년 부터 90년 까지 478명에 55,320천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새마을 알뜰시장개설을 통하여 과소비억제에 기여하고, 각종 자원을 수집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근검·절약의 새마을 정신구현에도 기여하는 활동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봉사활동과 더불어 새마을 운동의 목표, 성공사례 및 성과를 전국민에게 소개하고 전파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광범하게 확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촉진하는 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새마을 운동의 이념과 필요성,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방법과 기술, 성공사례, 새마을운동의 종합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새마을 순회봉사는 82년 부터 90년 사이에 총 2,666회를 실시하였으며, 추진대회·옹변대회·강연회등의 새마을 추진행사는 83년 부터 90년 까지 총 410회를 실시하였고 참여인원은 154,386명이었다.

지역주민의 인보·협동운동과 화합기풍조성을 위하여 시에서는 새마을 금고와 새마을 독서실을 적극 육성하고, 시민자율참여유도와 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해 새마을 봉사대상을 수여해 왔다. 1990년 현재 새마을 금고총수는 164개이며, 새마을 봉사대상은 89년과 90년 각 2명에게 수여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1백만원씩을 지급하였다.

2) 工場 새마을 運動

공장새마을 운동은 노사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창의적인 노력으로 기업의 성장과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분임조활동을 통한 공정 개선, 물자 및 에너지 절약과 품질개선제안등의 생산성 향상, 종업원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확대, 일체

감조성을 위한 각종단합행사등이 주 활동내용이다. 이들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추진조직회의, 대구지역공장협의회, 공장새마을 세훈회, 공장새마을 해연회, 공장새마을 지도자협의회, 공장기숙사사감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회, 지방분임협의회등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장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교육은 83년 부터 90년 까지 연수교육 16,047회, 순회교육 116,211회, 설명회 5,146회 등 총 137,404회가 개최되었다.

Ⅱ. 經濟行政

1. 大邱의 經濟力

1) 經濟活動人口

1991년말 현재 대구의 인구는 2,282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인구밀도는 4,891명으로 서울 17,554명, 부산 7,220명, 인천 5,802명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9.8%('85~'90)이다. 그중 경제활동인구는 942천명이고, 취업률은 96.5%이다. 이는 1981년에 비하여 경제활동인구는 1.4배, 취업자는 1.5배가 증가한 것이다. <表 3-68>에 이들의 변화를 요약한다.

<表 3-68> 經濟活動人口의 變化 (단위:천명)

구 분 연 도	노 동 가 능 인 구(15세 이상)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참가율	취업자	취업율	실업자	실업율	
1981	1,279	569	44.5	522	91.7	47	8.3	710
1986	1,501	705	45.0	667	94.6	38	5.4	796
1991	1,669	942	56.7	909	96.5	33	3.5	718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및 《대구통계월보》

2) 産業別 就業狀態

취업인구의 산업별 구성비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1차산업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2차 산업종사인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1년에 비하여 농림수산업종사자는 5.1%에서 1.9%로 떨어지는 대신 2차 산업종사자는 31.9%에서 33.9%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변화 추세를 <表 3-69>에 요약한다.

〈表 3-69〉 産業別 就業者 推移 (단위:천명)

연도	계	농림수산업	%	광공업	%	사회간접자본,기타	%
1981	522	27	5.1	166	31.9	329	63.0
1986	667	23	3.5	227	34.0	417	62.5
1991	909	17	1.9	307	33.9	585	64.2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및 《대구통계월보》

3) 市民總生産과 1人當 所得

60년대 이래의 지속적인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결과로 국민총생산과 지역총생산 및 1인당 소득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81년 시민 총생산(GRP)은 1조 9,367억원이었으나 1986년에는 3조 8,037억원으로 거의 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민총생산액의 4.2%에 해당된다. 1991년의 지역총생산은 9조 8천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경제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表 3-70〉에 비교한다.

〈表 3-70〉 地域總産業과 市民所得

구분 연도	국 민 총 생 산 (GNP)		시민총생산 (GRP)	전국비중	국민소득	시민소득
	경상가격(억원)	성장율(%)	(억원)	(%)	(천원)	(천원)
1981	455,281	5.9	19,368	4.3	1,181	1,053
1986	905,987	12.9	38,088	4.2	2,207	1,819
1991	2,007,500	17.3	98,550	4.7	-	-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41, 대구직할시, 《21세기를 향한 대구장기발전구상》, 1992, P.60.

2. 農·畜産業

1) 農畜産業現況

(1) 耕地面積과 農家人口

대구는 내륙도시로서 극소수의 내수 면어업을 제외하고는 어업인구는 없으며,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농축산업종사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구경제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

〈表 3-71〉 耕地面積과 農家人口의 推移

연도	경 지 면 적			농가인구 (명)	농가호수 (호)	호당면적 (ha)
	계	田	畓			
1981	8,180	3,453	7,427	77,448	13,377	61.4
1986	7,504	3,244	4,260	37,117	7,704	97.4
1990	7,286	3,567	3,719	28,871	6,579	110.7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및 《대구통계월보》

이다. 1981년에 8,180ha였던 경지면적이 1990년도에는 7,493ha로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 호수도 3.2%에서 1.15%로 줄어들었다. 다만 호당 경지면적은 81년의 6.41ha에 비하여 90년에는 110.7ha로 거의 두배나 증가하고 있다. 경지면적과 농가인구의 변동상황을 <表 3-71>에 제시한다.

(2) 食糧과 園藝作物의 生産

경지면적과 농가인구가 줄어들어 따라 식량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원예작물만은 근교농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술보급등으로 재배면적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식량생산 실적과 원예작물생산실적을 <表 3-72> 및 <表 3-73>에 제시한다.

<表 3-72> 園藝作物生産

구분 연도	菜 蔬			果 樹		
	面積 (ha)	段數 (kg)	生産 (m/t)	面積 (ha)	段數 (kg)	生産 (m/t)
1981	1,782	3,014	53,699	1,261	1,163	14,658
1986	2,716	2,603	70,695	1,496	1,382	20,676
1990	999	-	37,633	1,099	1,219	13,399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및 《대구통계월보》

<表 3-73> 食糧生産 推移 (단위: 면적=ha, 생산량=m/t)

연도	合 計		米 穀		麥 類		豆 類		薯 類		雜 穀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1981	6,107	20,415	4,078	16,519	1,634	2,909	326	454	49	490	19	44
1986	4,625	17,082	3,783	15,630	643	1,302	202	295	34	117	8	8
1990	3,863	14,865	3,305	13,250	291	686	231	493	28	426	8	10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45.

(3) 畜産現況

농지면적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고, 도시기반시설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도시내에서의 가축사육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축산업 역시 농업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시에서 도심지에서의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등 환경공해발생을 막기위하여 가축사육금지지역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을 변두리지역으로 이전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가축사육 호수는 줄어들었어도 전업양축농가형태가 늘어 호수별 가축사육두수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表 3-74> 및 <表 3-75>에 제시한다.

<表 3-74> 家畜飼育 農家推移 (단위: 호)

연 도	한 우	젖 소	• 돼 지	닭
1981	3,806	232	605	1,695
1986	1,886	206	958	414
1990	1,308	179	461	375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47.

〈表 3-75〉

家畜飼育頭數

(단위:마리)

연도	한우	젖소	말	돼지	산양	토끼	닭	개	사슴
1981	5,254	2,078	25	22,590	347	8,863	1,042,266	15,588	-
1986	8,341	2,260	19	27,453	401	3,369	501,090	11,006	203
1990	7,694	2,404	41	18,379	528	479	188,943	16,837	279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547.

2) 農水産物の 需給과 流通

(1) 農業生産支援施策

70년대 이전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단위당 생산량제고가 주된 시책이었으나 80년대에는 국민식생활 기호에 맞는 양질미의 생산과 농촌인력부족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및 공동작업, 위탁영농의 추진등으로 시책이 전환되었다. 또한 식생활이 주곡위주에서 채소, 과일 및 육류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도시인들의 기호에 알맞는 저공해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공급하기 위한 품종개량, 노후시설 개체, 시설현대화로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 UR에도 대비하고, 농가소득도 보호하는 시책으로 전환한것이다.

한편 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대형 신기종 기계의 개별구입이 어려워 기계이용율이 낮고, 영농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활용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농가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계화영농단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1987년 부터 91년 까지 68개소에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하여 1,266호의 농가가 참여하고, 트랙터 외 13종 12,660대의 농기계가 보급되었다. 향후에도 신규영농단조직과 기계구입보조금 지원 외에도 기술교육 및 순회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2) 糧穀管理

① 糧穀消費趨勢

시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유형의 변화로 점차 곡류위주의 식생활에서 육류와 채소등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양곡의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간 양곡소비량이 80년대초에는 195.5kg이던 것이 현재는 170.6kg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구성비에서도 쌀은 연간 1인당 131.4kg에서 117.1kg으로 10%감소되었으나, 보리쌀은 10kg에서 1.4kg으로 무려 91%가 감소하였다.

② 糧穀收買와 政府糧穀의 供給

직할시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경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양곡생산은 감소되어 왔으나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80년대초 5천여만석수준의 수매량을 현재는 23백만석수준으로 확대하였

다. 그러나 정부양곡재고량의 증가와 양특예산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수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이 연간 소비하는 270만석의 양곡은 전국 양곡연합회 대구지회산하의 2,700여개 소의 양곡상을 통하여 공급된다. 종전에는 통일벼 위주의 양곡공급을 하였으나 1990년 5월부터는 일반미도 무제한 공급함으로써 양곡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하는 한편 시민의 식생활의 고급화에도 부응하고 있다.

③ 都市零細民을 위한 糧穀貸與

생활이 어려운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980년 부터 1년 단위의 무이자 양곡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農水産物の 流通構造改善

시민소비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1984년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하여 88년 북구 팔달동 일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모두 4차에 걸친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1차로 농수산물동을 88년 10월에 개장하였으며, 2차로는 92년 까지 농산물과 그 관련상가와 건어물동 및 부대시설을 구비할 계획으로 있고, 3차로는 93년 까지 수산물동을 4차로는 역시 93년 까지 농산물동을 늘일 계획이다.

3) 畜産物の 需給과 流通

(1) 畜産物の 需給

곡물의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 육류의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여 이의 안정적 공급이 시정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게 되자 시에서는 유통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육류의 소비량은 쇠고기가 1981년 28,823마리이던 것이 1990년에는 50,844마리로 76%가 증가하였으며, 돼지고기는 66,444마리에서 296,836마리로 450%나 늘어났다. 특히 1987년에는 육류공급량부족으로 쇠고기 파동이 일어나 쇠고기의 수입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수입량이 점차 늘어 1990년에는 총 수급량 50,844마리의 36%를 차지하게 되었다.

(2) 肉類流通施設の 擴充

육류의 소비증가는 육류공급량의 절대량을 확보하는 외에도 원활한 수급을 위한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필요로 한다. 현재 시에는 하루 소 48마리와 돼지 33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1개소의 屠畜場과 하루 24백만 마리의 닭을 처리할 수 있는 3개의 屠鷄場을 확보하고 있으며, 90년 부터 도축장의 시설현대화와 시설증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서구 내당4동 382-4에 농사산물도매시장 축산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정도매인 신흥산업(주)가 1981년 4월 1일 부터 2001년 3월 31일 까지 대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소 160마리, 돼지 800마리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에서는 가축의 밀도살, 부정육 취급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육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단속·정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 농정과 및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 부정축산물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닭은 신미식품, 유성브로일러, (주)대경등의 3개 도계장에서 각 하루 25,000마리의 처리능력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는데 시민보건향상 및 환경위생에 기여하고 계육의 수급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

(3) 家畜衛生

① 疾病豫防

가축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가축질병 예찰협의회를 구성하여 畜種별로 가축 질병예찰거점농가를 지정하여 9명의 公獸醫가 연 1,200회 이상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염병 검진과 예방주사 및 만성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줄여주고 농가의 소득증대는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② 家畜衛生試驗所

1988년 8월 2일 가축위생시험소의 설치조례가 공포됨으로서 동년 12월 1일 수성구 지산동에 가축위생시험소를 개소하여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축산물의 위생검사 및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4) 飼料의 生産과 供給

가축사육두수의 증가로 사료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과거의 자연사료사용에서 인공사료위주로 사육방법이 바뀔에 따라 사료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품질관리강화등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86년에는 배합사료공장 1개소, 90년에는 단미사료공장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생산량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1년에 114,894t이던 생산량이 90년에는 303,576t으로 무려 265%의 증산을 가져왔다. 이로써 대구시는 물론이고 경북일원의 축산농가에도 원활한 사료공급을 하고 있다.

3. 工業

1) 産業構造와 工業興件

대구경제는 전체적인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1차 산업이 1.9, 2차 산업이 33.9, 3차 산업이 64.2%를 차지하고 있어 3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도시형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로서의 중추관리기능수행에 필요한 금융, 정보, 통신 수출서비스 기능은 미흡한 반면 음식숙박업과 미용업등의 비중이 높은 소비형구조를 띠고 있어 약간의 문제점을 내포하기도 한다. 2차 산업의 경우는 1940년대 부터 근대적인 섬유공업이 발달하여 지역수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는 내륙의 분지에 위치하여 주변에 농업이외의 특별한 자연자원이 없으며, 주변 농업지역에 풍부한 노동력을 대량흡수하여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발달을 가능케하고, 교통의 중심지로서 주변 동남권의 중핵도시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어, 구미, 마산, 창원, 포항, 울산의 공단과 공업벨트를 형성하여 공업의 중심밀집적지로서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구는 60년대부터 국가의 중점적인 공업화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계획적인 공단조성을 하지 못한 까닭에 80년대에는 공장과 주택, 상가등이 무질서한 혼재현상을 일으켜 비공업지역에 총공장의 26.9%가 들어서게 되어 쾌적한 공업단지조성이 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내륙에 위치한 까닭에 공업단지 재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업용지부족은 공장규모의 영세과밀화 현상을 낳게하여 생산성향상의 저해요인이 되며, 유통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는 공업단지재배치로 토지이용율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시켜 고부가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工業의 發達과 現況

(1) 工業構造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업의 발달은 193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대구는 정미업, 연초제조업, 제사업이 당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일제말기에는 생사, 직물, 내의등의 업종비중이 높아져 대구공업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때부터 섬유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후에는 직물업이 지역의 주요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농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금속공업도 일어나기 시작하여 공업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게 된다. 6·25를 겪는 동안에는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70%가 戰禍를 입었음에도 대구는 전쟁의 직접피해를 입지않은 까닭에 전쟁중 병참

기지역활을 수행하여 지역의 직물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50년대말에는 대구직물공업이 전국직물업의 60%를 점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공업도시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으나 60년대 이후 국가의 대외지향적 공업화전략과 70년대의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 및 전략산업의 臨海지역집중육성은 대구의 공업발전 중심역할을 약화시켰다.

80년대에 와서도 수출시장에서의 국제경쟁 격화와, 국내의 단순노동력의 고갈 및 그로 인한 노임상승압력의 가중등이 지역공업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섬유일변도의 단선적인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1980년 후반부터 섬유편중의 단선적인 산업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성서과학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유망전략업종인 정밀전자, 정밀기계, 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대내외경쟁력 제고 및 지역잠재력이 최대한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0년대와 80년대의 공업성장추이를 공장수와 종업원수를 통해 비교하면 <表 3-76>와 같다.

工業成長推移 (단위: 기업체수, 명)

〈表 3-76〉

구분 연도	계		섬 유		기 계		화 학		기 타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공장	종업원
1969	2,254	72,236	1,076	44,251	589	14,066	108	2,422	481	11,497
비율	100	100	47.7	61.3	26.1	19.5	4.8	3.4	21.3	15.9
1979	2,966	133,069	1,291	82,722	890	28,943	276	9,656	509	11,748
비율	100	100	43.5	62.2	30.0	21.8	9.3	7.3	17.2	8.8
1989	4,655	176,791	2,054	97,041	1,623	52,220	296	6,584	682	20,940
비율	100	100	44.1	54.9	34.9	29.5	6.4	3.7	14.7	11.8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60.에서 계산

(2) 纖維工業

대구지역은 실, 직물, 메리야스이외에도 염색가공, 연사, 加糊, 봉제등 소재부문에 이르기까지 여러업종을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 섬유공업단지이다.

특히 합섬 강연사직물은 세계최대의 산지이며, 직물로 대표되는 대구섬유산업은 그 소재를 기준으로 絹織物, 綿織物 및 人絹織物, 合纖織物의 순으로 발달해왔다. 이는 일제치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70년대에는 호경기하에서 경영합리화와 혁신적인 기술개발없이 안일한 경영자세로 직물 및 염색가공업중심으로 과다한 시설투자로 만성적인 과잉생산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게 된데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후 장기간의 침체국면을 맞고 유수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80년대 초반 까지 이의 여파가 계속되다가 1985년 부터는 중국특수, 직물과 염색업종에 대한 합리화 업종의 지정등으로 일시 활황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3년여의 활황후 88년 하반기부터는 원화의 평가절상 가속화,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개도국의 추격등 대내외환경의 급변으로 지역섬유업계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고용인원 97,047명에 생산액 23,414억원으로 수출액만도 14백만달러로 대구의 중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3) 金屬・機械工業

금속·기계공업은 용지, 용수, 및 공해발생등의 입지제약은 크게 받지 않으나 광범위한 부품품공급망과 판로체계를 전제로 하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집약산업의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산업연관구조상의 입지로 인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보급의 핵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 주변 또는 배후의 공업지역과의 구축할 수 있는 내륙의 대구는 입지상의 잇점을 안고 있다.

1960년대 이전의 기계공업은 일본의 식민치하에서의 의도적인 차별정책과 6·25전쟁에 따른 산업시설의 파괴로 최종 소비재적 성격이 강한 철과 일부 전기기구, 농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60년대 이후에는 대구지역의 선발공업인 섬유공업의 발달에 따른 섬유기계 및 이의 부품이 대중을 이루고 그 외에도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및 부품, 농기계 및 이의 부품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70년대의 우

리나라 기계 금속공업은 중화학공업 추진시책에 힘입어 해외기술도입의 활발로 크게 향상된 반면 지역의 기계 금속공업은 적극적인 구조개편을 통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지역의 생산구조개선에 이바지 못하였다.

〈表 3-77〉 機械 金屬 工業 現況

연도	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
1981	730	26,305	190,776	85,006
1986	1,127	42,035	759,168	289,003
1989	1,623	52,220	2,742,823	619,772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64.

80년대 이후의 대구 기계 금속공업은 성장세를 거듭하여 섬유에 이어 두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전체조업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29.5%를 차지하여 중추업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의 현황은 〈表 3-77〉에서 보는 바와 같다.

(4) 化學 및 其他

화학공업은 소규모의 설비와 축적된 지식 기술을 이용 다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상의 특색이 있다. 우리나라의 화학공업은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의약품과 합섬 염료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외의존을 면치못하는 단계에 있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학공업의 성장을 주도해온 섬유화학공업이 점차 추진력을 상실함에 따라 내수증가에 따른 수입대체 및 내수 충족을 목표로 정밀화학제품의 생산시설확장을 시작였다. 70년대 전반기에는 정밀화학제품 생산시설의 확대로 주로 수입원재를 희석배합하여 완제품화하는 단순기술에 의존하였으나 80년대 초반부터 정밀화학공업의 전 공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재 합성기술에 대한 모방이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농약등 50%가 국산화되어 수입대체효과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업체수도 1981년의 188개 업체에서 1989년에는 296개 업체로 증가하게 되었다.

섬유, 화학, 기계, 금속을 제외한 기타 부문에서는 60년대 초기 부터 설탕, 조미료, 안경, 양산, 제분업과 도입원목에 의존하는 제재, 합판 제조업과 제지 등이 주종이었고 그외는 인쇄, 가발 등 잡화공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었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제지, 가발등이 사양화되고 대구지역의 공업이 섬유일변도로 성장하여, 여타 산업에 비해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대구경제의 성장발전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공업구조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장수는 14.7, 종업원수는 11.8%를 차지하는 상태에 그치고 있다.

3) 工業團地의 造成

(1) 工業團地現況

토지이용의 효율성, 경제의 집적적인 이익의 추구 및 쾌적한 환경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하여 공업은 일정한 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재정비, 용도지역변경등을 통하여 기존의 공업단지를 조정하고,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을 통한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공업지역, 공업단지개발은 193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공업단지는 일제의 병참기지화 목적으로 조성된 제1공업단지를 시초로 볼 수 있다.

1936년 7월 조선총독부고시 제 765호에 의해 칠성동, 태평로3가, 원대, 침산, 비산, 평리, 조야, 노곡동 일대의 총면적 6,382천㎡가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지구로 지정되고, 대구부는 이 지구중 18만평을 1944년에 제1공업단지로 조성한 것이다. 당시에는 17개의 섬유업체를 비롯한 26개 업체가 최초로 입주하였다. 현재는 도시의 팽창에 따라 공장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주거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경북 달성군 성서면(현재는 대구시 달서구)에 제2공단을 구상하였으나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조성하지 못하였다.

1967년 8월 10일 북구 노원동 가일대에 제3공업단지 조성 실시인가를 받아 근대적 공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섬유, 기계, 금속 등 여러 분야의 산업이 입주하면서 대구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개발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나 현재는 이 지역이 대구 제일의 공해 지역으로 불릴만큼 환경오염의 문제가 일어 도시규모의 팽창과 더불어 폐쇄의 압력을 받고 있다.

1970년대에는 검단공단,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등 3개의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들 공업단지는 대구지역 섬유수출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염색업체의 전용 공업단지로 조성되면서 공단의 협업화, 공동사업의 추진, 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 등 공업단지 정책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성서공단이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되어 그 간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조성하지 못했던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구체화되었다. 1차 단지는 1984년 5월 31일 건설부로부터 성서공단 실시계획인가를 얻고 고시되어 84년에 시작하여 88년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차 단지는 88년 부터 92년 까지의 계획으로 조성이 추진 중이다. 공단별 주요 현황은 <表 3-78>와 같다.

그 중 성서공단과 검단공단 및 대구염색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구염색공단은 조성과 동시(80.11)에 적용대상공단으로 지정되었으며 검단공단은 86년 7월, 성서공단은 88년 2월에 각각 지정되었다.

<表 3-78> 工業團地 現況

공단명	구분	면적 (천m ²)	업 체 수(개)					종업원수 (명)
			계	섬유	기계	화학	기타	
계		12,270	1,697	635	714	59	291	83,170
제3공단		1,094	171	70	60	1	40	17,312
검단공단		790	32	12	17	·	3	7,152
서대구공단		2,417	356	160	79	19	98	23,890
대구염색공단		790	111	111	·	·	·	14,516
성서공단 1차		2,005	481	199	138	27	117	20,300
2차		4,274	546	82	419	12	33	* 조성중

자료: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2, p.309.

(2) 工業團地別 概要

① 初期의 工業團地

대구 공업단지의 시작은 일제시대인 1936년 7월 2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765호로 당시 칠성동, 태평로3가, 비산동, 평리동, 노곡동, 원대동(현 노원동) 일대의 6,382,085㎡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대구시(당시는 大邱府)는 이 지역중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칠성동, 침산동, 원대동, 태평로3가 일대의 농지 595,044㎡를 1941년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한방직(주)를 비롯한 17개 섬유공장과 2개 기계공장 및 고무공장, 타면공장, 염색공장 등 모두 26개 공장을 입주시켰고 60년대 초 다시 이지역을 지역산업의 개발과 공역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당시의 기성공업지대인 침산동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제1공업단지로 호칭하게 되었다.

제2공단은 제1공단이 포화상태이 이르러 도심지에 산재한 중소기업형 공장들을 이전 집단화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달성군 성서면에 계획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공단의 지칭이며, 이 제2공단은 계획지역이 대구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 조성된 성서공단으로 이어진다.

② 大邱제3工業團地

제3공단은 「魯院工團」으로도 불리는데, 도시공해방지를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시내에 산재한 경공업제조업체를 집단화하여 대구시 북구 노원동 일대에 조성한 공업단지이다. 제3공단은 1965년 2월 2일 건설부고시 1387호에 의해 공업단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66년 8월 8일 제3공업단지 시행 지정인가를 받고 동년 9월 16일 대구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건특단지령으로 시설결정하고 67년 8월 10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1968년 12월에 준공하였다.

제3공단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었고, 업종의 선별없이 공장을 집단화 함으로써 공업의 집적효율성 및 기업의 협동화, 계열화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으나, 지방공업 기반 확충 및 산재한 업체를 집단화하여 도시공해를 해결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3공단의 총면적은 1,094천㎡에 음식료품, 섬유류, 나무제품, 종이·인쇄출판업, 석유화학, 1차금속산업, 기계장비제조업등 총 162개의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계획 2,700억원 규모이다.

③ 西大邱工業團地

서대구공업단지는 이현공단으로도 불리며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는 용도지역 위반공장의 집단화로 도시공해방지를 통한 도심환경의 개선과 전문·계열화에 따른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성한 2,416,540㎡ 규모의 도시형 내륙공업단지이다. 서대구공단은 단계적인 조성으로

제1차 지역, 제2차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경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관리창구도 1원화되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공단으로 간주된다.

제1차 지역은 1975년 7월 29일 건설부 고시 제126호의 시설결정과 76년 3월 7일 경상북도 고시 제25호로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서 동년 3월 1일 착공하여 77년 12월 말에 준공되었다.

제2차 지역은 7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고시 제379호의 시설결정에 이어 78년 9월 20일 경상북도 고시 제25로 실시계획이 인가됨으로서 동년 9월 25일 착공하여 79년 12월말 완공되었다. 제2차 지역은 제1차 입주업체의 공해방지에 중점을 두고 단지경계를 그린벨트로 형성하여 遮蔽樹林帶를 형성함으로써 공해를 없애는 기능을 하도록 조성하였다. 서대구공단은 섬유·의복, 조립금속·기계장치제조, 1차금속 등 총 8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④ 檢丹工業團地

검단공단은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소규모 공업단지로서 대구의 주종산업인 섬유공업의 집단화와 시설의 근대화와 품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조성한 섬유공업 전문화단지이다.

이 공단은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74년 4월 26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75년 12월 까지 790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입주업체는 섬유·의복·가죽업체 6개와 기타제조업체 1개 모두 7개업체로 연간생산계획량은 750억원 규모이다. 1991년 부터 1993년 까지 1,313㎡의 2차단지조성을 계획중이며 2차단지에는 지역특화산업 및 용도지역 위반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⑤ 大邱染色工業團地

대구염색공단은 「비산염색공단」으로도 불리는데 도심지에 산재되어 있던 염색공업체들을 집단화하여 공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 및 시설의 근대화로 품질향상을 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성한 총부지면적 769,947㎡ 규모의 염색공업 전문화단지이다.

염색공단은 1974년 6월 12일 건설부고시 제187호로 용도정된 공업지역으로 76년 9월 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이 염색공업전문단지조성을 건의함으로써 구체화된 단지이다. 단지의 조성은 76년 10월 20일 부터 29일 까지 상공부, 공업진흥청, 경상북도, 학계등으로 구성된 입지조사반에 의한 입지기초 합동조사에 이어 78년 2월 적지로 선정됨에 따라 78년 4월 8일 경상북도고시 제102호에 의한 시설결정, 79년 3월 29일 경상북도고시 제88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설계획 인가에 이어 동년 10월에 착공 81년 7월 1일에 완공되었으며 90개 업체가 입주하였다. 또한 79년 12월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하고 1987년 12월에는 38천kw의 열병합

발전소를 준공함으로써 에너지절약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효과적인 공해방지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1986년 5월 부터 88년 12월 까지 116천㎡의 공업용지에 2차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차단지에는 염색 가공업체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하고, 175억을 투자하여 하루 70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동폐수처리장을 준공 가동함으로써 개별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해방지도 기여하고 있다.

⑥ 城西工業團地

성서공단은 도심지용도지역 위반업체를 이전하여 도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공업의 계열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생산능률의 향상과 고용의 증대등 지역경제력을 증대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생산구조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자 3차에 걸쳐 조성중이다. 총면적 2,905천㎡로 조성한 공단이다.

성서공단은 대구에서 성주방면 국도변으로 구마고속도와 낙동강 사이에 있어 대구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각종 공업단지와 주변지역인 구미·논공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형성하고 포항, 울산, 마산, 등지와 공업기능의 연계확대가 가능한 지역이다.

1차 단지는 1983년 5월 23일 공업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84년 5월 3일 건설부의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고시되었으며, 88년 까지 총사업비 820억원을 투자하여 2,905천㎡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였으며, 섬유·기계·화학등 481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다.

2차 단지는 1988년 10월 4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88년 부터 총사업비 2,933억원을 투자하여 4,345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1지구에 217업체, 2지구에 ME, MT, 신소재 등 정밀첨단업종 330개 업체를 분양하여 섬유공업에 편중된 지역산업구조 개편에 기여하고 있다.

3차 단지는 1차단지 서편 낙동강 인접지역에 1992년 부터 96년 까지 2,340억원을 투자하여 3,697㎡의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성서공단에는 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등 다양한 업체 593개가 입주하고 있다.

⑦ 아파트型工場建設

공업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설을 공동이용함으로써 영세유망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한 곳은 월성지구와 성서지구의 두 곳이다.

월성지구는 달서구 월성동 영구 임대주택 단지내 부지 2,219㎡, 건물 7,485㎡,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90년 12월 24일에 착공하여 91년 12월 23일 준공하였으며, 12개 업체를

입주시켰다. 성서지구는 달서구 성서공단 2차 1지구내 부지 13,200㎡, 건물 59,656㎡,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에 78개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91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4) 纖維産業의 振興

(1) 纖維産業의 解決課題

대구의 경제는 섬유산업 일변도여서 산업구조상의 취약점을 지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섬유산업의 중점육성을 통하여 세계제일의 섬유도시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저력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섬유산업이 지니는 취약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원료의 수급, 생산, 판매, 기술 및 유통의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결해야할 취약점 부터 보기로 한다. 첫째, 원료공급의 불안정성 문제로 대구지역의 섬유업체는 전체원료의 76.5%를 수입하여 해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둘째는 생산의 비전문화 및 비다각화의 문제로서 Mid-Stream인 직물제조가 전체섬유류 생산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류용제품에 사용되는 화섬직물의 제조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규모의 영세성에 기인하는 바 크다(기업형태 86.45가 개인사업장이고 88.5%가 자본금 10억원 이하). 셋째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하청 임직형 판매에 의존 비율이 높은 문제인데, 견직물업체의 경우는 약 80%가 하청에 의존하고 있고, 전체직기의 약 70%가 임직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수출의존형도 문제인데 전체 섬유생산의 80%가 수출되고, 특히 지역 주종생산품목인 폴리에스텔직물은 90%가량이 수출되고 있다. 네번째는 기술수준의 낙후 문제로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미흡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인데 이는 연구개발의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유통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직물전문시장으로 꼽히는 서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섬유류가 전국 섬유유통량의 3%선에 불과한 것이 그 예이다.

(2) 纖維産業振興施策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대구를 국제섬유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 生産施設 現代化

생산시설을 조정하고 확충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 섬유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직기는 폐기하고, 신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기 현대화를 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도 지원하고 있다. 비용은 산업합리화 자금으로 충당하며, 공업발전기금을 유치하여 지역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② 研究機能強化

섬유기술진흥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며 섬유관련산업의 정보관리를 종합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91년의 경우는 제직과 염색에서 각 2건씩 연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기술지도 및 기술자연수를 실시하고 섬유기술정보지를 발간보급하는 것 등이 그 사업이며, 비용은 국비와 시비의 지원과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다.

③ 弘報 및 情報交流

섬유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행사를 통한 거래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섬유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섬유제품전시회, 섬유기계전시회 및 국제섬유전시회 등으로 구성되며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상당한 상담과 계약실적을 올리고 있다. 비용은 시비와 관련 업체의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91년에는 사업비 456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市費 38백만원 民資 418백만원으로 충당하였다.

한편 섬유선진도시와의 기술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91년에는 한일직물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을 다진 바 있다.

④ 長期發展計劃의 樹立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적인 섬유도시로의 발판을 굳히기 위하여 정부의 섬유산업 구조개선 7개년 계획에 부응 92년 8월 부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대구섬유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구상중이다.

⑤ 高附加價值獲得을 위한 努力

지역섬유산업구조가 중간소재인 직물에만 편중되어 패션·어패럴 산업이 위약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지역섬유산업의 균형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패션·어패럴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패션·어패럴 산업의 조직력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섬유기술진흥원내에 이들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구패션센터를 설립하여 전시, 정보,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하도록하며, 디자이너의 발굴육성과 쇼의 연례화를 위하여 각종 쇼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⑥ 先進纖維都市와의 技術交流 協力

이미 개최한 한일직물간담회와 같이 선진섬유도시와의 산업기술 교류는 물론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이탈리아 밀라노시, 일본의 후쿠이시, 미국의 아틀란타시등에서 염색기술, 섬유기계, 패션부문의 기술교류등을 실시하고, 패션쇼와 전시회 참가등을 통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5)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집약적산업인 섬유와 기계금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따라서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融資金 利子補填金 支給 條例('75.3.19, 조례 제876호)를 제정하여 지방금융기관인 대구은행과 협약으로 시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자금을 지원하고 시는 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며 81년 부터 지금 까지 市費로 이자를 補填한 액수는 1,563,949천원에 달한다.

4. 流通

1) 流通施設現況과 物價

(1) 流通施設現況

〈表 3-79〉 市場現況

연도	공설시장	도매시장	사설시장
1965	18		
1970	17		
1975	3	3	58
1980	1	3	71

대구는 전통적으로 영남경제권의 중심지로소 일찍부터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왔다. 특히 상업은 대구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991년말 현재 91개의 시장이 있으며 점포수는 13,767개, 업체는 38,999개로 종사자는 76,387명이다. 시장의 증가추세는 〈表 3-79〉와 같다.

연도	구분	계	시 장		대규모백화점 (쇼핑센터포함)	연 쇠 화 사 업		
			정기	상설		대형점	본 부	수퍼마켓
1981		326	3	77	7	-	-	239
1991		2,249	1	89	9	4	13	2,839

자료: '65~'80;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81~'91;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52.

시장은 과거와는 달리 일용잡화와 식료품을 취급하는 소매시장이 대부분이나, 섬유도시의 명성에 한몫을 하는 서문지장 1지구의 직물시장, 전국제일을 자랑하는 약령시등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문시장이다. 직할시 승격시 월배, 안심, 칠곡읍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구시에도 농촌형 재래시장인 5일장 3개소가 생겼다. 그중 안심, 월배시장은 현대화되었고, 칠곡시장도 현재 상설시장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이다.

81년에 77개였던 상설시장은 91년도 현재 농산물시장과 수산시장을 포함하여 93개에 이르

고 있으며 시전역에 고루 배치되어 지역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최근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체인화사업으로 재래시장상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백화점은 근래에 들어와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인데 현재 대규모 백화점만 9개가 있으며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그 중 대표격이다. 양 백화점은 대구 뿐만 아니라 인근 경북지역의 크고 작은 도시에 영업점을 개설하여 그 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동아백화점의 경우 반월당에 세운 동아쇼핑의 개점으로 중심상권이 동성로에서 반월당으로 이어지는 중심상권의 남진현상을 가져왔으며, 70년대 후반에 출점한 미도, 대보, 무궁화, 코리아백화점등 4개 도심 백화점은 운영부실로 80년대초 모두 폐점하였다. 동아백화점은 소속사인 화성산업이 88년 서울 「쁘레땅」백화점을 개설하여 대구상업자본의 지역외 진출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시장과 백화점을 시장법에 의해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으로만 분류하였으나 1987년 7월 1일 도소매업 진흥법의 제정 시행과 더불어 일반시장,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도매센터, 연쇄화사업등으로 대상업종이 세분되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낙후유통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유통산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 物價

직할시 원년인 1981년도는 도매 및 소비자 물가가 모두 심한 인플레이 현상으로 각각 20.4%와 21.6%로 높은 상승율을 보였다. 82년 들어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상승율이 현격히 저하되어 도매 4.65, 소비자 7.1%의 상승을 보이는데 그쳐 균형적인 경제성장의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중의 물가상승율은 도매물가가 5년간 4.9%, 소비자물가가 19.3%로 연평균 도매 1%, 소비자 4%로 안정되었으며 이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부의 안정위주 경제성장 정책의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개시년도인 87년 부터 본격화된 민주화운동, 각종의 노사분규, 대통령직선제실시등으로 통화량이 급격히 팽창하여 물가불안이 심화되었다. 물가의 변동상황을 <表 3-80>에 제시한다.

<表 3-80> 物價動向 (단위:%)

구분 연도	물가지수		물가상승율	
	소비자	도매	소비자	도매
1981	86.2	93.9	21.6	20.4
1982	92.3	98.2	7.1	4.6
1983	95.4	98.4	3.4	0.2
1984	97.6	99.1	2.3	0.7
1985	100.0	100.0	2.5	0.9
1986	102.8	98.5	2.8	△1.5
1987	105.9	99.0	3.0	0.5
1988	113.4	101.1	7.1	2.1
1989	119.9	103.2	5.7	2.1
1990	130.2	107.5	8.6	4.2

물가지수는 1985년도를 100으로 하였음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54.

2) 流通現代화와 消費生活의 保護

(1) 流通現代化 施策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가격의 안정을 통한 시민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제조업체는 물론 백화점과 슈퍼마켓, 전문점과 연쇄점 및 일반시장도 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운동도 벌이고 있다. 한편 서민의 월동대책을 위한 비수요기 원탄확보등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이다.

① 流通現代化 財政資金 支援

근래에 들어 대구시내의 유통업체는 대규모 소매점은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는등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상인들이 집단을 이루는 일반시장은 시설의 낙후와 경영기술의 부족등으로 상권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상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유통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유통관련 사업자에게 財政資金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실태는 <表 3-81>와 같다.

연도	계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지원업체	106	17	13	8	10	11	12	26	9
지원액	6,586	1,179	687	305	879	182	990	2,053	590

자료: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2, p.342.

② 在來市場 現代化

대구에는 총건물면적 201,969㎡, 점포수 14,413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들 시장중 최근 건립한 몇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노후·불량한 시설로서 화재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뿐아니라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고객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자가운전자를 위한 주차장시설의 미흡은 재래시장의 상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을 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전항에서 살펴본 유통현대화자금 지원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91년 1월 1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3252호)을 제정하여 기존시장에 한하여 복합건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유통부문계획에 재래시장을 복합건축물 쇼핑센터로 개발하도록 포함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시에서는 시장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92년도에 시장별 구조조정 방안, 시장별 특성에 따른 기능제고 방안, 상품유통체계 개

선방안, 주변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현대화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③ 綜合流通團地 造成

지역섬유산업이 製織 중심으로 되어 있어 창조기능이 미흡하고 부가가치가 저조하며, 2차 산업은 면적협소, 부지가격의 고가, 기존시설의 노후화와 재래화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어, 지역산업구조개선과 지역 자본력 축적을 위해 북구 산격동과 검단동 일대에 1,359천㎡ 규모의 종합유통단지를 1992년 부터 2005년 까지 2단계 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통단지의 주요기능은 무역센터, 도매단지, 물류단지, 지원시설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16,171억원 규모이다.

91년 7월 입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성하고 실시계획에 착수하였으며, 이 단지가 조성되면 대구상권의 전국비중이 섬유산업은 55.1%에서 70.7%, 패션 악세사리 제품은 43.3%에서 74.7%, 전자·전기도매산업은 47.1%에서 68.1%로 향상되고 총매출액도 20.8%에서 23.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漢藥材 都賣市場 移轉

약전골목에 밀집한 대구의 약령시는 대구의 명물이자 전국적인 한약재 유통시장이다. 또한 태평로에 위치한 한약재 도매시장도 대구의 특색중의 하나인데 한약재 도매시장을 집단화하여 대구약령시를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평로의 도매시장을 중구 남성로 제일교회 선교관 부지에 부지 2,772㎡, 건물 3,300㎡, 지하1, 지상3층 규모에 48억원을 들여 92년말 까지 이전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91년에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2) 物價管理

최근 우리경제는 사회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 및 물가가 자율화되고 있어 서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연간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와 기업 가계가 합심하여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물가관리 목표는 물가 한자리수 이내 인상인데, 계절이나 일기불순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균형, 자율화된 사회분위기를 악용한 개인서비스요금의 과다인상, 설날이나 추석등 성수기 기대심리에 의한 가수요 발생, 부동산임대료인상등으로 물가의 불안정상태가 야기된다.

시에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물가감시망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물가인상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며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요금을 통제하며, 농수축산물의 경우는 수급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정밀분석하여 불균형시 각 유통공사등을 통하여 수급조절장치를 가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물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등 시민 자율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며, 시민의 물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부동산 및 임대료 안정에 역점을 두어 종합토지세제의 실시, 토지거래 신고·허가 업무의 철저한 추진 및 과표현실화 등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을 추진하고, 건전소비풍토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절약대책을 추진 하는 등 서민 소비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 물가안정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여 수급 및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물자의 수급과 가격동향의 일일점검, 시민제보사항의 처리 등 물가전반에 관한 총괄조정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5. 輸出

1) 輸出現況

대구는 직물을 비롯하여 안경테와 식품수출업체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 업체의 수출실적은 매년 늘어나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과 수출실적을 직할시 초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表 3-82>와 같다.

연도	합계	중화학제품 계	경 공 업 제 품		농산물
			섬 유 류	기 타	
1981	970,754	124,055	788,016	42,833	11,459
1986	1,235,540	150,554	999,289	70,691	35,006
1991	2,439,288	461,469	1,833,678	86,154	57,987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중화학제품에는 철강,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비철금속, 석유화학, 전기 및 기타제품들의 수출이 포함되며, 기타제품에는 공예품과 완구류 및 잡화류가 포함된다. 한편 대구지역의 주요 수출업체를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表 3-83>과 같다.

〈表 3-83〉

大邱地域 主要輸出業體

섬유	면직물 견직화섬 나일론 모복지 조젯트 포리에스틸	대한방직, 갑을방직 남선물산 갑을, 코오롱, 범상공, 창녕, 동진섬유 제일모직 태왕산업 신라섬유, 성안섬유, 동국화섬, 대하통상, 수복섬유, 한일합섬
기타	식품 안경테 잡화 철물 크랏치	협성농산, 삼우실업(양송이) 삼성공업사 쌍용대구지점 새한공업(철물), 갑을금속(철선, 철못) 평화크랏치

자료: 지역경제과

2) 輸出振興施策

직할시 이후 수출이 매년 증가하여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수출의 주종상품인 섬유류나 전자전기, 자동차부품등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인 고임금, 고물가 고환율등의 3고현상과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등의 3난현상등으로 수출의 애로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상품의 제조원가 상승, 수출경쟁국가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등의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밝은 전망이지만은 않다.

더구나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하에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과 원자재의 가격상승 및 금융비용 부담증가로 업계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된데다 염색가공난으로 섬유업종이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기계, 비철금속, 시멘트가공등두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시에서는 지역수출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수출상품 종합카다로그 제작, 수출전략상품 지정육성등의 주요시책을 추진중이다.

① 地域輸出商品의 海外市場 開拓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하여 기존의 수출루트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미국, 일본, 이탈리아, 카자흐공화국 등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지역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1991년에는 미국의 아틀란타시에 상설 상품전시관을 설치하고, 서울의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중동 4개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지역수출상품의 현지 순회전시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地域輸出商品 綜合카다로그 製作

지역상품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지역수출산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시와 KOTRA 대구 경북무역관 공동으로 지역수출상품의 종합카다로그를 제작하여 KOTRA 해외무역관, 해외자매도시, 해외공관등에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③ 地域輸出 戰略商品 指定育成

지역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다변화가 용이한 품목과 소비계층이 넓고 대구의 이미 지상품으로서 부각이 용이한 품목 및 약간의 지원으로도 수출유력상품화가 가능한 품목등을 대구시의 수출전략상품으로 지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에서 지정한 전략상품은 우산 및 양산, 안경테, 낚시대, 섬유직기, 나이론 다후다, 내의류, 양말산업등이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선지원, KOTRA를 통한 무역정보지 제공과 지방공여기술원, 섬유기술진흥원등을 통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6. 에너지의 生産과 供給

에너지 수급정책의 목표는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유통질서의 확립,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 및 이용합리화를 통한 소비절약의 추진등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사용의 편리성, 유류 및 가스가격의 하락, 도시가스보급의 적극적 확대, 주택구조의 개량 및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현대의 에너지는 연탄에서 석유 가스 및 전기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1980년대 전반 까지는 연탄수요가 증가세에 있었으나 86년도를 정점으로 연탄수요는 감소하고 대신 석유류와 가스 전기등의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 煉炭

석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에너지 부존자원으로 그간 60년대 부터 80년대 중반 까지 석탄을 원료로한 연탄이 중심연료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곰배탄’이 수작업형태의 가내공업에 의해 생산되었으며, 공업의 발달과 수요의 확대로 공장 생산이 시작된다. 초기의 공장은 수송이 용이한 대구역 부근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나 공장이 대형화하고 연탄분진으로 인한 공해문제의 발생으로 1971년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경산군 안심읍 울암동 431번지에 연료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최대규모의 연료공급기지를 갖추고 연탄연료시대를 맞았다.

안심연료단지는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되면서 대구시로 편입되고 불모지였던 연료단지 주변 일대가 거주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연탄분진의 공해문제가 제기되어 88년에는 인근주민들의 건의로 연료공업단지내의 주요 수송시설이던 고가선철로를 철거하고 90년 부터 94년 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방진벽, 방진망, 살수장치등 전반적인 공해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있

다. 연료단지 조성전에는 대구시에 24개의 군소연탄공장이 있었으나 단지조성과 함께 통폐합하여 현재는 대성, 영남, 대영, 삼덕, 한성, 협성의 6개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1일 생산능력은 연탄 360만장이고, 저탄능력은 50만톤에 하루 입하량은 3,400톤이다.

6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연탄은 초기 연탄공급구역의 제한이 없던 시대에는 대구시 및 경북 일원, 경남 창녕, 밀양, 거창 멀리는 전라도 장수군에 까지 공급되었으나 1974년 석탄수급 임시조치법이 공포되어 그 공급구역이 축소되었다. 축소된 공급구역은 대구시 및 경북 경산군, 달성군, 고령군, 칠곡군, 경남 합천군, 창녕군의 일부지역이었다. 1991년 4월 부터는 석탄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다시 공급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하여 대구·경북 전역, 경남 합천군, 창녕군 일부 까지 확대하였으며 1993년 까지는 공급구역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탄의 소비는 1986년 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87년을 고비로 감소하여 현재는 연간 933톤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탄의 소비추세를 <表 3-84>에 제시한다.

생산된 연탄의 가격은 60년대초에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고시하였으나 1964년 11월 고시가격을 폐지하고 업체의 협정가격으로 결정하다가 1974년 4월부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저가격으로 고시되어 현재에

<表 3-84> 煉炭의 消費趨勢 (단위:천톤)

연 도	1981	1986	1987	1991
소비량	1,389	1,497	1,448	933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89,
《市政白書》, 1992, p.351.

이르고 있다. 현재는 무게를 기준으로 3.6kg 연탄만 고시하고 4.5kg, 7.5kg등 특수규격의 연탄은 자율화하고 있다. 참고로 고시된 연탄가격을 비교하면 <表 3-85>와 같다.

<表 3-85> 煉炭價格의 變化 (단위:원)

시 기	공장도가격	가정도가격	비 고
1974.10.10	24.50	31	상공부 고시 10560
1981. 4.19	119.50	141	동자부고시 81-184, 경북도고시 86
1981. 8.14	134	156	동자부고시 81-202, 대구직할시고시 148
1986. 5.17	154	181	동자부고시 86-14, 대구직할시고시 48
1988. 5.10	167.25	195	동자부고시 88-20, 대구직할시고시 107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591~592.

2) 石油, 가스

석유류는 현재 가정용과 산업용은 물론 날로 증가하는 차량의 연료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정용 연료는 등유, 프로판가스가 주로 사용되고, 산업용으로는 방카C유와 중유등이 사용되며, 차량에는 휘발유와 경유 및 부탄가스가 주로 사용된다.

석유류의 공급은 공장에서 판매소를 거쳐 가정에 배달되는 연탄과는 달리 정유사에서 대리점과 주유소나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일반석유류와 정유사에서 충전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L.P.G 가스, 정유사, 대리점, 판매소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프로판가스로 나뉜다.

1981년 이전에는 중간유통단계인 주유소와 L.P.G가스의 충전소 수를 정하여 통제하였으나 1982년 부터는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화하였으며, 1985년 6월 부터는 시고시로 규제하여 왔다. L.P.G충전소의 경우는 주거지역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자체의 허가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석유류의 소비량변화는 <表 3-86>와 같으며, 주유소의 총수는 129개이다.

油類消費實態							(단위:KL/톤)
연도	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방카C유	L.P.G
1981	732,019	79,179	78,973	277,993	4,118	219,756	11,156
1986	709,906	64,090	66,881	298,246	2,615	246,798	84,833
1991	1,513,150	248,340	235,320	613,880	6,280	409,330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593, 1991자료는 《市政白書》, 1992, P.351.

3) 都市가스

대구시에서는 1984년 부터 안전하고 경제적인 청정연료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초기인 84년에는 1,830가구만이 사용하였으나 매년 그 수요가 증가하여 91년에는 83,423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대구도시가스(주)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Ⅲ. 保健行政

1. 保健行政의 重點施策

시민보건의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건행정은 직할시가 되면서 보건소의 증설등 시설확장과 더불어 내실을 기하고자 의욕에 찬 시책들을 계획하고 시행하였다. 년도별로 계획실시된 보건행정의 내용을 통하여 보건행정의 중점시책을 살펴본다.

1) 醫療施惠의 內實化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시혜의 내실화를 위하여 1981년에는 진료기관 27개소를 확충하여 총 65개소에서 진료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대상자를 85,747명에서 151,000으로 늘렸다. 특히 극빈환자의 책임진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 醫療機關 夜間當番制

야간에 응급을 요하는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하여 의료기관 야간당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의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34개반 288개 병의원이 조직되어 1984년 부터는 전문과목 별로 1일 20개소씩 개원하도록 하고 있다.

3) 性病診療

보건위생관념의 증가로 줄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기지촌 주변을 중심으로 철저한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지도 단속 하였다.

4) 市立療養機關擴充과 診療施設 및 人力補強

1981년 시립정신병원을 건립하여 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시작하였으며, 시립병원의 의료진을 보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1983년에는 시립병원을 대구의료원으로 개칭하고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1984년에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1985년에는 격리병동을 신축하고 1991년에는 특수병동을 신축하는 등의 시설 확장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으로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5) 防疫消毒活動強化

① 防疫消毒裝備補強과 消毒地域 擴大

방역소독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1981년에는 고성능 분무기의 장비121점을 보강하였으며, 소독지역도 53개동에서 110개동으로 확대하였다.

② 市民合同防疫의 날 運營強化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질병의 전염을 방지하고자 1981년 부터는 시민합동방역을 확대실시하고 동단위 장비를 완비하였으며, 6월 부터 9월 사이 매월 30일을 시민합동방역의 날로 정하여 방역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③ 豫防接種과 保菌者索出管理徹底

6) 保健所運營活性化

저소득시민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보건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보건사업의 전문화로 진료수준을 제고하며 특히 저소득시민의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보건소별로 특수사업을 전개하였다. 보건소별 중점사업내역은 <表 3-87>과 같다.

<表 3-87> 保健所の 特殊事業

보 건 소	사 업 명
중구보건소	성병관리
동구보건소	노인보건
서구보건소	결핵관리
남구보건소	모자보건
북구보건소	보건교육
수성구보건소	구강위생

7) 接客業所 環境改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接客業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 위생관념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1982년에는 영업장 200개소와 조리장 1,000여개소의 시설현대화를 유도하였으며, 변소시설개량사업도 펼쳤다. 공중변소도 94개소의 시설을 개량하였다.

8) 家族計劃事業의 持續推進

다소 소원해진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대상을 늘였는데, 84년에는 6개의 시범통을 12개로 늘였으며, 4만여명에게 불임시술을 권장하는 한편 각종 교육이나 행사등의 집회를 활용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소자녀관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시·구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가 억제대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사업평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며, 1984년에는 시민회관 광장에 인구시계탑을 설치하고, 10개소의 피임기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였다.

9) 保健環境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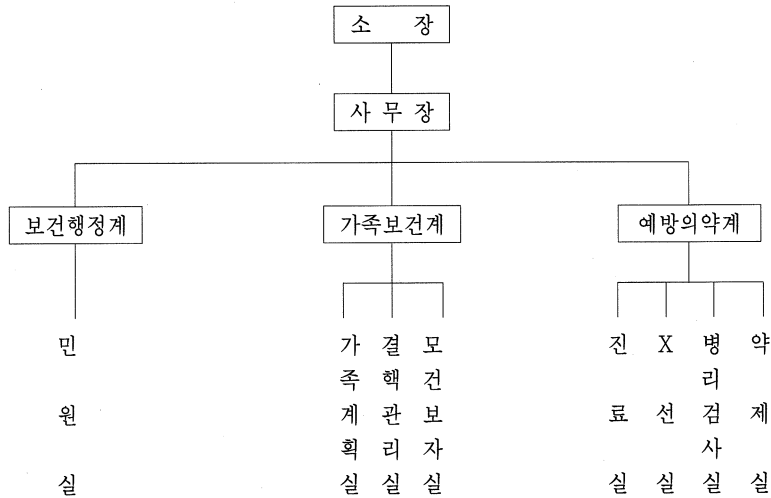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며, 각종 공해검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 수성구 지산동에 보건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1987년 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하여 운영중이다.

2.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1) 保健所の 増設과 診療實績

1980년 4월 7일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수성구가 신설됨에 따라 수성구 보건소가 신설되고, 1988년 12월 31일 달서구 신설에 따라 달서구 보건소가 신설되어 1991년 말 현재 대구직할시의 보건소총수는 7개이다. 1982년 까지는 각 보건소별로 보건계와 방역계의 2개계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83년 1월 10일자로 보건계를 보건행정계로, 방역계는 예방의

약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보건계를 신설하여 기구 및 인원을 보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1년 말 현재 보건소 기구는 <圖 3-6>과 같다.



<圖 3-6>

保健所 機構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에서는 관련된 1~4개의 실을 갖추고 있으며 실별로 중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근무하는 인원은 해마다 그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88년 이후에는 의사의 수가 대폭 늘어났다.

이는 종래에 비하여 보건소 기능이 상당히 넓어짐을 뜻하며, 일반시민에 대한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상당부분 차지하게 된 것을 반영한다. 또한 1989년 부터 실시된 도시지역 주민들의 의료보험제도 역시 보건소의 기능증대에 한 몫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의 진료실적을 질병별로 구분해서 보면 <表 3-88>와 같다.

<表 3-88> 保健所の 診療実績 (단위:명)

연도	총계	집 단 검 진 자 수			환 자 치 료 현 황							
		결핵	성병	기타	총계	결핵	성병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기생충	기타
1981	184,866	120,252	64,616		30,214	10,726	10,027	6,479	1,473	383	1,126	1,126
1982	206,941	137,358	69,583	275,846	62,220	12,475	21,544	8,193	5,982	447	164,985	164,895
1983	217,478	147,103	70,375	364,543	55,179	10,460		4,910	7,761	1,048	285,185	285,185
1984	175,478	121,823	53,424	186,712	48,080	8,969	51,672	3,539	3,129	998	70,325	70,325
1985	183,360	121,527	61,833		372,823	40,690	9,010	55,151	5,784	7,914	772	253,502

연도	총계	집 단 검 진 자 수			환 자 치 료 현 황							
		결핵	성병	기타	총계	결핵	성병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기생충	기타
1986	192,954	111,598	49,952	33,404	335,286	48,885	8,979	30,080	7,687	5,326	2,675	231,564
1987	191,717	118,500	45,846	27,371	342,874	46,367	8,552	50,654	7,902	5,782	2,322	221,955
1988	148,764	88,321	40,110	20,333	400,728	36,103	9,683	36,714	4,737	4,741	1,961	306,789
1989	169,921	86,268	47,721	35,932	461,092	29,379	7,508	25,431	3,036	4,199	1,944	389,595
1990	159,458	86,766	56,766	15,779	459,909	24,833	9,103	14,511	2,752	3,544	1,285	403,881
1991	139,864				398,704							-

자료 : 보건과

한편 결핵과 성병에 관한 집단검진도 실시하고 있는데 연도별 집단검진실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경의 개선으로 발병의 소지가 줄어들는데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보험의 실시로 보건소를 통한 검진 보다는 개인별 또는 직장별 검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85년에는 보건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진료수준제고 방편의 하나로 각보건소별 특수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중구는 성병관리, 동구는 노인보건, 서구는 결핵관리, 남구는 모자보건, 북구는 보건교육, 수성구는 구강위생을 특수사업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는 물론 저소득시민에 대해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도 지닌다.

2)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① 醫療機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선호가 점차 고급화 되는 양상이 의료기관의 증가추세에도 나타난다. 1981년 이후 10년 사이 대구에는 종합병원의 수가 무려 2배로 증가하였으며, 병원의 수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그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치과의원으로서 무려 3배 가까이 개업의가 늘어났다(表 3-89). 이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접근도를 높임으로서 보다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表 3-89〉 醫療機關現況

연도	총수	병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81	719	451	4	6	441	131	121	16
1982	762	482	4	7	471	144	120	16
1983	793	497	6	6	485	159	124	13
1984	853	518	6	8	504	185	139	11
1985	938	555	6	11	538	204	162	17

연도	총수	병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1981	719	451	4	6	441	131	121	16
1986	998	577	6	12	559	229	178	14
1987	1,079	610	6	12	592	250	203	16
1988	1,181	634	7	11	616	280	252	15
1989	1,321	664	7	11	646	329	313	15
1990	1,434	707	8	10	689	369	344	14
1991	2,058	772	8	10	743	390	361	12
				한방병원11				

자료 :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397. 1991년 자료는 《行政白書》, 1992

醫療機關別 病床數

〈表 3-90〉

연도	종 합 병 원		병 의 원		의원 의원	특수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부설 의원	조산소	보건소	보건 지소	기타
	개소	병상수	개소	병상수									
1981	4	1,602	6	530	441	1	131	121	12	16	6	6	
1982	4	1,671	7	604	471	1	144	120	16	16	6	6	71
1983	6	2,386	6	569	485	1	159	124	17	13	6	6	71
1984	6	2,588	9	734	504	-	185	139	18	11	6	-	73
1985	6	2,649	11	821	538	-	204	162	17	17	6	-	92
1986	6	2,920	11	824	559	1	229	178	18	14	6	-	114
1987	6	2,920	11	883	592	1	250	203	17	16	6	-	74
1988	7	3,220	9	768	616	1	280	252	16	15	7	-	97
1989	7	3,362	11	1,063	646	자	329	313	14	15	7	-	113
1990	8	3,512	10	1,107	689	료	369	344	16	14	7	-	116
1991	8	3,573	10	1,282	743	없	390	372	18	12	7	-	117
1992	8	3,780	10	1,319	779	음	443	417	19	13	7	-	129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그러나 의료기관이 그 수만 늘어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대구시는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表 3-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구와 수성구는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개설되어 있지 않고, 동구는 병원이 개설된 곳이 없으며, 1차진료기관인 의원은 중구와 서구에 밀집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는 의료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시에서는 1984년에 기존의 시립병원인 대구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114개의 병상을 300개 병상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약 38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85-86년에 걸쳐 완공하게 되었다. 동시에 1985년에는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검사를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구 지산동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表 3-91〉 地域別 醫療機關 分布狀況

구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한방의원)	조산원
계	1,434	8	10	689	369	344(9)	14
중구	393	3	2	215	84	87(1)	2
동구	179	1		83	48	44(3)	3
서구	221	1	1	113	51	49(2)	6
남구	155	2	1	59	43	50(2)	
북구	153		1	72	50	29	1
수성구	154		2	66	44	41(1)	1
달서구	179	1	3	81	49	44	

자료 :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397.

병의원과 더불어 약국을 비롯한 각종 약업소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용 절차가 비교적 쉬운 까닭에 선호도가 높은데 이들 약업소 역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병의원 만큼 신장세가 높지는 않다. 약품제조업소는 거의 변화가 없고, 판매업소는 그 중 도매상과 약국만이 확실한 증가세가 나타날 뿐 그 외에는 별 변화가 없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舊시가지에 해당하는 중구에 밀집해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表 3-92〉 醫藥品製造 및 販賣業所 現況

연도	제 조 업 소						관 매 업 소						
	계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의약품소분	계	약국	도매상	약종상	한약업자	대약상	의료용구, 위생용품
1981	35	17	1	2	14	1	1,285	844	66	17	135	4	219
1982	38	15	1	6	16	-	1,352	893	53	16	133	4	253
1983	35	14	1	4	16	-	1,433	931	63	16	129	4	290
1984	32	12	1	3	15	1	1,527	988	50	15	125	4	345
1985	35	14	1	4	15	1	1,623	1,030	51	15	122	4	401
1986	31	12	1	3	14	1	1,734	1,065	57	15	121	4	472
1987	33	12	1	3	14	3	1,852	1,117	69	14	117	3	532
1988	41	15	1	3	20	2	1,943	1,167	83	15	138	3	537
1989	36	11	1	1	20	1	1,776	1,190	88	15	131	3	349
1990	42	12	1	1	28	-	1,739	1,177	105	14	130	2	311
1991	41	12	1	1	25	2	1,953	1,193	123	12	127	2	496
1992	30	10	1	1	19	-	1,951	1,203	142	12	123	2	469

자료 :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藥業所の 地域別 分布 1992년 12월 말 현재

구 분	계	의 약 품	약 국	도매상	한약업사	매약상	약종상	의료용구
		제조업소						위생용품
계	10	1,203	142	123	2	12	469	
중 구	448	-	165	62	81	1	3	136
동 구	324	1	177	27	9	-	3	107
서 구	211	-	184	3	6	1	-	17
남 구	261	-	165	13	8	-	-	75
북 구	206	3	162	10	12	-	-4	15
수성구	239	2	179	16	5	-	-	37
달서구	272	4	171	11	2	-	2	82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1993

② 醫療人力

의료인력의 분포도 1981년 이후 조산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분야에 걸쳐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역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表 3-94).

醫療人力現況

연도	총계	의사	한지의사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기타
1981	3,136	916	2	179	-	119	1,118	62	740			
1982	3,723	1,160	2	196	1	126	1,230	45	892			
1983	3,942	1,319	2	204	1	136	1,244	47	918			
1984	6,906	1,341	2	240	1	156	1,271	49	1,272			
1985	7,035	1,467	1	265	-	181	1,271	48	1,383			
1986	7,732	1,606	-	303	-	196	1,258	56	1,270	2,504	539	
1987	8,190	1,678	-	340	-	229	1,259	65	1,315	2,581	723	
1988	8,937	1,788	-	380	-	277	1,295	70	1,493	2,660	974	
1989	9,135	1,907	-	422	-	348	1,320	58	1,718	2,372	990	
1990	9,815	1,934	-	474	-	389	1,312	61	1,984	2,442	1,219	
1991	10,982	2,206	-	502	-	426	1,482	63	1,943	2,884	1,476	
1992	11,732	2,331	-	555	-	486	1,452	52	1,108	3,221	1,527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表 3-95〉 醫療人力 地域別 分布 1992년 12월 말 현재

연 도	총 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중 구	3,786	1,006	175	101	257	3	867	880	497
동 구	1,451	262	61	77	199	7	259	422	164
서 구	1,220	164	65	73	170	8	108	466	166
남 구	2,267	532	58	52	230	26	585	536	248
북 구	777	93	60	46	173	2	28	274	101
수성구	987	114	68	84	217	1	70	286	147
달서구	1,244	160	68	53	206	5	191	357	204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1993

참고로 시민들의 1차 진료기관중 대표적인 의원과 약국 1개소가 담당하는 인구수를 구별로 계산한 것이 〈表 3-96〉이다. 중구에는 인구가 전체의 6.9%가 거주하나 의원은 전체의 31%가 분포되어 있어 도심집중현상이 심하다. 의원 1개소당 인구는 중구가 최소로서 712명이나 수성구는 무려 7배가 넘는 5,330명이나 된다. 약국 1개소당 인구도 중구는 895명이나 달서구는 2,396명으로서 지역편차가 심하다. 다만 의사 1인당 인구수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이나 남구의 경우는 종합병원이 3개소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의사수가 많아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적게 나타나고, 수성구는 종합병원이 없어서 의사 1인당 인구수가 무려 5,09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 모두가 공평한 의료 시혜를 받게 하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지역편중을 없애는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表 3-96〉 人口에 對比한 醫療機關과 醫療人力 1990년 12월 말 현재

구 분	인 구	의 원	의 원 1개소당 인 구 수	약 국	약 국 1개소당 인 구 수	의 사	의 사 1인당 인구수
계	2,228,834(100.)	689(100.)	3,234	1,177	1,894	1,934	1,152
중 구	153,006(6.9)	215(31.0)	712	171	895	941	163
동 구	359,669(16.2)	83(12.1)	4,333	181	1,987	91	3,592
서 구	406,340(18.2)	113(16.4)	3,595	195	2,084	147	2,764
남 구	277,037(12.4)	59(8.6)	4,695	169	1,639	472	587
북 구	321,471(14.4)	72(10.5)	4,464	161	1,996	81	3,969
수 성	351,841(15.8)	66(9.6)	5,330	150	2,345	69	5,099
달 서	359,466(16.1)	81(11.8)	4,438	150	2,396	133	2,703

자료: 《대구통계연보》에서 계산

3. 傳染病의 發生과 防疫活動

1) 傳染病의 發生

1980년대는 그 이전에 비하여 생활환경도 개선되고 시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1960-70년대에 많이 발생하였던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프스나 파라티프스 같은 급성전염병의 발생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천연두의 경우는 아예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그대신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및 빈번한 내왕으로 인해 신종 전염병인 AIDS같은 신종 전염병이 등장하여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1981년 이래 디프테리아와 콜레라는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티프스와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만은 해마다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홍역의 경우는 거의 모든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예방백신의 유효기간 또는 백신자체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전염병의 발생상황을 <表 3-97>에 나타낸다.

<表 3-97> 傳染病患者發生狀況

연도	제 1 종 전 염 병										제 2 종 전 염 병								기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콜 레 라		백 일 해		홍 역		유행성이하선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1981	19	-	2	-	-	-	36	-	-	-	47	-	38	-	170	-	45		
1982	75	-	7	-	-	-	10	-	-	-	13	-	402	-	91	-	20		
1983	19	-	1	-	-	-	6	-	-	-	17	-	54	-	85	-	24		
1984	17	-	7	-	-	-	2	-	-	-	164	-	53	-	59	-	34		
1985	22	1	-	-	-	-	1	-	-	-	6	-	68	-	149	-	37		
1986	32	-	7	-	-	-	2	-	-	-	-	-	88	-	85	-	42		
1987	23	-	7	-	-	-	-	-	-	-	76	-	148	-	50	-	51		
1988	21	-	13	-	-	-	2	-	-	-	27	-	28	-	77	-	25		
1989	34	-	8	-	-	-	-	-	-	-	2	-	164	-	96	-	77		
1990	58	-	7	-	-	-	-	-	-	-	3	-	169	-	34	-	40		
1991	16	-	2	-	-	-	1	-	-	-	5	-	73	-	26	-	35		
1992	10	-	1	-	-	-	1	-	-	-	-	-	-	-	43	-	24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 豫防接種

예방접종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체내에서 형성하여 병원체가 침입하더라도 그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감소시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에는 특정 전염병, 예를 들어 장티프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시적인 접종을 하

였으나 근래에는 DT, DPT같은 종합예방접종방식을 보급하여 영유아에 대한 조기면역체계형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980년대에 와서는 간염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요소가 됨에 따라 이의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자세한 접종율은 알 수 없으며 의료보험에 의한 건강진단시 이에 대한 검진도 하게 됨에 따라 상당한 수의 시민이 예방접종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90년 이후에는 0-4세의 유아에 대한 간염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비브리오장염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등을 통하여 발생 및 전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요질병에 대한 예방접종현황을 <表 3-98>에 나타낸다.

<表 3-98> 豫防接種現況

연도	장티푸스	콜레라	일본뇌염	B형 간염	D.T	D.P.T	소아마비	B.C.G	렙토스피라	기타
1981	341,340	357,517			36,428	85,059	76,789	65,650		37,839
1982	311,363	115,876			35,642	138,700	71,184	71,184		47,243
1983	273,013	121,762			35,115	123,997	130,446	80,003		41,960
1984	111,247	41,946			33,556	125,007	130,978	82,044		63,559
1985	44,617	19,524			37,567	128,538	144,686	78,693		932,757
1986	43,452	13,342			35,122	98,397	115,005	77,074		854,189
1987	48,636	23,314	570,024	251,788	34,923	73,325	83,288	62,865	-	849,044
1988	62,992	20,604	562,151	235,476	34,210	100,918	118,563	57,217	-	833,212
1989	55,364	8,906	359,453	265,454	37,644	115,051	133,235	61,654	-	841,049
1990	62,111	8,163	572,037	344,895	67,865	183,215	212,336	60,959	-	63,614
1991	36,434	-	561,986	365,184	31,184	121,485	138,390	69,052	-	3,942
1992	37,423	-	572,701	305,296	30,511	117,248	131,574	68,678	-	35,551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3) 患者早期發見과 集團防疫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최근에는 환경의 개선으로 자생적인 것 보다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외래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하여 오염지역에서의 입국자에 대한 보건검사, 과거 병력자등에 대한 등록관리를 통하여 보건자발견 및 사전예방활동도 아울러 펴고 있다<表 3-99>.

<表 3-99> 保菌者 索出事業實績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장티푸스	31,759	42,967	45,644	31,759	55,389	52,360	50,794	59,216	77,038
콜레라	16,188	4,592	4,891	16,188	2,050	1,287	2,555	2,465	2,360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412.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시민 개인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의 방역 소독장비를 갖추어 집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장비현황은 <表 3-100>와 같다. 또한 80년대 초 부터는 6월에서 9월 까지 매월 30일을 방역의 날로 정하여 시민과 합동으로 방역사업에 힘쓰고 있다.

<表 3-100> 防疫裝備現況

연도별	구급차	방역소독차량	動力噴霧器	車輛煙幕器	U.L.V
1981년도	6	12	12	12	1
1991년도	7	16	20	27	7

자료: 대구직할시, 《大邱直轄市政10年》, 1991, p.413.

4. 慢性傳染病의 管理

1) 結核

결핵환자는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의 향상과 결핵약제의 개선보급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아직도 완전히 추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表 3-101>.

2) 癩病

救癩사업은 해방이후 부터 꾸준히 이어져 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생관념이 철저해졌을 뿐 아니라 나병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게 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이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적절한 대

<表 3-101> 結核患者保健所 登錄狀況

연도	총계	양성	음성	재진찰	요관찰
1981	7,102	2,396	3,421	1,285	
1982	7,261	2,314	2,886	2,061	
1983	6,925	2,133	2,565	2,227	
1984	6,283	1,647	2,359	2,250	
1985	4,295	1,312	1,969	1,014	
1986	4,128	1,509	1,800	-	819
1987	3,678	1,246	1,431	-	1,001
1988	2,752	1,040	963	-	749
1989	2,279	830	729	-	720
1990	2,460	674	537	72	1,177
1991	2,437	504	478	86	1,369
1992	2,463	444	414	71	1,534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처를 하지못하여 민간단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수용시설과 치료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생계지원 까지 하고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에는 수용치료를 담당하는 애락보건병원, 카톨릭피부과의원, 구라선교회예수의원, 파티마병원 등이 나환자전문진료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여 수용치료기관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받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나환자현황은 <表 3-102>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새로 발견되는 환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멀지않은 장래에 나병은 퇴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表 3-102〉 癩患者現況

연도	총 계			재 가			수 용			신발견	사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1	533	327	206	346	228	118	187	99	88	15	7
1982	531	326	205	356	235	121	175	91	84	9	11
1983	548	341	207	376	251	125	172	90	82	9	3
1984	562	350	212	398	266	132	164	84	80	15	9
1985	560	350	210	400	267	133	160	83	77	2	3
1986	512	323	189	407	272	135	105	51	54	-	11
1987	519	329	190	419	279	140	100	50	50	5	5
1988	1,967	1,210	757	1,871	1,161	710	96	49	47	15	13
1989	2,050	1,269	781	1,962	1,227	735	88	42	46	8	20
1990	2,016	1,232	784	1,932	1,193	739	84	39	45	29	23
1991	2,009	1,228	781	1,926	1,189	737	84	39	44	27	22
1992	2,009	1,230	779	1,934	1,196	738	75	34	41	29	30

자 료 :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3) 性病

문화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에 따라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발병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었으나 성병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종 향락 사치 문화의 범람과 더불어 성생활의 문란이 주된 원인일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노출되지 않거나 검진을 기피하던 환자들이 검진과 치료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편점이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77년 11월 1일 보투 의료보호의 차원에서 일반국민중 성병에 감염된 자는 누구든지 전국의 보건소 또는 의료보호 지정 1,2차 병원에서 무료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이다.

더욱 적극적인 조치는 각 보건소에서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태부는 주 1회,接客부는 2주에 1회의 정기검진을 하도록 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감염원을 제거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性病檢診現況

〈表 3-103〉

연도	검진자	검진결과		성병감염별				
		건강	보균자	임질	매독	연성하감	비임균성 요도염	기타
1985	42,532	39,277	3,255	2,619	119	.	256	261
1986	88,947	83,925	5,022	2,461	148	.	1,792	621
1987	61,239	57,581	3,658	1,849	137	.	1,552	120
1988	59,517	55,351	4,166	1,878	237	38	1,752	261
1989	60,693	54,756	5,937	1,804	287	5	3,004	837
1990	64,324	58,945	5,379	1,183	338	.	2,696	1,162

자료 :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416-417.

5. 寄生蟲驅除

인분을 비료로 하는 영농법, 어류나 육류의 생식등으로 인하여 감염율이 높던 기생충은 식생활 환경의 개선과 적극적인 집단 구충사업으로 점차 감염자가 줄어드는 실정이나 아직도 일부 기생충의 경우는 꾸준히 감염자가 발견되고 있다. 농산물에 의해 감염되는 회충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등으로 중간숙주가 없어진 탓에 감염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태이나 디스토마 같은 생선이나 육류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는 아직도 일부 시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다름 기생충에 비해 감염율이 높은 편이다.

6. 家族計劃

1) 家族計劃事業實績

1962년대 부터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작되어 국민보건 및 인구조절정책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지금은 소자녀관의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시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계몽 및 지원사업을 벌였으며, 현재는 영세민 유배우자에게는 콘돔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정관이나 난관의 切除수술시는 무료시술과 함께 생계보조비조로 3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술은 지정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정의료기관 현황은 〈表 3-104〉와 같다.

〈表 3-104〉 無料診療 및 施術 指定病院 現況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수	112	149	152	165	175	173	172	173	181	180

자료: 보건과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실시로 우리나라 전체의 부인피임율은 1964년 9%에서 1981년에는 57% 1990년에는 77.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表 3-105>.

<表 3-105>

避妊率 増加趨勢

연도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실천율	57.0	57.7	60.0	70.0	70.4	71.4	72.4	77.1	77.1	77.1

자료: 보건과

2) 家族計劃事業의 促進施策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각종 사회지원사업을 벌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生業資金 優先融資와 福祉住宅賦金 優先融資

영세민에게 실시하던 생업자금융자제도를 가족계획사업에도 적용하여 2자녀 이하 불임시술자에게는 생업자금(200만원)과 복지주택부금 우선융자 혜택을 부여하였다(1982년). 1984년에는 중·장기 복지주택자금융자시 1자녀 불임시술가정에 우선융자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② 零細民 特別生計費 補助

1982년 영세민시술자에게는 2자녀 이하인 경우는 10만원 3자녀 이하인 경우는 3만원의 특별생계비를 지급하였다. 1986년에는 저소득 불임시술자의 특별생계비보조를 한자녀 단산의 경우 생보자는 30만원,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는 10만원으로 액수를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1989년에는 이를 2자녀 이하 의료부조대상자에게로 확대하여 5만원을 지급하였다.

③ 醫療保險 適用 擴大와 分娩費惠澤

1985년에는 장인 장모도 의료보험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남아선호로 인한 다산을 줄이고자 했으며, 1자녀 단산가정에는 분만비 무료혜택을 주었다.

④ 避妊機構普及 및 無料診療機關의 擴大

보다 피임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1985년에 숙박업소의 콘돔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86년에는 숙박업소에 콘돔보급함을 설치하였으며, 1987년에는 1차 무료진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보호지정병·의원으로 확대하였다.

⑤ 其他

1988년에는 자궁내장치 시술비는 전액 국고부담으로 시행하고 도시가족계획요원을 배치하였다.

7. 市立 保健施設

1) 墓地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망자의 수도 점차 늘어가는데 도시지역의 경우 이를 처리할 절대적인 임야가 부족하다. 더구나 대구의 임야는 대부분 공원 도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묘역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불법묘지조성이 종종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묘지의 형태를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립공원묘지와 시립공설묘지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립공원묘지는 1974년 4월 16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동 산 167번지 일대 국유지 136,859㎡를 유상대부하여 조성한 것으로 약 3,600기의 묘지가 조성되었다. 이의 관리는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지역 산74번지와 산167번지 일대에 7,600기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공설묘지는 서구 장기동 일대의 성서공동묘지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 산 1-1과 학명동 산145-1의 동명공동묘지,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 산13-2 일대의 동명가족묘지가 조성되었으나 성서공동묘지는 1988년 12월 21일 성서공단조성으로 폐쇄되고 칠곡의 묘지만 활용되고 있다.

공원묘지와 공설묘지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민에 이용범위를 제한하며,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묘지면적을 공원묘지는 5㎡, 공동묘지는 6.6㎡, 가족묘지는 30㎡로 제한하고, 공원묘지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1회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단, 연장가능함).

이러한 지속적인 묘지조성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묘지의 재고가 없을 것에 대비하고 또한 수요의 고급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1990년 부터 2001년 까지 12년간 시립묘지의 공원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계획에는 해마다 한식과 추석등에 성묘객이 몰려서 일어나는 교통혼잡과 주차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각종의 휴게소와 화장실등의 각종편의시설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2) 市立納骨堂

시립납골당은 위생적인 遺骸의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시립공원묘지내 대지 510평 건평 686평(지하1층)의 벽돌슬라브 건물 1동을 건립하여, 1979년 5월 15일 10년 계약으로 재단법인 현대공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납골당은 연고자실과 무연고자실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1기당 안치료는 25,000원(사용료 13,000원, 관리비 12,000)으로 영구관리한다. 우리나라

라의 전통적인 분묘에 대한 선호 때문에 납골당 이용실적이 저조했지만 인구증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의식의 전환으로 점차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1981년에는 이용자수가 134명이었으나 90년에는 415명이 이용하였으며, 10년간의 총 이용자수는 2,102명이다.

3) 市立火葬場

시립화장장은 1966년 5월 31일 수성구 고모동 산 113-3에 부지 45,349㎡ 건평 1,749㎡ (건물 2동)를 신축하고, 1986년에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화장로 9기를 최신시설로 개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의 화장장은 화장로 9기에 1일 54구를 처리할 수 있으며, 1구당 소요시간은 70분이다. 사용료는 15세 이상은 17,000원 15세 미만은 14,500원이다. 1981년의 화장건수는 2,925기, 90년은 3,566기로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Ⅳ. 社會福祉

1. 重點施策

80년대는 대구에서는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그 지위가 승격되어서 독자적인 행정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기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시기이다. 제5공화국은 출범초기에 「先進祖國 創造」 「福祉社會 建設」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복지증진에 의욕을 보이던 시기였다. 즉, 경제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일대 방향 전환이 시도된 시기인 것이다. 대구시의 시정방향설정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1983년 부터 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지금 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된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1) 生活保護制度의 擴充

저소득 시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래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고자 각종의 구호활동과 생업자금 융자,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및 직업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1990년부터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곤궁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호제도도 1989년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는 있지만 생활보호의 일환으로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책이다.

2) 社會福祉事業의 積極的 推進

복지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은 전문화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8년 가정복지국의 신설로 이들 사업은 더욱 적극적인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① 老人福祉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사회의 구조와 의식의 변화에 따라 가정에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경노당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경노우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무료건강진단 및 노령수당제도등도 실시하였다.

② 女性福祉 : 현대사회에서 그 역할이 점차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권리신장도 이루어 지고 는 있으나 빈곤 및 가정사정등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은 그 형편이 어렵다. 이들을 위하여 시에서는 모자복지사업 활성화, 직업보도, 부녀상담 및 윤락여성선도사업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1989년에는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각종의 교육과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왔다.

③ 兒童福祉 :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등으로 소자녀관이 정착되어 가정내에서의 아동들은 어느 정도 만족한 보육을 받을 수 있으나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들을 위하여 자매결연, 시설보호 및 입양알선, 탁아사업등의 시책을 펴는 한편 협소한 도시공간으로 인하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 확충등을 하였으며, 특히 1980년에 건립한 어린이회관은 아동교육과 놀이공간확보에 큰 몫을 하고 있다.

④ 靑少年福祉 : 청소년은 취학적령기에 있다고 보아 그간 학교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에 소홀하였으나 점차 사회가 혼란하여짐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청소년 전전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등 단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실과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위약계층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자활지원도 중요한 시책중의 하나이다.

⑤ 障礙人福祉 : 장애인의 노출을 꺼리는 전통적인 인습과 요구의 적극적인 주장이 어려운 탓에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직 그성과는 부진하나 이 기간의 특기할 만한 시책으로 꼽을 수 있다. 직업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생활안정서비스 외에도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장애인돕기운동을 벌인것 등이 중요한 사업이다.

⑥ 勤勞者福祉 :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고용근로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으나 그간 총량성장에만 치우쳐 근로자의 복지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80년대 후반의 근로자의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민주화의 추세로 인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와 임금 및 직업안정을 위한 노력 및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증강등을 주요시책으로 꼽을 수 있다.

2. 生活保護

1) 制度의 發展

사회보장은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가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사업은 생계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보호와 의료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로 구성된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생계보호를 위해 노력은 하였지만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60년대는 전면실시를 하지 못하고 70년대에 와서야 생계보호와 더불어 의료보호(1978) 및 교육보호(1979)를 실시하게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5공화국정부의 복지사회건설이라는 국정지표아래 마련된 영세민종합대책(1982.2.)에 따라 본격적인 구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 1981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위하여 직업훈련지원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영세민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의 연차적 향상을 통한 최저생계의 보장

둘째, 직업훈련지원대상자의 연차적 확대 및 직업훈련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훈련대상자의 가족생계비 지원

셋째, 대도시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과 대도시인구분산효과를 위한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지원사업의 실시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생업자금융자사업의 실시

다섯째, 생활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의 강화 및 일선생활보호행정체계의 인력보강을 위한 복지위원과 복지요원의 배치를 통한 생활보호관리체계를 개선 등.

이러한 제도의 확대실시와 함께 관계법령의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과거의 단순생계구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1982.12.31.)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구호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자활지원 까지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개별규정인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82.12.31. 폐지),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수업료지원규정(1983.12.30.폐지)을 폐지하고 이를 각각 자활보호 및 교육보호로 규정하여 동법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1984.3.31.).

현재 까지 큰 변동 없이 실시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생활능력이 없거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 그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보호를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을 행하여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분은 대상자의 생활상태에 따라

시설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나누며, 보호내용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및 장제보호로 나눈다. 자활보호는 직업훈련지원, 취업사업, 생업자금융자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구의 경우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구호하는 한편 지역적인 특수사정에 의한 복지시책도 추진하였던바 해방촌, 월남촌 같은 집단빈민거주지역에 전담공무원을 배치(1982)하여 이들의 생활지도와 함께 자립, 자활을 돕는 일 등이 그것이다.

2) 生活保護對象者の 推移

생활보호대상자는 매년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수가 달라진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表 3-106>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3-106> 生活保護對象者の 選定基準

연 도	구 분	소 득	재 산
1984	시설보호	36,000원 미만	2,300,000원 미만
1991	거택보호	55,000원 미만	6,000,000원 미만
	자활보호	65,000원 미만	6,000,000원 미만

자료: 사회과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생활보호대상자의 수는 <表 3-107>와 같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는 매년 늘어나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다.

3) 生活保護對象者の 支援 実績

생활보호내용에 따라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生計保護

생활보호대상자중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액과 지원기준의 변화는 <表 3-108> 및 <表 3-109>와 같다.

<表 3-107> 生活保護對象者 推移

연도	계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
1982	154,897	4,256	5,922	144,719
1983	123,465	5,250	5,031	113,184
1984	95,038	5,396	4,392	85,250
1985	90,413	5,359	4,837	80,217
1986	90,698	5,798	5,329	79,571
1987	94,772	5,858	5,521	83,393
1988	89,935	5,926	5,713	78,296
1989	83,389	5,938	5,496	71,955
1990	69,078	5,983	5,598	57,497
1991	69,362	5,939	5,775	57,648

자료: 사회과

〈表 3-108〉 생計費支援額(1인당 월평균) (단위: 원)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90	1991
거 택	12,504	12,990	13,615	16,395	22,423	27,300	29,900	39,000	43,768
시 설	21,958	22,909	24,097	31,380	36,744	40,300	44,000	48,000	49,700

자료: 사회과

〈表 3-109〉 생계보호내용

구분	연도	1981	1984	1987	1988	1989	1990	1991
거 택 보 호	백미(인/일)	299g	288g	341g	좌동	좌동	좌동	10kg(인/월)
	정맥(인/일)	138g	138g	85g				2.5kg(")
	부식비	세대/월	세대/월	세대주/일280원	320원	400원	500원	550원
		3,000원	3,596원	세대원/일30원	40원	45원	110원	200원
시 설 보 호		"	세대/원	세대/일	392원	410원	좌동	좌동
			4,056원	370원				
	백미(인/일)	432g	432g	456g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정맥(인/일)	138g	138g	114g				
보 호	부식비(")	265원	315.8원	400원 430원	450원	500원	500원	
	연료비(")	8.2원	27.04원	38원	45원	50원	좌동	좌동
	피복비(인/년)	26,700원	39,600원	39,600원	좌동	42,500원	43,600원	46,040원

자료: 사회과

② 教育保護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의 세습을 막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6년 까지는 중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다가 1987년 부터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실업계고교생 까지 학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의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 1-2학년에게 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991년 부터는 이를 실업계고교생 전학년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년도별 지원실적은 〈表 3-110〉와 같다.

〈表 3-110〉 교육보호실적 (단위: 사업량:명, 사업비:백만원)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사업량	5,922	5,031	4,392	4,837	5,133	13,285	12,593	14,651	15,998	12,805
사업비	1,000	1,064	929	1,024	1,087	2,602	2,668	4,116	4,965	4,450

자료: 사회과

③ 職業訓練

교육보호는 장기적인 투자로서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는 방법이나 이는 그 대상의 연령이 한정되므로 이를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정규교육을 받아 자립하는 시기 까지를 기다리기에는 사정이 급박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케 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업훈련지원사업을 실시한다(1982년 3월 1일 부터). 직업훈련자들에 대하여서는 훈련수당, 훈련중의 가족생계비, 식비 그리고 훈련전후에 훈련준비금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여 훈련중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훈련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5~35세미만으로서 기능습득을 희망하는 자이나 미장이나 목공등은 연령상한선을 45세로 한다.

직업훈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전국 공단직업훈련원과 노동부인정직업훈련원 및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설강습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훈련이수후 취업이 용이한 전산, 자동차정비, 통신, 미용등이며,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 모집인원의 30%를 영세민 중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훈련목표인원 및 훈련실적은 <表 3-111>과 같다.

<表 3-111> 직업훈련추진실적

연도	훈련목표	입소	퇴소	수료	취업(%)
1985	50	74		74	72(97)
1986	100	103		103	102(97)
1987	200	476	23	453	421(92)
1988	210	305	7	298	243(82)
1989	620	1,493	123	1,370	536(39)
1990	622	901		747	286(38.2)
1991	1,103				

자료: 사회과

④ 生業資金融資

소득을 얻는 방법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을 해서 임금을 받는 것과 투자를 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을 받기에는 부적합하나 자립의지가 강한 자에게 생업을 위한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생업자금융자는 1982년 영세민 종합대책에 따라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운영방법에 따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생업자금 융자의 두가지로 나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구단위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연리 5%, 1년거치 3년 상환조건(1991년 부터는 세대당 500만원, 연리 5%,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융자는 정부자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은행을 통하여 융자해주는 것으로 초기에는 융자금액을 200만원까지로 한정하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상환(100만원 이하는 2년 상환)에 연리 10%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액수가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여서 매년 상향조정하여 92년 현재는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5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6%를 적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은 <表 3-112>와 같다.

<表 3-112>		生活安定資金 및 生業資金 融資実績								(단위:세대, 백만원)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세 대	663	498	289	397	272	367	161	629	356	444
금 액	410	323	256	362	310	502	962	1,726	1,062	1,905

자료: 사회과

⑤ 就勞事業

직업훈련지원과 생업자금융자는 영세민대책중 비교적 장기적인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을 여유가 없는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세민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유희노동력을 공공고용으로 흡수하여 지역 개발사업에 투입하는 대책의 하나가 영세민 취로사업이다. 년도별 취로사업에 투입된 인원과 지급된 사업비는 <表 3-113>와 같다.

<表 3-113>		就勞事業実績								(단위:세대, 백만원)
연 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취로연인원(천명)	551	90	69	206	209	238	289	91	68	74
사업비(백만원)	2,590	572	592	1,444	1,365	2,014	2,075	897	709	739

자료: 사회과

⑥ 住居安定

주택가격 및 주택의 전·월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영세민의 주거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부터 정부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주택은행을 통하여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1990년에는 연리 7.5%(본인부담 5%, 시비부담 2.5%)에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954세대에 5,83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1991년에는 603세대에 2,80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 醫療保障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급여를 받는 의료보험과 보험료의 부담없이 재정자금으로 급여를 받는 의료보호로 구성된다.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으로 구분되며, 의료보호는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醫療保險

의료보험사업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험으로 급여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그 시행은 1977년 7월 1일에 가서야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실시하였다.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197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내의 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해나가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의료보험으로 지역의료보험을 시작하였다. 1989년 7월 1일부터는 지역의료보험의 실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게되었다.

1990년 말 현재 직장의료보험 수혜자는 677,737명이며, 지역의료보험 수혜자는 282,001세대이고, 의료보험조합은 직장조합 5개, 지역조합 7개이다.

2) 醫療保護

우리나라 의료보호의 효시는 고려시대의 東西大悲院과 惠民局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의료보호의 역사는 깊으나 근대적인 의료보호는 1977년 부터 실시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그 근간이다. 현행 의료보호는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의료보호 1종과 2종 및 의료부조로 구분하여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1종 대상자는 전액 무료진료, 2종 대상자는 외래진료의 경우 전액무료, 입원진료시는 본인 부담 30%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2종 대상자로서 진료비가 많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는 총 진료비의 10만원 초과금액을 무이자로 대불 받을 수 있다. 대불금 상환기간은 3년 이내로 금액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의료부조는 외래진료의 경우 방문당 진료금액과 진료기관 종류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정하여지며, 입원진료시는 총 진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1989년 7월 1일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보호 2종과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해 보험료는 면제하나 입원진료시에는 의료보험대상자보다 본인부담이 많은 점이 있어 92년 부터는 의료보험자의 부담율(20%)과 동일하도록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야기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 의료기관을 모두 의료보호 지정진료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981년 부터 1990년 까지 의료보호 수혜자의 진료실적은 <表 3-114>와 같으며,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表 3-115>와 같다.

〈表 3-114〉 醫療保護對象者の 診療実績 (단위:명)

연도	계	1종	2종	의료부조
1981	162,612	21,285	59,135	82,191
1982	167,548	26,371	77,763	63,468
1983	160,526	27,342	133,184	-
1984	139,877	28,847	111,030	-
1985	152,969	29,000	123,969	-
1986	193,683	29,112	79,571	85,000
1987	174,364	29,251	83,393	61,720
1988	159,575	12,357	78,296	52,907
1989	159,411	29,323	71,492	58,596
1990	126,450	29,411	60,652	36,387

자료: 사회과

〈表 3-115〉 醫療保護基金 執行現況 (단위:천원)

연도	계	진료비	행정비
1981	747,197	746,063	1,134
1982	2,263,080	2,258,752	4,328
1983	4,048,359	4,044,909	3,441
1984	2,231,018	2,228,411	2,607
1985	3,687,148	3,674,611	3,537
1986	4,187,748	4,176,787	10,961
1987	5,441,537	5,419,280	22,257
1988	8,023,936	7,971,991	51,945
1989	8,531,165	8,466,463	64,702
1990	7,680,212	7,591,220	88,992

자료: 사회과

4. 老人福祉

우리 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 인구로 규정하고 이들을 노인복지대상으로 하여 각종의 복지시책을 펴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의 계속적인 실시로 출생율은 저하하는 한편 생활 수준의 향상과 각종의 의료혜택의 증가 및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도 80년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60년에 55.3세 이던 평균수명이 1991년에는 72.1세로 높아졌고 따라서 노인인구도 1980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2.52%였으나 1985년에는 3.05% 1991년에는 3.8%로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복지는 초기에는 생활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로 무의탁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전체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1944년의 조선구호령에 의한 65세 이상 노약자에 대한 생활부조와 의료부조, 1961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장제보호등은 무의탁노인에 대한 복지시책들이며, 1981년 이후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노인회관과 경로당의 운영비지원 및 시내버스승차권지급과 각종의 경로우대제도들은 전체노인을 위한 복지시책들이다. 물론 80년대에 와서도 무의탁노인 또는 불우노인들에 대한 건강진단과 무료치료 및 각종의 서비스제공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老人福祉施設支援

① 養老院 및 療養院

65세 이상의 무의탁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각종의 장애나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노인을 입소시켜 돌보는 곳이 양노원과 요양원이다. 현재 대구는 4개의 무료양로원과 2개의 무료요양원 및 1개의 유료(실비)양로원에 364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다.

〈表 3-116〉 養老院과 療養院 現況 (1991년 말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대 표	시설허가일	정원	현원	비고
대구노인요양원	달서구 진천동 700	김희용	1989. 5.27	50	33	무료
대구성노원	달서구 진천동 700	이인숙	1970.12.14	60	34	무료
복음양로원	북구 관음동 723	박성옥	1965. 8. 4	90	80	무료
성산노인요양원	달서구 진천동 700	김희용	1989. 9. 8	50	26	실비
안나노인요양원	동구 덕곡동 산7	홍희탁	1991. 7. 1	50	39	무료
영락양로원	서구 상리동 산263	김경학	1962. 3.29	120	108	무료
화성양로원	수성구 상동 667-40	김경희	1961.11.11	60	44	무료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증·개축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한다. 1991년에는 1,053백만 원을 들여 노인복지시설 3개소를 신·증축하고(화성양로원 이전신축, 영락양로원 개축, 정안 노인요양원 신축), 6개 시설에 348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후원자를 물색하여 305명과 결연사업을 실시하고, 200명의 시설수용노인들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을 실시하였고, 월 1회 시설노인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② 敬老堂

경로당은 현대사회의 가족구조변화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가정에서 적절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동네별 또는 아파트 단지별로 건립된 노인 친목 및 휴식공간이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휴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도 공동으로 하는 동시에 각종의 사회활동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즉, 조기청소, 거리질서캠페인, 청소년선도활동 및 한문과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 경로당에 대하여 시는 월동기에는 난방용 연료를 지원하고 월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경로당의 수는 중구 20, 동구 86, 서구 62, 남구 44, 북구 72, 수성구 57, 달서구 75개 총 416개소가 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의 증개축에 대한 지원과 운영비의 지원 및 겨울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1991년의 지원기준은 운영비 월 2만원, 난방비 년 18만원이다.

2) 老人福祉事業

① 敬老優待制度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하여 처음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제도를 실시하였다. 초기의 경로우대제도는 철도와 지하철, 고궁, 능원 및 국공립박물관의 이용료는 50%를 할인하고 국공립공원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1982년 2월 부터는 이를 시외버스등으로 확대적용하고 시내버스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의 경우는 이용에 불편이 제기되어 1990년 1월 부터는 버스승차권을 발부하도록 하였는 바 이들의 실시내용을 <表 3-117>에 요약해서 제시한다.

<表 3-117> 敬老優待制度 實施 內容

대상·내용	실시일자	1980.5	1982.2	1990.1
철도(특급까지) 지하철 시외버스(완행) 시내버스		50%할인 50%할인	50%할인 무료승차	무료 승차권발급 (월12매)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목욕료, 이발료, 극장, 여객선		50%할인	무료 무료 50%할인	이발료재정지원 (년 45,000원) *

경로우대이발소 지정 운영:1개동 2개소씩, 총 282개소

자료: 가정복지과

② 無料健康診斷 및 治療

경로우대제도를 통하여 각종교통수단이나 편의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가정의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료건강진단을 1984년 부터 매년 7,500명에게 실시하고 있다 1차 진단 결과 질병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실시한 후 상병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지정의원에 의뢰하여 무료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무료치료는 노아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아의원에서 실시하는데 노아의원에서는 1990년 부터 재가노인들에 대해 연간 6,000여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③ 老齡手當 支援 및 老人能力銀行

소득의 중단 또는 상실로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소득의 보장이 되지 않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주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소득의 기회가 없는 취업희망자에게 소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1년 부터 노령수당제도와 노인능력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령수당제도는 거택보호노인중 가구주와 복지시설에 보호중인 70세 이상인 노인에게 월 1만원씩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991년 부터 실시하고 있다. 노인능력은행제도는 단기취업과 장기취업으로 나누어 각종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것으로 1989년에는 1,844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였고, 1990년에는 1,194명을 알선하였다.

④ 其他

건전한 노후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각급단체와 시립복지회관등에서 노인을 위한 장단기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5. 女性福祉

여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닐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및 육아의 책임을 짐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윤락녀와 미혼모의 문제등은 여성의 고통이자 사회문제로서 특별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각종의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여성의 자립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1) 母子福祉

모자가정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나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인습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경제적 곤란과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어 이들을 법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에도 산발적으로 이들을 보호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었으나 1989년 7월 1일 모자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었다.

대구시의 모자복지시설은 1978년에 설립한 목련모자원과 1984년에 개원한 기독교가정복지관의 2개소가 있는데 입소자격은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로서 18세미만(취학시는 20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무주택 여성이며 3년간 수용이 가능하다. 82년에서 91년 까지 목련모자원에는 81세대 287명이 입소하였다가 퇴소하였고, 기독교 가정복지관을 이용한 총수는 44세대에 174명(1987년 22세대, 1990년 85세대)이다.

모자복지시설에 수용되는 세대에 대하여서는 수용기간동안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퇴소후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퇴소정착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퇴소정착금은 84년 부터 세대당 50만원씩(국비 25만원, 시비 25만원)을 지원하다가 89년 부터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각시설수용자의 연령은 대부분 30~40세로서 대부분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자세대가 되었으며 비교적 학력이 낮아서 직업훈련과 알선이 보다 알차게 이루어져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²¹⁾

2) 職業輔導

가정불화 또는 빈곤으로 인하여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뚜렷한 기술이나 지식이 없으면서 자립의식도 없는 여성들은 자칫 윤락여성이 되기 쉽다. 시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수용하여 자립의지를 키우고, 자활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6개월 내지 1년간 시설에 수용시켜, 정신교화와 기술교육을 받게한 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시설은 카톨릭기술학원과 대구혜림원 두 곳이 있으며, 각각의 수용인원은 30명과 50명이다. 이들에게 가르치는 기술내용은 미용과 양재가 주를 이루며 86년에서 89년에는 일시 홈패션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90년 부터는 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82년에서 91년 까지 총 666에게 직업보도를 실시하였다.

3) 婦女相談

영세가정 및 모자세대등의 생활상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부녀상담소를 설치하고 부녀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 1975년 경상북도부녀아동회관에서 분리설치된 부녀아동상담소는 1978년에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독립건물을 신축이전하였으며, 1981년 직할시 승격 이후에는 각 구 단위로 7급 상당의 부녀상담원이 배치되었고, 1984년 7월에는 서구 성당동에 개소된 근로청소년회관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부녀상담소에서 처리한 상담내용은 주로 생활고, 구직, 가정문제, 신상문제등과 요보호여성의 문제들이며, 생활문제와 근로여성상담도 다수에 이른다. 1990년 1월 부터는 여성회관 상담실에서 전문상담인을 위촉하여 법률, 자녀교육, 인간관계등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81년에서 90년 사이 10년간의 상담실적은 총 87,102건이며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다.

21)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339.

4) 女性會館의 運營

대구시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여성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13일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438번지에 대지 4,115㎡, 건평 5,693㎡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여성회관을 신축하였다. 여성회관에서는 직업훈련, 기능양성, 직업안정사업, 교육 및 자원봉사활동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활동이 늘고 있다. 1990년의 영실적은 기능교육 840명, 취미교육 1,011명, 정신교육 2,400명, 탁아교육 498명, 취업알선 842명, 여성상담 2,255명, 여성교양대학운영 338명, 예식실운영 32쌍, 자원봉사인력은 170명등이다.

5) 淪落女性의 善導와 保護

윤락여성은 본인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서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양성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실태파악 조차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1984년 4월 실태파악과 대처방안모색을 위하여 시내 윤락가능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조사한 결과 11개 지역에 업주 158명에 접대부 228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선도사업을 펼쳤으며, 그 결과 현재는 4개 지역은 완전 정비되었고, 7개 지역은 완전정비는 되지 않았으나 점차 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이외에도 윤락가능지역과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과 상담 및 성병검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성병검진실적은 보건분야에 그 실적을 기록하였다. 1981년에서 1990년까지 총 22,400명을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실시하였는데 상담이 22,400명, 단속이 298회에 3,068명, 교양강좌가 13,569명등이다.

6. 兒童福祉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도 대상으로 하나 우선 과제는 그 긴급성과 필요성이 더 심각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처이다. 따라서 이항에서는 먼저 보호아동에 대한 대처를 먼저 살펴본 후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고찰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6·25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전쟁고아와 부양능력이 없는 미망인의 자녀가 발생함에 따라 임기응변적인 조치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보호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등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환경의 급변은

가출아동, 기아, 미아, 부랑아 등을 발생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정부는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이 법은 1981년에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그 보호자로 부터 遺失, 遺棄 또는 離脱된 경우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에 의하여 보호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아동은 기아와 가출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은 발견되는 경우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입양 및 위탁보호를 주선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있다. 국내입양과 가정위탁보호는 그 실적이 부진하고 국외입양의 경우는 6·25전쟁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경제사정이 나아진 후에는 사회윤리적으로 부당하다 하여 그 중단이 촉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영유아보호, 부랑아보호, 직업보호, 장애아보호 및 자립지원시설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의 처리를 위한 일시보호소와 아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1) 兒童福祉施設

아동복지 시설 및 수용아동수는 1981년 23개소 2,191명에서 1991년에 21개소 1,723명으로 매년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국가경제발전으로 인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가정생활의 안정 및 핵가족화와 해외입양주선등이 감소의 원인이다. 해외입양이 중단되는 경우 감소추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설보호외에도 소년 소녀 가장을 돌보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설보호를 필요로 했을 상당수의 아동이 거택보호를 받기 때문에 시설보호아동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1991년말 현재 아동복지시설(()안은 수용인원수)은 영아시설 2(173), 육아시설 18(1,502) 및 職轉施設 1(26)개소가 있다. 아동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증개축비와 장비보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아동보호시설은 국가와 시의 재정보조외에 외부원조결연 후원금과 지역사회기부금 및 자체수입등으로 운영하는데, 1991년의 보조기준은 부식비가 1인 1일 550원, 인건비로 총무는 월 381,000원, 보육사 253,000원, 피복비 1인 1월 46,040원 종사자급식 1인 1일 2,200원(연 240일분) 및 장의비 15만원등이다.

2) 兒童福祉事業

① 不遇兒童 結緣後援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전육성과 아동비용의 충당을 목적으로 1976년 부터 불우아동 결연 사업을 시작하였다. 기업체 및 각급기관관련자 등 사회각층의 관심있는 인사와 시설아동의

결연을 주선하여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인간적인 유대관계 까지도 연결하여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1981년 부터는 이를 민간 전문사회 복지사업기관인 한국 어린이재단에서 담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설아동의 결연후원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가정을 꾸려가는 소년소녀가장가정 결연 후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② 入養斡旋

고아, 미아 및 기아의 경우 시설에서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에 1976년도에 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이를 주선하고 있으나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관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그 실적은 발생 아동에 비하여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다. 입양알선자수는 1981년에는 242명이었으나 1991년에는 128명으로 줄었다. 그간의 총수는 2,021명이다.

③ 託兒事業

시에서 관장하는 탁아사업은 아동의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으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舊兒童福祉法에 의한 시립어린이 집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 부터는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동년 11월 7일의 새마을 협동유아원 설치계획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설시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부부가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아교육시설을 통합하여 관장하게 되었고, 종래에 유치원에 일임되어 있던 유아교육이 정부주도하에 공교육화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운영되던 새마을 유아원은 1991년 부터는 업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관장기관이 교육위원회로 이관되게 되었다. 개설수는 초기인 1982년에는 41개소, 83년에는 58개소, 84년과 85년은 59개소를 점차 그 수가 늘어났으나 86년 57개소 87, 88, 89년에 각각 55개소로 줄어들어 90년말에는 15개소만 남았다.

그 대신 1990년 부터는 정부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에 따른 탁아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차원의 탁아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어린이집과 놀이방등이 그것이다. 여성의 소자녀관의 정착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등으로 이러한 시설의 수요는 날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러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건전한 보육과 맞벌이부부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수는 40개소에 정원 3,927명, 놀이방은 91개소에 1,391명의 정원으로 설립되어 있다.

④ 어린이놀이터 設置運營

사회가 점차 도시화 되고 주거형태가 점점 아파트화 되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 수 있는 私的인 공간이 없어져 감에 따라 공공놀이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

한 놀이공간 및 유흥시설의 수요에 따라 주거전용지역, 아파트단지 및 소공원등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81년에 38개이던 놀이터 수가 90년에는 120개로 늘어났다.

⑤ 棄・迷兒 保護

절대 빈곤층이 많았던 시대에는 生活苦로 인한 棄・迷兒발생이 많았으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발생시에는 일시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하였다가 연고가 있는 아동은 귀가시키며 무연고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하거나 입양위탁을 주선한다. 그러나 어느 것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에 棄兒와 迷兒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발견되는 경우 보호자가 확인되거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귀가조치하고, 그 외에는 특수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위탁한다. 1981년에 864명이던 발생 아동수가 1990년에는 425명으로 줄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⑥ 施設延長兒童 自立 對策

아동복지시설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장아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관인학원등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기능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인 애활원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애활원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목은 운전, 자동차정비 및 봉제등인데 89년에는 128명을 90년에는 102명을 취업시켰고, 직업보도를 한 인원수는 각각 225명과 278명이다.

⑦ 婦女兒童相談所

대구시의 부녀아동상담소는 1975년 2월 경상북도 부녀아동회관을 대구시 부녀아동상담소로 개칭한 것으로 대구시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부녀자와 아동의 생활상담과 요보호부녀 및 아동들을 계몽지도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한다. 1981년부터 1990년 까지의 상담실적은 총 49,140건에 부녀상담이 24,014건, 아동상담이 25,126건이며 이용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⑧ 어린이회관

대구어린이회관은 수성구 황금동 산 136-2번지 일대 44,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2,715평(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1980년 10월 10일에 건립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놀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전당을 마련코자 1977년부터 백만인 모금 걷기운동을 전개하여 시민각계각층의 정성이런 성금을 계기로 건립하게 된 것이다.

주요 시설은 각종 전시관과 극장, 도서관, 과학오락실 및 식물원 등이 있으며 개관 첫해인 83년에는 1개월 반에 269천명이 입장하였고 그이듬해는 1,198천명이 입장하였으나 그후로는

조금 줄어 연 평균 80~90만의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다. 1990년도의 입장객수는 62만이다.

7. 靑少年福祉

종래 청소년 문제는 교육제도의 테두리내에서 학교청소년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다루어졌으나 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과정에 수반된 급격한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대두되어 청소년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다룰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청소년문제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어 청소년 육성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으며 1987년 11월에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88년 6월에는 체육청소년부에 육성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1990년 5월에는 청소년헌장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청소년육성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범위는 9~24세 사이이며 인구비율로 볼때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문제의 복잡성으로 보면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에서는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국의 설치를 계기로 부녀청소년과에서 담당하던 청소년업무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가정복지국내에 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청소년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청소년육성 시와 구에 지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차원의 청소년지도 및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88년 9월 부터 각동별로 20인내외의 동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 활용하고 있다.

1) 靑少年 健全活動支援

① 靑少年 利用施設 擴充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돕기위하여 시에서는 야간공부방, 수련원건립등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데 대구지역 청소년 이용시설은 총 55개소가 있다. (청소년회관 3, 교육관 1, 과학관 5, 도서관 5, 공부방 34, 체육시설 34, 심신수련장 1, 놀이마당 2, 야영장 2)

② 靑少年 夜間 工夫房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열악한 환경의 영세민 자녀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1987년부터 영세민 집단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총 34개소 3,031석을 설치한 것이다. 이들 공부방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봉사단체에서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2,270명이다.

③ 靑少年 綜合相談室

청소년의 고충상담, 취업 및 진로지도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에서는 체

육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아 1990년 2월 24일 청소년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하였다. 이 센타는 91년에는 그 명칭을 청소년 종합상담실로 개칭하였으며 운영은 한국선명회 영남지부에 위탁하고 교수, 의사, 법률가 등의 전문위원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청소년의 고충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1990년의 상담실적은 2,139건이며 주로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와 진로문제를 상담하고, 취업이나 교우관계 및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도 있다.

㉔ 靑少年 修練院 建立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달서구 송현동에 총공사비 56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6,000평, 연건평 2,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원을 91년에 착공하였으며, 93년 12월에 개관예정이다.

㉕ 靑少年 團體活動 支援 및 靑少年 프로그램 運營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의 운영비 지원, 청소년들의 단체활동권장, 지역단위 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우수지도자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10개 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이들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푸른분수대, 건전가요 경창대회등 매년 40여회 3만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 급기관과 단체의 청소년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㉖ 模範靑少年 發掘 表彰과 指導者 教育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청소년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선도보호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1989년 부터 대구직할시 靑少年大賞제도를 마련하여 대상, 효행, 노력, 봉사 등 4개 부문에 시상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현장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해 洞靑少年지도위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도자연수도 하고 있다.

2) 危弱階層 靑少年 保護支援

일반청소년의 건전육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은 무엇보다 긴급한 문제여서 시에서는 이들을 위한 호로그램으로 자립기금의 조성, 무직 및 미진학 청소년의 보호, 근로청소년의 보호지원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㉗ 靑少年自立基金造成과 無職 및 未進學 靑少年 綜合管理

도시영세민 자녀들의 진학,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지원 등을 통해 자활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1986년 부터 1995년 까지 청소년자립기금 10억원을 목표로 지방비, 성금, 利殖금 등으로 기금조성을 시작하였다. 1993년 부터 무직미진학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989년 5월 1일 기준으로 시내 전역에 걸쳐 무직 및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9명이 파악되었으며, 이들을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욕구와 적성에 따라 직업훈련, 취학, 취업알선, 결연 등의 보호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② 勤勞青少年 保護支援

대구지역의 경우 청소년인구의 10% 가량이 근로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취학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로 정서적인 면에서 위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들의 정서함양, 창작능력개발 및 사회관심을 제고시키고자 1989년부터 매년 청소년야간학교 학생등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 문학, 음악 등 3개 부문의 문예행사를 개최하고, 산업시찰과 체육대회를 열어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면학지원을 위해 매년 청소년야간학교 17개교에 연료비지원과 도서보내기운동을 통한 도서지원도 하고 있다. 1990년의 근로청소년총수는 76,819명이다(남 28%, 여 72%).

3) 青少年 有害環境 淨化

청소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원인중의 하나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청소년 위약지역에 대한 선도활동 강화 조기귀가 유도 및 청소년보호구역설정등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위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역, 공원, 유흥가밀집지역등 으로 구분하고, 1989년 10월 부터 동청소년선도위원을 중심으로 선도대책반을 편성하여 주1회이상 유해업소 지도계몽 및 청소년출입단속, 배회청소년 조기귀가유도등 탈선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야간배회청소년들의 조기귀가유도 및 청소년선도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985년 7월 부터는 시내 중심가, 공원 지역 등 4개소에 “사랑의 종”을 설치하여 매일 22:00에서 23:00 사이에 선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 종은 1990년 11월 부터는 32개 위약지역에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탈선은 주로 유해업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판단에서 1990년 2월 부터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虞犯요인이 있는 중구 도원동과 용덕동 일대등에 청소년보호구역을 설정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하여 유해환경으로 부터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성년자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자로 개정공포되어 더욱 확고한 의지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청소년선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건전육성 시민토론회 개최, 유해환경 추방 및 청소년선도 가두캠페인 전개 및 청소년선도 垂範사례집 발간 등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쟁점사안에 대한 팸플렛과 리플렛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이다.

8. 障碍人福祉

현대사회의 복지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에서 장애인들은 적극적인 복지의 수혜대상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와 아울러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치료, 교육, 취업알선등 장애유형에 알맞는 재활대책과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제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공포하였고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1년 1월 1일 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여 제도적으로는 장애인복지의 기틀이 어느정도 완비된 셈이다.

1) 障碍人實態

장애인의 복지는 장애인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자활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1988년 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5,054명이었으며, 89년 6,823명, 90년 7,991명, 91년 8,236명으로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수첩을 교부하여 직업훈련기회의 우선부여, 시내통화전화요금감면, 보철영수용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 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허용, 보장구 무료지급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수용보호장애인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2) 在家障碍人福祉

① 醫療再活서비스

많은 장애인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생활곤란으로 인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있다. 시에서는 의료재활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하여 1990년 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에 부설된 재활의료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1991년 부터 보장구교부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의료비부담이 과중하여 장애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228천명에게 55백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

② 職業再活서비스

장애인들은 신체의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직업기회도 상실하여 생활의 곤란과 자립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시설과 종합복지관 등에서 전자, 인쇄, 공예등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82년 7월 부터는 장애자 재활협회 대구 경북지부에 장애인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1991까지 총 1,050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다. 직업훈련 인원은 총 206명이며 6개월에서 1년 까지 전산, 금은세공, 보석가공, 전산기기 및 도자기등에 관한 기술을 배운후 취업한다.

한편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적성직종의 기능을 습득하여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장애인 재활시설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은 수용근무와 통원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월 평균 임금수준이 1~3만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²⁾

③ 障碍人 生活安定 支援

보다 직접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적 지출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시책도 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속세, 소득세의 과세가격을 공제하는 한편 장애인용 물품구입시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거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3등급 장애자가 1,500cc이하의 보철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자가 사용하는 전화요금도 장애등급에 따라 20~40% 까지 감면하고 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하여서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에게는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90년 부터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층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000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장애인 수는 90년에는 205명, 91년에는 228명이었다.

④ 在家障碍人 利用施設 擴充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원시

22)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369.

설을 보다 다양하게 설치하여 이들의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1984년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와 공공건물, 통신시설등에 각종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1991년 현재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은 맹인용음향신호기 29, 횡단보도유도바닥체 180, 횡단보도턱낮추기 1,032, 장애자용 공중전화기 67, 장애자용 경사로 33, 장애자용 변소 4, 장애자전용주차장 1 등이다.

3) 障碍人福祉施設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을 수용 또는 통원하게 하여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교육, 훈련 및 요양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1991년 현재 대구시에는 8개 시설에 1,258명의 장애인을 수용 보호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시설현황은 <表 3-118>와 같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시설은 단순수용이 아니라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5년 이후부터 현대화작업을 펴고 있다. 노후시설을 증·개축하는등 의료재활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表 3-118> 장애인복지시설현황

시 설 명	시설종별	소 재 지	설립연도	수용정원(총 1,135명)
청구혜양원	지체성인	경산 와촌	1957	125
대구안식원	지체성인	북구 복현동	1959	70
성보재활원	지체아동	북구 복현동	1960	185
애망원	지체영아	수성구 파동	1953	95
인제요양원	중증장애	수성구 수성4가	1949	180
선명요육원	중증장애	수성구 시지동	1989	65
일심재활원	정신박약	동구 각산동	1962	145
자유재활원	정신박약	수성구 시지동	1953	270

자료: 사회과

9. 勤勞者福祉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제일주의라고 할 만치 경제성장에 그 힘을 쏟았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로자복지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최근 수년간은 과격하고 급격한 노사분규를 겪게 되어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 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근로자의 복지는 근로조건 개선의 기본으로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직업안태등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노동조합활동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 임금실태와 직업안정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勞動組合

대구지역의 5인이상 사업체수는 7,625개 근로자수는 27만 4천여명이다.²³⁾ 노동조합의 결성은 1980년 산업별체제에서 기업별체제로 바뀌었으며, 1987년에는 조합설립형태를 근로자의 자율의사에 맡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결성과

〈表 3-119〉 勞使紛糾現況

연도	계	적법	불법
계	502	314	188
1981	-	-	-
1982	1	1	-
1983	-	-	-
1984	1	-	1
1985	1	1	-
1986	3	3	-
1987	166	-	166
1988	139	128	11
1989	158	148	10
1990	33	33	-

과 가입근로자수가 급격히 늘어 1991년말 현재 대구지역 각급조합수는 424개에 가입자는 60,668명이다.²⁴⁾ 1981년의 120개 조합 20,745명에 비하여 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율의 증가와 더불어 노동쟁의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99%)은 1987년 6·29선언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3-119). 분규의 원인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이 주를 이었으나 점차 주택문제, 학자금,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²⁵⁾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376~377.

2) 賃金 및 職業安定

임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복지의 기본이다. 1979년까지는 노동청의 권유형식으로 최저임금선을 정하여 임금인상작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매년 명목상의 임금은 인상되었으나 물가와 생계비상승율을 따르지 못해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개선에 미흡하였다. 1980년 부터는 임금인상을 노사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꾀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업종간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노사분규의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다.

23)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2

24)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1992

25)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1967년 근로자에게는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하며, 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충족시켜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1989년 6월 16일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 직업안정에 더욱 원할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시에서도 기존의 유료직업안내소의 건전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직업안내소를 허가하는 한편 무료직업안내사업도 보다 활성화하여 직업안정에 보다 적극성을 띤 시책을 추진하였다. 현재 유료직업안내소는 26개이다.

3) 勤勞靑少年 福祉施設

시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복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달서구 성당동 72-10번지에 대지 6,516평 건물 3,323평(지하1층, 지상3층)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지어 각종 교육 및 여가시간활용 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대아파트 500세대의 주거시설도 갖추고 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는 4박 5일의 교육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교육 모성교육등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1990년의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교육실적은 일반교양교육 15기에 1,117명, 취미교육 3기에 998명이다.

V. 環境行政

환경행정은 70년대 80년대 초반 까지도 그 중요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도시의 인구 집중과 산업화등으로 도시의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지자 뒤늦게 이의 심각성을 인식 적극적인 대처를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70년대 후반에 시작한 자연보호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해방지에 관심을 기울이다가 후반기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종합적인 대처를 하기 시작하였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이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1982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였고, 85년에는 대규모 매립장을 건설하였으며, 90년에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가동중이다. 또한 분뇨의 위생적이고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83년에 재래식 변소의 분뇨수거를 모두 흡인식수거로 수거방식을 바꾸었고, 이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75년 부터 가동중이던 종말처리장을 91년에는 대폭 증설하였다. 또한 하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87년에 달서 하수처리장을 건설 가동중이며, 산업체의 폐수로 인한 오염을 막기위하여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986년 부터 시작한 팔공산과 앞산의 자연휴식년제등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시책들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 보건사회국 도시계획국등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있고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 1991년 7월 월에는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였다. 환경오염은 쓰레기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과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등 주로 인간에 의한 작위적인 오염이다. 당국에서는 오염원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적극적인 자연보호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이를 청소행정과 환경행정 및 공해방지로 나누어 그간의 시책을 살펴본다

1. 清掃行政

청소행정은 직할시 출범당시는 보건사회국 청소과에서 담당하다가 환경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87년 명칭을 환경관리과로 변경하고 환경관리업무 까지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1990년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분리되면서 담당관제를 신설하여 청소담당관 아래 청소 1계와 2계를 설치하게 되자 다시 단독 청소업무만 관장하게 되었으며, 1991년 7월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면서 환경녹지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1) 쓰레기

대구시의 생활쓰레기는 그 배출량이 1981년에 1인 1일 1.6kg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1991년말에는 2.07kg으로 늘어 하루평균 총배출량이 4,623t이나 된다. 쓰레기의 양이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 자신이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은 무조건 버리는 습관으로 인한 영향도 크다. 따라서 시에서는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대책에 못지않게 쓰레기의 감량을 위한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분리보관 수거와 재활용품관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대책들이다. 발생한 쓰레기의 경우에도 최근의 쓰레기는 불연성이거나 썩지 않는 소재로 된 것이 많아 매립장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2년 부터는 쓰레기를 定日定時에 수거함으로서 매일 수거구역을 확대하고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분리수거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제 1 단계에서 각구당 2개소씩 시범으로 실시하던 것을 1982년 7월 부터는 매일수거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의 처리를 시의 장비와 인력으로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체수거제도 확대실시하였는데 1982년에는 1일 0.5t이상 배출하는 업소 및 희망하는 APT등을 대상으로 총 164개소가 대상이 되었다.

(1) 쓰레기의 發生과 收去

① 쓰레기의 發生과 收去

10수년 전만 해도 쓰레기의 종류가 단순하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쓰레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여 모든 쓰레기는 한데 모아 일괄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1981년 부터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도 인식하고, 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쓰레기의 감량화 자원화를 노력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可燃性쓰레기와 不燃性쓰레기를 분리토록하고 재활용품은 미색 봉지, 기타쓰레기는 검정 봉지, 연탄재는 별도용기에 담아 내놓도록 하였는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고작 실천에 옮긴 것은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의 분리 정도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까지만 해도 고물상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러 골목 골목을 다녔기 때문에 기타 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으나 80년대 후반 급격한 소비증가와 노동에 대한 가치혼란 재활용품 활용자들의 활용기피등이 원인이 되어 고물상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재활용가능한 유리병, 알미늄 캔, 종이 등이 마구 버려지고 플라스틱이나 비닐제품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기타 쓰레기에 섞여 쓰레기의 양이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1981년에는 시 전체 377,742가구가 버린 쓰레기의 총량은 998,611t 수거율은 98%에 978,639t이었으나 1991년에는 총 640,396가구의 배출량은 1,687,570t 수거율 98%에 1,659,375t이 수거되었다<表 3-120>.

<表 3-120> 쓰레기 배출량 및 수거량

연도	가구	배출량(t)	수거량	(t)수거율
1981	377,742	998,611	978,639	98
1982	413,683	1,065,929	1,044,611	98
1983	441,042	1,126,577	1,072,931	95
1984	462,535	1,231,498	1,179,490	96
1985	486,843	1,239,830	1,194,778	96
1986	506,529	1,378,240	1,335,170	96
1987	520,794	1,383,918	1,342,758	97
1988	555,058	1,477,885	1,450,875	98
1989	574,413	1,528,985	1,493,945	98
1990	596,701	1,668,958	1,631,297	98
1991	640,391	1,687,570	1,659,375	98

이들 쓰레기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역시 매년 보강되어 91년말 현재 2,415명에 손수레를 제외한 차량 1,31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81년과 대비하면 <表 3-121>과 같다.

청소인력 및 장비

〈表 3-121〉

연도	인 력				장 비	
	계	운전원	감독	환경미화원	수거차	리어카
1981	1,199	111	22	1,066	106	552
1986	1,438	147	34	1,257	106	685
1991	2,415 (411)	308	1,007		(76)	(159)

자료: 81, 86년은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91년은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2.
91년의 () 안 숫자는 청소대행업체의 보유 숫자임

② 收去與件의 改善

종래 청소원으로 칭하던 쓰레기 처리요원의 호칭을 환경미화원으로 개칭하고 또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작업안전을 위해 1983년 부터는 야광안전 조끼를 착용토록 하였다. 교통사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청소차량의 경우 종래 담프차량에만 의존하던 것을 1990년부터 압착식 차량으로 개체토록하였는데 91년의 경우에는 총 308대의 차량중 일반덤프는 215대(39)이고, 압축차 43대(20), 롤온 28대(10), 순찰차 9대(2), 중장비 13대(5)등으로 구성되고 있다-()안은 그 중 청소대행업체보유차량수. 이로 인하여 작업능률의 향상은 물론 운행시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쓰레기수거를 알리는 방법을 종래의 타종식에서 차량에 확성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노래를 통한 신호를 하는 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방법등의 홍보도 하고 있다. 쓰레기 보관장소도 공지나 노상에 설치된 개방식을 없애고 롤온박스를 배치하여 신속한 수거에 도움을 주었으며 쓰레기로 인한 악취나 해충의 피해도 줄여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게 되었다.

(2) 쓰레기 收去業務의 改善

① 쓰레기 自體收去와 收去業務의 民間委託

도시가 날로 복잡해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시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83년 1월 1일 부터 다량 쓰레기 배출처에 대해서는 자체수거제도를 실시하였다. 자체수거를 함으로서 인력과 장비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잇점이 있다. 1990년 말 현재 자체수거 의무자는 16개 업체에 수거량은 27,397t이다.

쓰레기 자체수거제도의 정착과 함께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위탁사업도 실시하였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밀집지역등에 대해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는 각 구별로 1개씩 지정되어 있다.

② 쓰레기 分離收去制度의 定着

1981년 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은 각 통별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또는 통·반장이 주 1회 이상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집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각 동별로 재활용품 알선 창구 개설, 재활용품 운송차량 지원, 집하장 마련, 판매알선등을 하고 매주 재활용품 수집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의 감량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및 재활용품 활용으로 인한 자원절약의 효과도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제도에는 시민단체의 호응도도 높아 단체별로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마련하는가 하면 재활용품을 이용한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여 시정에 기여하고 있다. 분리수거는 82년에는 그 지역을 12개동에서 74개동으로 확장하였으며, 1992년에는 분리수거의 보다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고층아파트 쓰레기 투입구를 모두 폐쇄하였다.

연탄재의 경우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버리도록 하여 쓰레기매립장 복토용과 저습지 매립, 농토개량용으로 사용토록하여 연탄재로 인한 일반쓰레기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收去方法의 改善

쓰레기 수거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매일수거지역 확대, 정일정시 수거, 주민편의 위주의 수거노선 조정등을 통한 쓰레기 수거체계를 조정하였다.

④ 街路 休紙桶의 설치

가정이나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못지 않게 가로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청소행정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가로 휴지통은 쓰레기 수합장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주어 제작 소재나 규격도 매우 중요하다.

1981년 까지는 대중집합장소나 버스승강장에 철제로 만든 원통형을 설치하여 매년 도색 수선 관리하여 그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82년 부터는 소재와 모양 규격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 가장 많은 형태는 사각철제형이며 사각스텐, 인조목, 향로형, 콘크리트, 원통, 철망등도 사용되고 있다.

(3) 쓰레기 終末 處理場 設置

80년대 중반 까지는 수집된 쓰레기를 시가지내의 저습지 매립에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별도의 매립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고, 매립한 쓰레기는 매립수혜자가 토지 등의 조성을 위해 매립지를 복토 정지하여 이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증가,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쓰레기발생증가와 1회 용기등의 사용증가로 쓰레기가 자연산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쓰레기의 문제가 대두된데다가 저습지와 구릉지는 거의 매워져 80년대 중반부터는 매립지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1년 부터 부분적으로 계획해 오던 매립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조성한 것이 대곡동 쓰레기 매립장이다. 대곡동 매립장은 1985년 연면적 282,285㎡에 매립량 410만톤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86년 2월 부터 1일 4,000여톤을 매립 1990년 4월 까지 매립완료하였다. 대곡동 매립장이 거의 다 차 갈 무렵인 1987년에는 방천동(달성군 다사면 와룡산 소재)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0년 5월 1일 부터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 방천동 매립장은 596,764㎡에 1,50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며 99년 12월 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쓰레기를 매립에 주로 의존하고 있지만 매립지를 시가지에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운반비용부담과 도시 교통량 증가를 유발시키는 한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 매립지확보난이 문제가 된다. 또한 온갖 쓰레기가 혼합 매립되기 때문에 매립지 주변 토양오염 또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매립일변도의 처리방식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한 끝에 매립쓰레기도 줄이고 보다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1984년에 쓰레기소각처리장 건설을 계획하였다. 쓰레기 소각처리장은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내에 설치하여 쓰레기를 소각처리함과 동시에 폐열활용시설도 병설하여 건설되는데 85년에 계획 설계를 시작하여 사업기간을 90년 8월에서 92년 12월 까지로 잡고 있다. 소각 규모는 하루 200t이며 93년 1월 1일 부터 가동 예정이며 주식회사 대우와 일본 히다찌 조선의 합작으로 건설중이다.

2) 糞尿

(1) 糞尿排出과 收去

① 糞尿의 排出과 收去

통계에 의하면 1인이 하루에 배설하는 분뇨는 대변 0.14l, 소변 0.9l, 합계 1.04l라고 한다. 과거에는 이들 분뇨를 자연으로 환원하여 비료로 사용하였으나 화학비료의 대량생산으로 이들 기능이 사라지고 또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사용처 마저 감소하여 현재는 많은 양을 수거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뇨는 정화처리하지 않은채 자연으로 침투될 경우 수질오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료화 하지 않는 분뇨는 모두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총 배출량의 절반정도를 수거하여 하수 종말처리장을 통하여 정화처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체정화조에 의한 정화, 농지환원 및 지하침투 등 자연처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되는 분뇨는 수세식 정화조의 보급확대로 점차 생분뇨 보다는 정화조 汚泥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분뇨의 배출과 처리상황은 <表 3-122>와 같다.

〈表 3-122〉 糞尿의 輩出과 實態

연도	실태 수 거 구역내 인 구	배출량 (kl/연)	처		리		1 일 평 균		수거율
			자연 처리	수 거		배출량	수거량		
				계	분뇨			정화조	
1981	1,675,753	611,375	351,278	260,097	218,168	41,929	1,675	726	43.3
1982	1,788,718	652,620	389,820	262,800	213,152	41,929	1,788	779	43.5
1983	1,875,970	684,375	398,939	285,436	226,512	58,929	1,875	808	43
1984	1,938,128	707,370	401,865	305,505	221,453	84,052	1,938	837	43.2
1985	1,964,838	789,925	472,375	317,550	207,620	109,930	1,965	869	44.2
1986	2,031,152	819,815	493,775	326,040	198,519	127,521	2,031	893	43.9
1987	2,115,272	821,768	501,404	320,364	183,587	136,777	2,115	878	41.5
1988	2,185,956	817,235	433,985	383,250	221,920	161,330	2,186	1,050	48
1989	2,288,441	835,120	459,521	375,599	205,217	170,382	2,288	1,110	48.5
1990	2,356,517	819,474	441,212	378,262	184,772	193,490	2,356	1,112	47.6
1991	2,236,025	832,565	376,315	456,250	167,535	288,715	2,281	1,250	54.8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429~430.
(1991년 자료는 《대구통계연보》와 《市政白書》에서 구함)

② 糞尿收去 體制의 變遷

채래식 수거장비가 흡인식으로 완전히 바뀐 것은 1983년이다. 흡인식 수거체제로 바뀐 후부터는 수거인부도 줄어 1981년 315명이던 인부가 1991년에는 129명으로 되었으며 수거차량은 81년의 흡인식 47대 채래식 11대였으나 1984년에 모두 흡인식으로 대체함으로써 흡인식 104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분뇨의 수거는 채래식변소의 분뇨와 정화조 오니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다. 채래식분뇨의 수거는 1981년에는 대구위생(북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북대구위생(북구)사가 수거하였으나 현재는 7개사가 대행하고 있다.

수세식 변소의 확대 보급으로 1975년 부터는 정화조 오니수거를 분뇨수거에서 분리하였다. 초기에는 대구위생등 5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업체가 늘어 1981년에는 35개의 등록업체가 수거를 하게 되었다.

1983년 3월 오물청소법상 정화조 청소업체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다. 業態 不實 및 경영난 등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83년 8월 난립한 수거업체를 18개 업체로 자진폐업, 합병등을 통해 정리하고 수거책임구역제를 시행하여 1개 구청을 3개업체씩이 전담케 하였다. 1988년 달서구 신설로 서구 남구 달서구는 2개업체씩 수거책임 구역을 일부 조정하였다. 현재는 18개 업체가 분담하고 있다.

(2) 糞尿收去業務의 改善과 收去費

① 吸引式 收去의 擴大

1981년 당시 분뇨수거 장비 차량은 총 58대로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은 흡인식 차량 47대로 수거를 하고 차량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재래식수거차 11대가 목두에 의하여 수거하여 악취 오염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는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83년 84년 2년에 걸쳐 목두에 의한 재래식 수거차량을 모두 고성능 진공모터를 부착하고 흡입호스의 길이를 50~150m로 연장하여 골목안도 흡인식 수거가 가능케 하였다. 현재는 100% 흡인식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② 車輛의 脫臭器 附着과 電話申請接受

분뇨수거시에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을 덜고자 1988년 10월 부터 4개월에 걸쳐 모든 수거차에 가스분출구 탈취기를 부착 한 후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한 수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수거의뢰 접수를 실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在來式便所 容量 標札制

분뇨수거료와 관련된 시비를 없애고 민원을 줄이고자 재래식변소의 경우 용량표찰제를 실시하였다(1982).

(3) 糞尿의 終末處理

1975년 까지는 수거해온 분뇨를 간이저장탱크에서 부숙시켜 비가 올 때 팔거천등을 거쳐 금호강으로 방류해왔으나 인구증가로 더 이상 이러한 시설로는 분뇨처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75년 보사부의 사업승인을 얻어 분뇨종말처리시설을 하게 되었다. 1976년 10월 1일 100kl를 처리시설을 준공하였다. 그후 증설을 거듭하여 1991년 12월에는 1일 1,200kl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1987년 부터는 달서천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를 하고 있다. 분뇨의 종말처리장은 「대구위생처리장」이라는 명칭으로 서구 상리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처리방식은 2단계 활성오니법과 호기성소화법이다.

2. 公害防止

1) 環境汚染 實態

환경의 오염은 매연, 먼지, 가스, 악취등에 의한 대기오염, 폐수, 분뇨등에 의한 수질오염과 기계, 기구등에 의한 소음과 진동 및 농약이나 유기화학물질, 산업폐기물등에 의한 토양오염등이 있다. 이러한 오염들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호 연계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오염도를 상승시키기도 한다.

(1) 公害排出業所

공해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공해배출업소는 1981년에 비하여 두배 가량이나 되고 있다<表 3-123>.

<表 3-123> 公害輩出業所の 増加推移

연도	사업체수	공 해 배 출 시 설 수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1981	2,276	2,964	946	415	1,598
1982	2,346	3,398	1,055	423	1,920
1983	2,421	3,178	1,107	484	1,587
1984	2,407	3,166	1,141	555	1,470
1985	2,503	3,434	1,234	578	1,622
1986	2,664	3,557	1,277	684	1,596
1987	2,867	3,957	1,325	731	1,901
1988	3,447	4,846	1,517	971	2,358
1989	3,783	5,289	1,709	1,084	2,496
1990	3,991	5,801	1,863	1,269	2,669
1991	4,358	6,222	2,030	1,465	2,727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436. 1991년 자료는 《市政白書》, 1992

(2) 環境汚染의 實態와 原因

① 水質汚染

대구는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양 수계의 물을 식수와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금호강의 강수량 2/3이 하기에 집중되어 거의 홍수로 유실되는가 하면 영천댐에서 포항을 송수하는 탓으로 사용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며 유지수 또한 부족하여 오염도가 높은 형편이다. 또 각 하천에 공장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완전 정화처리 되지 않은채 유입되어 오염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구지역의 하천은 낙동강과 금호강등 2개의 직할 하천과 지방하천인 신천 및 준용하천 16개가 있으며 총 유역면적은 26,741.98km² 연장은 132.4km이다. 하루 폐·하수 배출량은 951톤이며 이중 폐수는 158톤으로 16.6%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생활하수인데 대부분의 준용하천이 하천기능을 상실하고 폐·하수의 배출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② 大氣汚染

산업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등에 따른 자동차증가와 매연배출업소의 증가 및 각종 공해발생연료사용의 증가등으로 오염발생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는 서북쪽에 공단이 있어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에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의 오염도가 특히 심하다. 또한 지형

상 분지로 오염물질의 정체도가 높은 것이 대구의 특징이다. 대기오염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뿐 아니라 기상과 지형조건이 함께 작용하여 오염도를 높게 되나 오염물질이 대기에 방출된 후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사전 대책만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현재 대구시의 대기오염도(()안은 환경기준치)는 아황산가스 0.041ppm(0.05이하), 옥시단트 0.010ppm(0.020이하), 먼지 109 g/m³(150이하)로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으나 거의 육박하는 상태이다. 91년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262,000대이다.

③ 騒音과 振動

소음은 자동차, 철도 항공기, 건설공사장, 공장, 행상인이 사용하는 확성기등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동차에 의한 소음이다.

진동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배출되는 공장기계, 기구의 반복적 진동과 건설작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나 소음 만큼 그 피해범위가 넓지는 않다. 소음은 개인이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며 대부분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대책에 소홀하기 쉬운 오염양상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구의 소음도는 <表 3-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시민의 경우는 각종 음향기기의 발달과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도로변 상가와 행상인들의 확성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빈발한다.

<表 3-124> 騒音度 現況 (1991년, 단위:db)

구분	일 반 지 역						도 로 변			
	주 거 전 용		일 반 주 거		상 업		일 반 주 거		상 업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환경기준	50	40	55	45	65	55	65	55	70	65
소음현황	57	50	62	51	64	57	72	64	73	66

자료: 대구직할시, 《市政白書》, 1992, p.447.

④ 有害化學物質과 産業廢棄物의 被害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1만여종이다. 화학공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 종류와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유독물에 의한 중독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각종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폐물질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환경오염의 심각도를 더하게 한다. 대구지역의 유독물 취급업소는 1990년 말 현재 132개,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특정폐기물 배출업소가 759개소 일반폐기물배출업소가 589개소이다.

2) 環境保全對策

成長優先의 경제정책과 수출입국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에 생산만을 독려하다 보니 넘치는 상품의 홍수 속에 시민의 소비풍조는 덩달아 치솟게 되어 기업과 시민이 합작으로 배출하는 오염원이 건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된 것이 한국의 현실이 된 후에야 환경보전대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환경보전대책은 오염물질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 사전예방책과 이미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책으로 나눈다. 그러나 환경보전은 업체와 시민이 합심하여 오염을 스스로 방지하고 정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다. 규제와 감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보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7월에는 환경녹지국이 신설되었으며, 명예감시원제도(91년, 140명 위촉)와 환경오염신고센터(국번+2121)등도 활용하고 있다.

한편 1982년에는 공해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근절코자 공해업소의 조사관리를 강화하였으며(338개소의 카드화), 주택지에 위치한 공해공장 22개 업체와 세차장을 외곽지로 이전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공장 22개 업체, 세차장 66개 업체)

(1) 水質保全對策

수질오염은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및 쓰레기 放棄가 主因이다. 대구는 섬유공업과 도금업이 발달한 까닭에 그 어느 지역 보다 산업폐수로 인한 오염의 위험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극심지역 주변업소, 민원유발업소 및 상습위반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방주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생활하수,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하수 및 쓰레기로 인해 오염된 하천의 정화를 위해 1987년부터 금호강과 신천 종합대책으로 하도정비, 퇴적오니준설, 수위유지시설 설치, 하천 공원조성등을 해오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유지수 확보를 위하여 92년에는 임하댐에서 영천댐을 경유한 후 금호강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신천 상류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신천의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중이다. 91년말 현재 달서천과 남천 2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시내 전 폐수와 하수 951t 중 29만t(처리율 30.5%)을 처리하고 있으나 계획중인 신천하수처리장(93년 계획)이 완공되면 총 배출량의 61.5%를 처리할 계획이다.

(2) 大氣汚染防止

대기오염의 경우 오염방지시설개선과 연료의 고급화로 오염도는 많이 줄일 수 있었으나 배출요인의 증가로 단속과 감시등의 방지대책이 아직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80년대의 주요 추진시책은 다음과 같다.

① 燃料代替 및 淸淨燃料 供給擴大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의 제거를 위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고유황 경유(유황 함유량 1.0%)를 유황 함유량 0.45의 저유황경유로 1983년 6월 1일 부터 전면 사용토록 하고 84년 7월 1일 부터는 시내 시내 전 대기배출시설의 산업용 중질유를 저유황유로 사용토록 하였다. 또한 주방연료도 도시가스의 보급확산으로 저공해 연료로 대체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87년을 고비로 아황산가스오염도가 감소하고 있다.

② 自動車排出가스 規制

차량의 성능개선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노후차량 감소로 자동차배기가스의 오염도는 낮아졌으나 차량대수가 26만대를 넘어서고 정비불량이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연료절감과 추진력증가등을 이유로 배기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과적, 난폭운전 등의 행위로 인한 배기가스오염등은 여전하다. 교통량폭주로 인한 차량정체도 심각한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다. 1991년도의 점검차량은 4,938대에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은 4,433대 부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은 515대이다. 부적합차량중 88대는 정비를 지시하고 427대는 고발조치하였다. 92년 부터는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상설단속반(시1개반, 구7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측정장비의 현대화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③ 먼지 防止 對策

먼지는 발생원이 다양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가 곤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발생지역의 경우는 인근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고 발생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방지대책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실태파악과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운영을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비산먼지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에서 특히 비산 먼지로 고통을 겪는 지역은 안심지구이다. 71년에 도심지 공해방지를 이유로 안심지구에 조성된 시멘트 공장과 연탄공장은 도시경계의 확대에 의하여 도심에 버금가는 인구밀집지역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게 되었다. 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방진벽설치(높이 9m 길이 836m), 방진

림 식재(1,300본), 고가철도선 폐쇄, 작업장 밀폐 및 저탄장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자 90년에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120명). 지속적인 예방을 위하여 감시원 2명을 상주시켜 단속을 강화하며 분기 1회 공해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3) 騒音防止對策

소음은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소음과 장소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차량소음이나 이동행상등의 소음이 있다. 생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기 때문에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과 생활소음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80년대 초반에는 공공기관이나 교회의 확성기 소음이 상당한 피해를 낳아 이에 대한 계도를 한 결과 자율규제가 이루어졌으며, 방지대책이 곤란한 건설소음이나 단속이 어려운 이동행상의 소음에 대해서도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하고 있다.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병원주변이나 학교 및 주택가등의 지역을 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 하고 이들 지역에는 향타기, 착암기, 포크레인, 병타기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1986년 9월 1일에는 동산병원과 광병원 주변 일대의 병원과 학교밀집지역이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0년 4월에는 지역이 8개로(파티마병원 주변, 평리국교 주변, 대명여중 주변, 복현아파트 주변, 덕화여중 주변 및 제일여상주변) 늘어났다. 91년 2월 2일 부터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하여 건설, 교통 생활별로 규제지역과 규제기준을 지정하며 대단위 공사등 소음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방지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있다.

(4) 有害化學物質과 産業廢棄物 管理 對策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한 피해는 과거에는 그리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나 최근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일부 피해사례가 밝혀지면서 이로 인한 국민보건 및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체계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1년 2월 2일 부터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유해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유해성이 확인된 유독물은 제조나 유통과정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유독물에 대한 계몽 및 기술지도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독물 안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원래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재생이용자 또는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위탁처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운반신고, 관리대장비치등을 엄격

히 지키게 하고 기동단속반 운영과 교육등을 통하여 변두리 소각, 투기등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말 현재 총 배출량 195,091톤중 위탁처리량은 184,818톤이다.

3. 自然保護運動

1977년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자연보호운동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다. 종전 부터 실시하던 자연정화 및 자연보호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자연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 팔공산과 앞산의 자연휴식기간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불예방과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팔공산과 앞산에 허용된 구역외에는 취사를 할 수 없게 하였으며 각 직장에는 1社 1山 가꾸기 운동을 장려하여 참여업체수를 늘리고 있다. 각 운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1) 自然保護運動의 範圍

자연보호운동은 크게 자연정화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및 환경보전운동으로 나뉘어 체계화된다. 그 내용은 <表 3-125>와 같다.

自然保護 推進內容	
분야	추진내용
자연정화	쓰레기등의 폐기물 수거 / 관광유원지 정화 / 산업시설시 훼손된 국토의 정비 / 도로와 철로 건설시의 절개지 복구 /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
자연보호	자연자원보존-어류, 야생동물, 희귀식물, 산림, 광물 등(특히 천연기념물) 국토보존-토양초지, 관개수력등 / 사적자원보존 / 복지자원보호-휴양지 쾌적한 경관등
환경보전	대기오염규제 / 수질오염규제 / 소음, 진동규제 / 악취규제 / 화학약품 남용규제

2) 自然保護活動

① 自然保護會의 構成과 活動

1990년 말 현재 대구시에는 지역, 직능단체 및 학교별로 총 798개의 자연보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210,519명이다. 이들은 81년에서 90년 까지 10년간 총 2,685회의 보호활동을 벌였으며 연 10,895,580명이 참여하였고 보호활동중에 수거한 오물의 양만도 6,888,620kg이나 된다.

② 自然施設物의 施設과 整備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며 자연을 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기 위하여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오물처리시설, 계도시설 및 안내시설을 보강하였는데 이들의 내용은 <表 3-126>와 같다.

<表 3-126> 自然施設物の 設置와 整備

구분 연도	편 익 시 설		오 물 처 리 시 설		계 도 시 설		안 내 시 설	
	신설	보수	신설	보수	신설	보수	신설	보수
계	1,223	3,079	1,984	3,906	466	307	321	381
1981	21	613	222	768	6	19	37	15
1982	57	607	82	200	133	114	25	196
1983	235	1922	44	32	5	53	3	
1984	-	427	376	375	13	27	17	30
1985	19	29	194	323	14	7	28	33
1986	305	38	15	58	28	6	14	10
1987	374	932	37	464	150	9	52	8
1988	81	125	85	142	41	32	34	13
1989	39	179	22	310	9	25	32	41
1990	92	758	29	412	40	63	29	32

자료: 국민운동지원과

③ 自然保護憲章塔 建立

자연보호에 대한 다짐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자연보호헌장을 새긴 헌장탑을 각 공원에 건립하고 있는데 초기인 79년에는 앞산공원과 두류공원에 각 1개씩이 건립되었었고 86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앞산공원의 심신수련장안에 대덕라이온스 클럽이 사업비를 부담하여 1개소, 팔공산 도립공원에 대한산악연맹 대구경북연맹이 1개소 씩을 각각 건립하였다.

④ 自然休息期間制 實施와 炊事統制區域設定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공산과 앞산에 자연휴식기간을 부여하여 입산을 금지함으로써 수목의 성장을 돕도록 하였으며 모든 산에는 허용된 구역외에는 취사를 금지함으로써 자연의 훼손과 산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휴식기간을 부여한 곳은 <表 3-127>와 같으며, 취사허용지역은 팔공산의 동화사집단시설지, 파계사집단시설지 및 학생청소년야영장등 3곳과 앞산의 심신수련장내 청소년야영장등 총 4곳이다.

<表 3-127> 자연휴식년제 현황

기 간	1986. 2. 1~1988.12.31	1988. 2. 1~1989.1.31	1989. 2. 1~1992.1.31
대 상	팔공산(양전담골) 앞산(고산골)	팔공산(양전담골) -기간연장-	팔공산(폭포골)

Ⅵ. 治安・民防衛・消防 및 水防

1. 治安

1) 警察組織과 人力

(1) 警察組織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대통령령 제3,424호에 의하여 경상북도경찰국에서 대구직할시경찰국으로 분리독립한 대구시경은 7개과 5개 경찰서 105개 파출소로 출발하였으나 1984년 대구수성경찰서가 신설되었고, 1990년 5월 1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경찰국에는 강력과, 경찰서에는 형사과를 각각 신설하여 확대개편하였으며 동년 10월 5일 달서경찰서를 신설하여 1991년 7월 31일 까지 경찰국체제를 유지하였다. 경찰권의 독립을 위하여 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1991년 4월 1일 경찰법 제 4369호 및 동년 7월 31일 대통령령 제 13431호에 의거 대구시경이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으로 승격함으로써 치안행정은 기본적으로는 시행정과 독립된 위치에 서게 되었다.

(2) 警察人力

1981년 대구직할시 경찰국 인력은 2,484명으로 경찰관 1인당 시민 740을 담당하던 것이 1990년에는 3,906명으로 경찰관 1인당 시민 589명을 담당하게 되었다. 단순한 숫자로는 경찰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나 불안이 날로 가중되는 사회형편에 비하면 아직도 모자라는 인력이다. 경찰에서는 유능인력의 확보와 직무전문교육의 실시, 부서별 직능별 전문요원 배치등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족한 인력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인사위원회 운영의 상설화, 신상상담등으로 적격자를 선발하고 고충처리를 하며 信賞必罰, 실적위주의 보직관리등으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노력도 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

2) 保安行政

경찰의 업무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중 환경유해업소의 정화, 방법, 안전사고방지, 청소년선도등은 보안행정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1) 犯罪의 發生 및 檢舉

각종 문명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각종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한편 범죄수법 또한 다양하게 만든다.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사회의 변화로 인하여 증가일로에 있는 각종 범죄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의 범죄를 경찰이 분석한 바로는 흉폭화 집단화 기동화 조직화 년소화 우발화 양상이 점차 심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범죄의 발생장소는 주택가가 18.4%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54.5%가 발생한다. 특히 전체 범죄의 39.3%가 20대의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1981년 대구 시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18,540건이었는데 비해 1991년에는 70,303건으로서 무려 3.8배나 증가하였다<表 3-128>.

<表 3-128> 各種 犯罪의 發生 및 檢舉

구분	연도	1981			1986			1991		
		발 생	검 거	검거율	발 생	검 거	검거율	발 생	검 거	검거율
계		18,540	15,105	81	42,261	36,16	85.5	70,303	65,378	93.0
강력범		208	178	86	480	474	98.8	448	480	107.1
도범		3,596	1,388	39	7,332	3,091	42.2	6,667	2,239	33.6
폭력범		3,035	2,805	94	5,937	5,793	97.6	6,461	6,412	99.2
지능범		2,201	1,745	79	4,128	3,725	90.2	3,391	3,246	95.7
기타형사범		4,955	4,910	99	11,157	11,097	99.5	16,649	16,749	100.6
특별범범		4,545	4,034	89	13,227	11,936	90.2	36,687	36,252	98.8

자료: 대구직할시, 《대구통계연보》, 각연도

(2) 防犯活動

① 방법체제의 구축

경찰은 일단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지만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그 피해가 크게 되므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활동을 중시 한다. 범죄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덕적 가치기준의 혼란과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감 및 퇴폐유흥업소등의 범인성 환경의 확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 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경찰국은 날로 늘어나는 이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유해환경업소의 단속을 하고 있다. 방법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파출소의 인력보강, 방법순찰대 및 112순찰대의 강화등이 있다.

또한 이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광역방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유무선통신망 구성, 우범지역 범죄 집중단속, 광역기동순찰 강화, 및 계절적 지역적 특별 방법활동과 시민협력 방법체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하여 1990년 4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치안 세미나」를 경찰국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 각종 방법을 위한 인력과 장비는 <表 3-129>와 같다.

〈表 3-129〉

派出所人力 및 防犯裝備

(1991.12.31. 현재)

인 력				장 비			시 설			
계	경찰	의경	방법원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방법사이카	무전기	방법등	초소	비상벨
2,261	1,802	116	343	88	21	323	854	30,943	304	640

자료: 대구지방경찰청

② 범죄신고 자동경보망 설치운영과 순찰강화

특히 1991년 11월 2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신고 자동경보망을 개통 하여 범죄 예방과 동시에 범죄발생시 신속한 검거에 이용하여 큰 실적을 거두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7대)과 각 경찰서(각 1대)에 주 컴퓨터를 설치하고 각 파출소(50대) 및 112순찰차(2대)에 보조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를 각 가입자에 연결하여 리모콘을 이용한 신고만으로 각 경보망에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 위급한 상황에 활용도가 크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위하여 1991년 11월 1일 부녀 파출소근무를 순찰위주로 전환하고 순찰방법도 종전의 도보순찰 위주에서 112순찰대와 사이카순찰을 병행하여 순찰의 기동화를 꾀하였다. 또한 순찰시기도 정밀한 방법진단에 의하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별로 집중순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소홀하기쉬운 파출소간 경계순찰도 강화하였다. 1991년말 현재 설치된 순찰함은 14,400개이며 파출소간 경계에 설치한 순찰함은 938개이다.

(3) 靑少年善導

정부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91년도 대구지역의 범죄 발생은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이후 연평균 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검거는 물론 과학수사체제의 확립,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시민들의 방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있는 청소년선도를 위한 협력체제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풍기 및 범인성 유해환경을 단속하며, 청소년 보도 상담 및 지도, 미아·기아·가출인 보호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4) 環境有害業所의 淨化

환경유해업소는 각종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에 해가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들을 단속함으로써 각종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속의 대상은 음란퇴폐행위나 변태영업 및 무허가업소의 운영등이며 1990년 부터는 관광호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제한한 까닭에 시간외 영업도 단속대상이 되었다. 이들 단속실적을 〈表 3-130〉에 제시한다.

〈表 3-130〉

環境有害業所 團束實績

구분 연도	계	시간외 영 업	음란 퇴폐	변태 영업	무허가	기타	조 치				
							계	구속	구속	즉심	행정처분의뢰
1982	2,130		104	267		1,759	2,130		664	528	938
1983	2,673		100	246		2,327	2,673		787	1,570	316
1984	2,198		80	102		2,016	2,198		650	1,371	177
1985	1,865		78	56		1,731	1,865		661	1,028	176
1986	1,582		64	112		1,405	1,582		515	913	154
1987	1,305		73	74		1,158	1,305		528	626	151
1988	1,531		77	82		1,372	1,531		641	585	305
1989	2,092		92	127		1,873	2,092		894	739	459
1990	11,281	2,773	313	875	2,012	5,308	11,281	72	5,594	583	5,032

자료: 대구직할시 경찰국 보안과

3) 交通行政

대구는 협소한 도로율과 빈약한 교통시설에 교통량은 늘어만가서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교통질서가 어지럽고 사고율 또한 높아 경찰은 교통시설을 늘리는 한편 교통단속과 사고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 交通與件의 變化와 交通施設

대구의 도로율은 1981년에 12.6%였으나 1991년말에는 15.3%로서 2.7%가 늘어났으나 차량은 38,708대에서 262,076대로서 6.8배가 증가하였다. 그 중 1990년에서 1991년 까지 한해의 증가율이 20.8%나 된다. 따라서 교통정체가 심한 등 교통사정이 날로 악화되기 때문에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1981년에 2,382개이던 교통안전표지가 1991년에는 14,581개로 늘어났으며 신호기는 73개에서 384개로 신호등은 차량등이 338개에서 2,88개 보행등이 406개에서 1,616개로 늘어났다.

(2) 交通團束과 交通事故

도로율이 차량의 증가속도를 따르지 못하는데 자가운전의 증가로 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가 1981년 163,813명에서 506,448명으로 3.1배나 증가하자 경찰에서는 운전자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는 단속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이 실시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실적은 1981년에는 차량 38,708대에 단속건수는 117,161로서 평균 차량 1대당 3회의 단속이 이루어졌고 1986년에는 차량 82,514대에 87,180대를 단속하여 평균 1.1회의 단속이 이루어져 점차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80년대 후반 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1991년의 단속

건수는 다시 262,076대에 462,115대를 단속하여 차량 1대에 1.8회의 단속이 이루어졌다.

도로여건의 개선과 철저한 교통단속 및 차량의 성능향상으로 교통사고율이 과거에 비해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 세계 1위라는 악명을 안고 있다.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과실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운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1991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16,471건으로 모두가 운전자과실에 의한 것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사망이 495명, 부상이 18,900명이었다.

4) 各種 事故 防止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원인은 범죄만이 아니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고들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수가 허다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들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한다. 6·25전쟁 전후에 매몰되었던 군용 폭발물사고, 가스 폭발사고, 공사장 폭발사고등 각종 폭발사고와 무연탄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연탄가스중독사고 및 강과 하천이나 유원지등에서 발생하는 익사사고등이 이들 사고에 해당된다.

폭발사고방지를 위해서는 사고방지를 위한 계몽, 폭발물 불법 취급자의 단속,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지도단속, 위험물 취급자 안전조치등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여왔다. 1981년에서 1990년 까지 폭발물에 의한 사고는 총 16건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하였는데 그중 6건이 장난에 의한 사고여서 취급주의를 위한 계몽이 더욱 절실하다. 연탄가스중독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반상회등을 통하여 계몽활동을 폈으나 최근 가정의 연료가 도시가스 및 유류로 대체되고 있어 이의 발생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연탄가스 중독사고는 90건이 발생하여 123명이 사망하였다.

수성유원지와 동춘유원지등의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락철에 유원지파출소를 운영하고 위험수역에 부표와 경고판을 설치하고, 특별순찰을 하며 수상안전홍보활동도 실시하여 사고방지에 힘을 쏟고는 있으나 익사사고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발생한 익사사고는 224건이며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다.

2. 民防衛

1975년에 민방위대가 편성된 이래 민방위대원수가 매년 증가하여 1991년에는 총 243,031명에 지역민방위대 3,205 직장민방위대 559대 기술지원대 7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그간 민방위대는 완벽한 방재도시 건설을 위하여 민방위대운영의 활성화,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및 주민신고태세의 강화에 힘써왔다.

1) 民防衛隊編成과 運營

(1) 組織의 效率化

민방위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는데 1982년에는 정부방침에 의하여 군무원과 청원경찰 및 원양선원등을 편성대상에서 제외하고 1989년에는 편성연령을 17~50세 에서 20~50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훈련과 동원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그 외에도 5인 미만의 통 민방위대와 20인 미만의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를 동직장 또는 상위직장 민방위대로 통합 편성하여 사태수습능력을 보강하였으며, 도시의 가로망 블록등을 단위로 주택과 상가등이 밀집되어 하나의 단지로 형성된 지역과 지리적으로 산불이나 수해등에 공동대처가 필요한 지역은 지역과 직장민방위대를 연합민방위대 편제로 운영토록하였다.

한편 민방위대 지휘체계를 보강하고 사태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기 위하여 예비군출신 지휘관 경험자와 새마을 지도자등 활동성이 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를 민방위대별로 1명씩 副隊長으로 임명하였다.

(2) 機動分隊와 示範民防衛隊

水防, 山火, 消防, 化生放등 민방위기동분대를 조직하여 예상재난을 대비한 실기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용장비를 확대 보급하여 사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비정규전발생시 군경지원업무와 전시나 사태발생시 군부대의 작전지원 및 필요한 노력지원임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1991년 현재 민방위기동대총수는 지역대가 2,319대 직장이 300대이다.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의 표준이 되고 선도적 민방위 활동을 수행케 하기 위하여 우수지역, 직장·기술지원대를 시범 민방위대로 지정하여 대별 책임지도관을 지정 중점 육성하여 우수 사례를 확대·보급하고 있으며 우수 시범대에 대하여 장비확보 지원 및 선진지견학으로 사기를 높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1991년 현재 시범민방위대총수는 334개대이며 그중 2개대는 내무부지정이고, 16개대는 시 지정, 42개대는 구지정, 274개대는 동지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3) 化生放防護

1987년 까지는 직장 민방위대와 구 기술 지원민방위대 화생방분대를 편성하여 화생방에 대비하였으나 1988년 부터는 농약, 유독가스 유독성 물질취급업소, 국가안보목표시설주변지역의 통 민방위대에도 화생방 기동분대를 편성보강하고 89년 부터는 위약지역 통 민방위대의 1/10 규모로 지역 화생방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대북관계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대태세를 완화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60년대 부터 계속된 화학무기 대

량생산과 핵무기보유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화생방분대는 1991년말 현재 총 829개대 7,849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생방에 대비하여 86~90년을 1차 5개년 계획기간으로 하여 방독면과 분대장비 각각 88%와 96%를 보급하였고 91~96년을 2차 계획기간으로 하여 장비와 물자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 民防衛敎育과 活動

민방위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시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유사시에 탄력한 동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시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 民防衛敎育

민방위교육은 80년대 초반에는 통일·안보분야와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중반기는 86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주민의식과 책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한 국민정신교육과 급진좌경사상 대응, 학원문제등을 다루었다. 후반기에는 88올림픽을 대비한 손님맞이 대비, 국가발전, 국방외교와 새로운 통일방안, 노사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상황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였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과소비, 사치 낭비풍조의 만연을 우려하여 새생활 새질서 실천을 통한 도덕성 회복과 국민적 화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실기교육은 생활 민방위에 중점을 두어 자연 및 인재에 대한 대응능력배양, 주민신고의 생활화, 전시국민행동요령등을 교육하였고 특히 걸프전 발발후는 화가생방 방호능력등 실질적인 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民防衛訓練

① 民防衛의 날 訓練

1975년 민방위의 날 훈련이 시작된 이래 내무부 민방위훈련본부의 주도로 매월 지역별 직장별로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1987년 부터는 이를 2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격월로 중앙통제훈련과 지방통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중 특기할 것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기간중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1981년에서 1990년 사이 총 훈련횟수는 주간훈련이 100회 야간훈련이 7회였으며, 실시하지 않은 횟수는 총 8회이다.

② 非常召集訓練과 示範訓練

대장의 지휘체계확립과 전시 또는 민방위 사태발생시 신속한 응소로 사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년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예고훈련 2회 불시훈련 2회를 실시하고 있

다. 1987년 부터는 4/4분기 비상소집훈련은 응소훈련으로 대체하여 대장의 대원 소재확인하고 지역특성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 있다.

1986년 부터는 매2년 마다 전국규모의 지역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대응능력제고를 꾀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은 86년에는 대구은행(종합훈련), 88년에는 제일모직(화생방훈련), 90년에는 평화발레오(종합훈련)가 지정되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3) 民防衛隊活動

각종의 크고 작은 화재발생시 민방위대를 합리적으로 동원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태 예방 및 수습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1990년 3월 9일 동구 각산 마곡지(안심 4동) 산 불발생시 민방위대원 1,115명이 동원되어 진화에 적극기여하였다.

3) 住民申告

(1) 住民申告體制

주민신고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간첩, 거동수상자, 범법자, 각종재난등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재빠른 신고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막거나 줄여 사회안녕과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981년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5개가구를 1개조로 한 신고망을 편성하여 운영하다가 1986년 부터는 군 민 통합, 반, 직장, 자연부락단위로 신고망을 운영하였다. 1990년에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으로 범죄없는 사회를 구현하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종래의 안보분야 위주의 신고에서 범죄신고 위주로 신고대상을 변경하였는데 強竊盜, 遊興業所 夜間營業, 頽廢業所, 쓰레기 常習放棄등이 신고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시에서는 신고의식이 투철한 통반장, 신고원 특별관리망 요원등 21,661명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지역내 범죄관련 동향과 주민 여론을 동 파출소에 통보하도록 하여 범죄색출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신고망은 반, 직장, 자연부락 단위로 구성되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약국, 숙박업소, 이미용업소운영자를 고정 신고요원으로 임명하고, 환경미화원, 집배원, 검침원, 외판원, 운전원등 이동하며 직업에 종사하는 자를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신고정예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輿地, 寺刹 등의 대공위약지(120개소)와 자갈마당, 캠프헨리등 집단하숙지역(5개 지역), 대중이용업소(14,735개소), 다중집합장소(164개소)등 범법자의 은닉이나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은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에서 월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다. 1991년 말 현재 기본신고망은 18,763개망에 신고원은 고정 24,360명 이동 4,568명 모두 28,928명이며, 특수관리망은 1990년 말현재 15,024개소 모니터요원은 21,66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 住民申告弘報와 申告用 비상벨 設置

주민신고는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각종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민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년2회 집중홍보기간(6월과 11월중 각 10일간)을 설정 방송, 신문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주민신고의 중요성, 신고대상 및 요령등을 홍보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시민의 출입이 잦은 극장, 역·터미널등의 상설애프시설을 활용한 홍보, 홍보유인물을 통한 홍보와 신고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2회의 기관장 서한문 격려등을 활용하는 한편 시교육위원회 주관의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웅변대회와 글짓기, 포스타그리기등의 경연대회 개최도 시민신고의식함양에 한 몫을 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에는 언론매체 활용횟수는 304회 유인물 제작배포는 1,508,000매 었다.

각종 민생침해 사범이 날로 과격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사시 긴급연락이 가능한 이웃간 방법비상벨을 1989년 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비상벨 설치비는 주민부담과 정부지원을 각각 50%로 하여 범죄의 취약지인 여관이나 상가, 미장원 및 주택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는데 89년에는 983대, 90년에는 1,473대 91년에는 2,062대를 설치하였다. 1992년 까지의 설치목표는 16,698대이다.

3. 消防

1) 消防力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구직할시 소방본부가 발족되면서 소방업무는 지방자치업무로 이관되었다. 1981년의 소방관서는 소방본부 밑에 소방서 2개서, 소방파출소 10개소 였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352명, 소방장비로는 소방차 5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1년 말 현재는 1개 소방본부 5개 소방서 32개 파출소에 소방공무원 716명이 근무하고 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외에도 의용소방대원 742명, 청원소방원 302명 및 자위소방대 120,335명으로 구성된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3대 굴절사다리차 4대를 포함하여 차량 1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장비 163대(1990년)를 활용하고 있다. 소방용수로는 소화전 2,609, 저수조 62, 급수탑 49개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火災發生과 對處

(1) 火災發生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위험물질 사용량의 증가와 시민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화재

발생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1981년에서 1991년 사이 화재발생율은 연 평균5.9%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총 172명이다<表 3-128>.

화재는 주로 失火이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다<表 3-129>. 화재는 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공장에서 발생하나 최근 차량이 늘어나면서 차량화재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表 3-131>) 겨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表 3-131> 火災發生現況

구분 연도	건수	실화	방화	미상	기타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천원)	소실 면적(m2)	소실 동수	이재 가구수
						계	사망	부상				
1981	419	361	15	42	1	40	13	27	1,195,860	22,562	335	206
1982	480	444	7	7	22	66	16	50	806,275	15,193	319	178
1983	441	406	22	5	8	62	41	21	595,199	17,681	281	199
1984	481	464	17	.	.	72	23	49	460,241	14,328	313	271
1985	472	450	20	2	.	59	9	50	411,483	12,720	295	178
1986	482	450	32	.	.	42	4	38	291,995	14,737	296	51
1987	627	532	65	9	21	85	14	71	763,440	23,908	400	125
1988	717	590	97	11	19	72	21	51	948,734	24,055	403	105
1989	710	573	101	.	36	62	0	52	183,447	29,131	437	98
1990	631	513	84	.	34	41	4	37	668,139	25,745	357	111
1991	661	572	63	.	26	47	21	26	936,373	26,911	335	78

자료: 소방본부

<表 3-132> 原因別 火災發生現況

연도	계	전기	담배불	난로	유류	가스	불장난	방화	기타
1981	419	95	31	30	49	4	44	15	151
1982	480	130	62	23	61	9	52	7	136
1983	441	124	47	35	42	5	54	22	112
1984	481	150	150	59	15	11	43	65	6
1985	472	190	58	30	35	9	48	20	82
1986	482	166	69	33	32	15	63	32	72
1987	627	191	108	31	33	12	71	65	116
1988	717	222	96	39	29	18	57	97	159
1989	710	247	100	26	25	19	58	101	132
1990	631	233	92	28	20	18	46	84	110
1991	661	266	92	16	34	19	47	63	112

자료: 소방본부

〈表 3-133〉 場所別 火災發生現況

연도	계	주택 (아파트)	공공 건물	공장 (작업장)	점포	학교	사업장	창고	병원	차량	기타
1981	419	137		103	45	4	10	9	5	24	82
1982	480	121		159	44	3	17	5	2	37	92
1983	441	116	3	114	46	5	13	1	3	17	123
1984	481	157	1	116	56	4	16	4	4	33	90
1985	472	143	1	115	32	2	30	8	1	50	90
1986	482	159		89	40	6	19	10		51	108
1987	627	181	10	129	42	9	24	8	1	89	134
1988	717	183		159	40	8	24	14		123	166
1989	710	160	4	156	50	2	39	16	5	123	155
1990	631	153		135	51	5	25	13	2	131	116
1991	661	146		90	55	3	16	11	1	미상	274

자료: 소방본부

1980년대에 발생한 대형화재를 장소와 원인별로 분석하면 〈表 3-134〉와 같다.

〈表 3-134〉 1980年代의 大型火災

일 자	장 소	원 인	인 명 피 해		재산피해 (만원)
			사망	부상	
1983. 2.13	중구 태평로 안심여관	전기합선	1		1,260
1983. 4.18	중구 향촌동 51-7 초원의 집	전기과부하	25	69	9,800
1983.11. 2	중구 대신동 182 유성빌딩	정전,촛불	2		1,263
1983.10.25	북구 복현동 315 성보원(정박아시설)	촛불	4		182
1984. 5.26	수성구 범어1동 804 대동미장원	전기콘센트 접촉불량	3		160
1984. 8.21	북구 검단동 1060-7 정다방	벽걸이선풍기 모터과열	2		190
1987. 3. 6	서구 비산7동 2036-36 고려염직	보일러실 열매체유누출	3	12	220
			(소방관)	(공원)	
1987. 3.23	중구 남성동 96 원재당한약방	연탄난로과열			5,796
1987. 4. 8	중구 동문동 33-3 독일약국	전기합선		2	3,059
1988. 2. 6	남구 대명9동 859-1 주택	냉장고 스파크 프로판가스 인화	5		138
1989. 4.14	남구 대명6동 1099-3 대영음악미술학원	담배불		5	161
1990.10.26	서구 비산7동 2041-35 제일화직	모타과열		1	5,820

자료: 대구직할시, 《直轄市政10年》, 1991, pp.807~808.

(2) 火災豫防과 救急隊運營

① 火災 危弱地區의 集中管理와 消防警戒地區 指定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함으로 시에서는 화재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소방시설과 소방장비를 현대화하고 화재를 조기발견 신고 함으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소방대상물을 지정하여 집중관리하며 화재위약지구와 경계지구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위약지구에 대하여서는 연2회 소방진단을 실시하고 시설주에 대해서는 소방교육을 실시한다.

화재경계지구는 도시 건축물의 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 공장, 창고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消防水利 消防施設 또는 消防通路 미흡지역 및 위험물 저장지역등이다. 이 지구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화재통보훈련, 소화훈련, 구호훈련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도 연2회이상 실시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1981년의 대구의 화재경계지구는 서문시장, 남문시장, 교동일대, 봉덕시장, 북문시장, 덕산시장, 향촌동일대등 7개 지구로 주로 재래시장이 지정되었다. 1982년에는 여기에 대명시장과 원대시장이 추가되어 9개지구가 되었으나 1989년 덕산시장과 향촌동일대가 재개발지구가 됨으로써 다시 7개지구로 환원되었다.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의 소재가 주로 목재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점차 내화소재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위약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유도하고 있다.

② 消防管理者 教育

보다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1981년부터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하여 매년 1~2회씩 방화관리자 강습을 실시하여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수여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소방상식과 예방대책을 주지시키고 있다. 1981년 부터 1990년 까지 방화관리자 강습은 총47회에 연인원 10,3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무교육은 198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회씩 실시하여(1981년은 1회) 연인원 52,527명이 교육을 받았다.

③ 消防應急隊運營(119救急隊)

1983년 부터 화재, 안전사고, 가스중독, 임산부등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귀중한 인명을 구조함으로써 봉사하는 소방상을 확립키 위하여 각 소방서마다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급대는 구급대원과 통신요원이 대기하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동하여 구급처치를 한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함으로써 피해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늘어나는 교통사고등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일 평균 이송건수가 1990년에는 9.6건이나 된다.

④ 危險物 安全管理과 工業團地 및 遊興接客業所의 消防安全 對策

특히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연2회 정밀 소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보완토록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장밀 집지역인 5개 공단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91년 도에는 위험물취급시설 2,687개소와 공단내 1,546개 업체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유형접객업소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종사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시설물관리대장을 비치케하여 격월 1회 이상 확인케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소방안전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의법조치함과 동시에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토록하고 있다.

4. 水防

대구는 분지여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지역이 빈발하였으나 근래는 수재정보전달체계의 운용과 배수지 건설로 수재가 줄어들고 있다.

① 水災情報傳達體系의 補完整備 및 堤防補強

1985년의 수재정보전달체계의 보완 정비를 위하여 제방과 침수지역등 위약지 28개소에 요원을 지정배치하였으며 건설부주관으로 낙동강 및 금호강수계의 정보교환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금호강수계인 팔달교등의 제방 3개소 역시 건설부주관으로 43억원을 들여 총연장 9.2km를 보강하여 홍수피해를 막고자 노력하였다.

② 內水의 排水能力 提高

수방은 강물의 범람과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방지가 주가 된다. 따라서 제방보강과 동시에 내수의 배수가 잘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85~87년 3년 계획으로 침산배수장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동촌배수장을 확장하였다. 침산배수장은 초당 배수능력이 10t으로 수문 4면 400마력 짜리 양수기 4대를 갖추고 있다. 동촌배수장은 초당 배수능력이 4.4t이던 것을 41.4t으로 늘리고 900마력 짜리 양수기 8대를 설치하였다.